

## 중국발 원자재값 급등 '슈퍼 사이클' 전조인가



**활기치는 망원시장** 추석 장바구니 물가가 크게 오르자 정부가 농수산물 할인쿠폰 지급 등 가격 안정 방안을 내놓았다. 21일부터 종이 온누리상품권은 10% 할인된 가격에 살 수 있고, 전통시장과 중소형 마트에서 농수산물을 살 때 최대 1만 원 할인받을 수 있는 110억 원 규모의 쿠폰도 풀린다. 휴일인 20일 서울 마포구 망원시장이 장을 보는 시민들로 붐비고 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 중 산업생산 증가율 최대폭 "다음 부양책은 인프라 투자"

글로벌 원자재 시장에 '슈퍼 사이클(Super cycle)' 조짐이 선명하다는 진단이 나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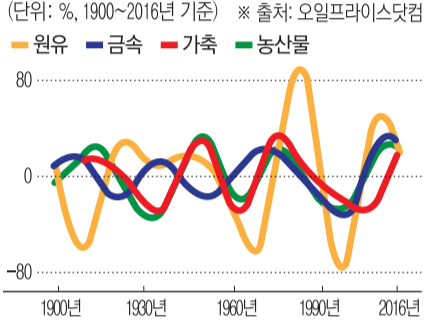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전염병의 세계적 대유행)에 대응하느라 세계의 재정·금융 정책 여력이 한계에 도달하면서 각국이 다음 단계의 경기부양책으로 인프라 투자에 집중할 것이라는 기대에 국제 원자재 가격이 들쭉이고 있다.

아직 전 세계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계속 늘고 있어 종식 선언을 하기엔 이르지만, 글로벌 경제 회복기가 곧 도래할 것이라던 신호가 조금씩 나오고 있다. 특히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경기 침체에서 가장 먼저 회복세를 보이는 중국이 원자재의 슈퍼 사이클을 주도할 것이라는 관측이 고조되고 있다.

19일(현지시간) 미국 경제전문방송 CNBC에 따르면 15일 발표된 중국의 8월 산업생산은 작년 동기 대비 5.6% 증가했다. 이는 코로나19 사태 전인 지난해 12월 이후 8개월 만의 최대 증가 폭이다.

인프라와 기계 등 물리적 자산에 지출된 자본 규모를 보여주는 고정자산투자 증가율은 1~8월 마이너스(-)0.3%로 올해 들어 가장 양호한 수치를 기록했다. 코로나19 여파로 1~2월 고정자산투자 증가율이

### 주요 원자재 그룹별 가격 사이클



### 슈퍼 사이클 (Super cycle)

원자재 가격이 20년 주기로 등락을 반복한다는 개념이다. 직전 슈퍼 사이클은 2003~2008년 중국과 인도, 브라질 등 신흥국의 경제 성장에 힘입어 원자재 가격이 상승했던 시기다. 이때 서부 텍사스산 중질유(WTI)는 배럴당 30달러에서 140달러까지 치솟았다. 하지만 2008년 미국발 글로벌 금융위기가 도래하면서 원자재 가격은 다시 하락기를 맞았다.

-24.5%까지 내려갔던 것을 고려하면 경기가 빠르게 회복 기조에 올라서고 있음을 보여준다는 평가다. 댄 왕 행성은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중국이 연초부터 경기 회복을 위해 정부 주도 인프라 시설 투자를 진행하고 있어 그 여파로 산업생산과 고정자산투자 증가율이 호조를 보였다"고 설명했다. ▶3면에 계속 최혜림 기자 rog@

## 중소 절반이 유보소득세... 업계, 강력 반발

같은 '형제기업'인데 시몬스는 내고 에이스는 제외... 기준도 모호

### "사내유보금, 위기시 비상금 역할 빈대 잡자고 초가삼간 태우는 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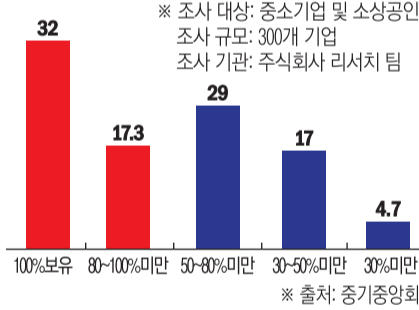
개인 유사법인을 겨냥한 초과 유보소득 과세 시행을 앞두고 중소기업계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어려운 상황에서 정부가 기업 지원은커녕 규제 강화로 투자의 욕을 꺾고 있다는 지적이다.

▶관련기사 3면

7월 기획재정부는 '2020 세법개정안'에서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했다. 가족기업이 내년부터 일정 수준 이상 유보금을 갖고 있으면 사실상 배당한 것으로 간주해 배당소득세를 부과한다는 것이 골자다. 기재부는 당기순이익의 50% 또는 자본금과 이익잉여금·차분잉여금을 합한 자기자본의 10%까지만 '적정 유보소득'으로 보고, 이를 초과하는 유보금부터 과세기로 했다. 대상 기업은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 지분율이 80% 이상인 법인이다.

이번 세법 개정은 일부 기업 사주들이 법인세율이 소득세율보다 낮은 점을 활용, '개인 유사법인'을 세워 일탈한 사례들 때문이다. 페라리 등 슈퍼카를 회사 차로

###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이 보유한 회사 지분



매입해 대학생 자녀에게 이용하게 하거나 호화 유학 생활자금, 아파트 구매자금으로 지급하는 경우 등이 대표적이다.

중소기업계는 이 같은 유보소득세가 과도한 경영 간섭이라고 반발한다. 투자 유치나 대출이 어려운 중소기업에 사내유보금은 경영위기 시 활용할 수 있는 일종의 '비상금' 역할을 해왔다. 중소기업계 관계자는 "일부의 일탈 행위를 구실로 삼아 중소기업계 전반에 파장을 미칠 수 있도록 이번 세법 개정안은 빈대 잡자고 초가삼간 태우는 격"이라고 말했다.

지분율 기준 역시 모호하다. 예를 들어 시몬스는 지난해 매출액 2037억 원, 당기순이익 35억 원을 기록했다. 에이스첨대

는 작년 매출 2774억 원, 당기순이익 442억 원을 달성했다. 이익잉여금은 시몬스와 에이스첨대가 각각 1194억 원, 4346억 원이다. 현 개정안이 그대로 진행될 경우 비상장사인 시몬스는 과세 대상이 되지만 상장사인 에이스첨대는 과세 대상이 아니다. 시몬스는 안정호 대표가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고, 에이스첨대는 안정호 대표가 74.56%, 안유수 회장이 5%를 보유해 특수관계인 지분율이 79.56%다. 안정호 대표는 안유수 회장의 장남이며, 안정호 대표는 차남이다. 즉 두 기업 모두 가족기업이자 형제기업이지만 한 쪽만 세금을 내게 되는 셈이다.

중소기업중앙회에 따르면 비상장 중소기업 중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 지분율이 80% 이상인 경우는 49.3%에 이른다.

게다가 벌써 가족기업의 지분율이 80%를 넘지 않게 해주겠다고 접근하는 사모펀드도 있다.

중소기업중앙회 관계자는 "일정 지분을 사모펀드가 매입해 법인기업이 과세대상이 되지 않도록 돕는 대신, 시중금리의 몇 배에 해당하는 이자비용을 보전해 달라고 요구하는 경우도 있다"고 우려했다.

이진민 기자 aaaa3469@

## 오늘도 164만명은 '고통철'을 탑니다

### 스페셜 리포트

### 1호선 40%가 운행 20년 넘겨 노후화 따른 사고 우려 목소리

"늙은 1호선 전철엔 특유의 쾌쾌한 냄새가 나요. 에어컨을 틀어도 소리만 요란하고 시원해지지 않는 일도 있고요. 이런 전동차를 타면 '잘못 걸렸다' 싶죠."

▶관련기사 5면

1호선을 이용해 경기 부천에서 서울로 출근하는 한기람(32) 씨의 말이다. 한 씨는 "차체가 녹슬거나, 소음과 진동이 심한 전동차를 타는 날에는 사고가 나진 않을까 걱정도 된다"며 "전동차에 설치된 공공형 와이파이에는 만족스럽게 사용한 적이 없다. 유독 1호선만 타면 연결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20년·164만 명·1시간·163%'. 한 씨가 느끼는 불편함과 불안감은 이 숫자로 대변된다. '수도권 전철 1호선'에 얽힌 통계다. 1974년 8월 15일 운행을 시작한 수도권 전철 1호선은 올해로 개통 46주년을

맞았다. 세월만큼 전동차도 나이를 먹었다. 1호선 전동차 10대 중 4대는 운행한 지 20년을 넘긴 정밀안전점검 대상이다. 지속적인 점검을 받는다 해도 낡은 전동차의 사고와 고장 위험을 완전히 배제하기 힘들다. 전동차 노후화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끊이지 않는 이유다.

20일 철도통계연보에 따르면 지난해 1호선 전철을 이용한 승객은 하루 평균 '164만 명'에 달했다. 이들 중에서는 20~30km를 이동하는 승객이 가장 많았다. 약 '1시간'이 걸리는 거리다. '163%'는 지난해 기록된 1호선의 최대 혼잡도다. 혼잡도는 적절한 수용 인원 대비 승차 인원인데, 100% 이상은 정원보다 많은 승객을 태웠다는 뜻이다. 결국, 164만 명의 시민이 하루 평균 1시간을 20년이 넘는 1호선 전동차에서 힘겹게 보낸다는 해석을 할 수 있다.

특히 1호선을 대체할 마땅한 교통수단이 없는 게 현실이다. 다른 노선과 같은 1350원의 요금을 내고도 불안한 1호선에 몸을 맡겨야 하는 시민들이 전동차 교체나 시설 개선을 간절히 원하는 이유다.

유창욱 기자 woogi@

## 비수도권 '2단계' 27일까지 연장

### 38일만에 확진자 100명 이하로 수도권 초중고 오늘 등교 재개

비수도권 지역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27일까지로 1주일 연장된다. 수도권 초중고 등교가 21일 재개된다.

▶관련기사 4·16면

정부는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이같이 결정했다. 정 총리는 "최근 수도권 밖에서는 하루 평균 20명 내외로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어 수도권보다 상황이 낫지만, 새로운 집단감염과 함께 경로를 알 수 없는 확진 사례가 계속되고 있어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추석 연휴를 앞두고 감염경로를 알 수 없는 확진환자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도 고려했다.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날 0시 기준 신규 확진환자는 82명(국내발생 72명·해외유입 10명)으로 지난달 13일(56명) 이후 38일 만에 100명 아래로 떨어졌다. 하지만 최근 2주간(7~20일) 신규 확진자 1798명 중 493명(27.4%)의 감염경로가 확인되지 않아 긴장을 놓기엔 이르다. 세종·김지영 기자 jye@

# 고향 대신 휴가... 객실 동난 호텔·리조트에 방역 '비상'

## 추석 新소비 트렌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추석 풍속'마저 바꿨다.

사회적 거리두기 여파로 추석연휴 기간 귀성인구가 줄어든 반면 전국 주요 관광지의 호텔과 리조트는 일찌감치 예약이 마감되는 등 인기를 누리고 있다. 코로나19 확산 우려로 방역이 취약한 재래시장은 더 한산해졌고 고향을 가지 못하는 마음을 전하기 위해 예년보다 고가 선물을 준비하는 이들이 백화점은 오랫동안 특수를 톡톡히 누렸다. 여기에 과일·채소 등 제수용품 가격이 폭등하면서 올해는 명절 상차림 배송 서비스도 인기다. 일부 호텔과 리조트에서는 여행과 차례를 모두 포기할 수 없는 이들을 위해 숙소로 차례상을 배달해 주는 서비스까지 제공하기에 이르렀다. 방역당국은 코로나19 전파 차단을 위한 고향 방문 자제가 취지와 달리 재확산의 계기가 되지 않을까 바짝 긴장하고 있다.

20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가장 5일간의 추석 황금연휴를 맞아 고향 대신 여행을 떠나려는 '추강스족'이 늘면서 주요 관광지의 호텔·리조트 예약률이 평균 80%를 넘어섰고 백화점의 프리미엄 선물세트 매

코로나 여파 명절 연휴 귀성 포기 차례 간소화로 제수용품 소비 줄어 프리미엄 선물 매출은 2배 증가 유통가, HMR 간편 차례상 인기

출도 두 자릿수 성장했다.

주요 관광지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여름 휴가를 미룬 이들이 추석 연휴에 몰릴 조짐이다. 여행업계와 주요 이커머스에서 집계한 전국의 호텔·리조트 예약률은 일부 지역이 이미 100%를 달성하는 등 높은 인기를 얻고 있다. 제주도 5성급 호텔 예약률은 평균 70~80% 수준이며 충남 서해안 지역 리조트 예약률은 100%에 육박했다. 김포와 김해에서 출발하는 제주행 항공기 노선의 예약률은 70~80%를 기록한 상황이다.

구인구직 플랫폼 사람이 직장인 1354명을 대상으로 '올 추석 귀성 계획'에 대해 조사한 결과 열 명 중 여섯 명은 귀성 계획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한국철도공사(코레일)의 추석 승차권 예매율도 52.6%를 기록하며 지난해 절반 수준으로 하락했다. '귀성 포기'족이 늘어난 방증이다.

고향에 가지 못하는 아쉬움은 추석 선물



의 고급화로 이어졌다.

신세계백화점이 실시한 추석 예약판매 결과 고가의 한우가 전년 동기 대비 47.3% 판매량이 늘며 프리미엄 선물 수요가 늘어난 것을 실감케 했다. 롯데백화점에서 선보인 이색 선물세트인 '프리미엄 생트러플 세트'는 이미 30% 이상 물량이 소진될 만큼 높은 인기를 얻고 있다.

추석 귀성인구의 감소로 가장 큰 어려움이 예상되는 유통업태는 재래시장이다. 코로나19 방역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재래시장을 찾는 발길이 가뭄이나 줄어든 데다 차례를 포기하는 '차포족'까지 늘어나서다.

농촌진흥청이 전국 소비자패널 940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결과를 실시한 결과 올해 코로나19 여파로 추석에 차례를

지낸다고 응답한 소비자는 44.5%로 전년 대비 10% 감소했다. 올대로 오른 농산물 가격도 상인들의 발목을 잡는 요인이다.

재래시장과 달리 농민들은 백화점, 대형마트 등이 농가 살리기 착한소비를 전개하면서 귀성인구 감소에 따른 판매 부진의 여파는 크지 않을 전망이다.

상차림 비용 부담으로 동원그룹 더반찬, 배민 등에서 전개하는 상차림 배달 서비스의 호응도 예상된다.

식품업계에서는 HMR(가정간편식)로 간편하게 차례상을 차릴 수 있는 레시피를 공개하며 제수용품 구입 부담이 큰 소비자를 유혹하고 있다. 동원그룹의 더반찬&은 사회적 거리두기가 2.5단계로 강화된 8월 말부터 일일 주문량이 이전보다 38% 증가했

다. 대상 청정원의 정원e샵은 간편하게 준비하는 제수음식을 판매하고 있다.

일부 숙박업소에선 상차림 서비스를 제공하며 차례도 지내는 일석이조의 여행을 제안한다. 롯데호텔은 추석을 앞두고 '패밀리 캐더링'을 선보였다. 패밀리 캐더링은 명절 음식과 롯데호텔 서울 레스토랑의 인기 메뉴를 한번에 만나볼 수 있도록 구성했다. 마스터 셰프가 손수 빚은 송편과 민어, 송이, 소고기 등 최상급 식재료를 이용한 명품전, 갈비찜, 양갈비, 랍스터 등 기본 메뉴에 스페셜 메뉴도 포함됐다.

메이필드호텔 서울의 한정식당 '봉래헌'은 '정성과 예를 갖춘 한가위 상차림'을 출시했다. 세종=이해근 기자 pinvo1973@ 김혜지 기자 hejji@

## 귀성 줄었다지만... 자가용 이용 늘어 '교통지옥' 전망

### 특별방역·교통대책 시행

올해 추석 연휴 하루 평균 이동량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감염 우려 등으로 지난 추석과 비교해 약 30% 수준으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다. 20% 정도는 아직 이동 여부를 고민 중이어서 정부는 방역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정부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국민 이동 자제 권고 및 추석 특별방역기간 지정'을 기본 방향으로 9월 29일부터 10월 4일까지 6일간을 '추석 특별교통대책기간'

철도·버스 창가 좌석 우선 예매 고속도 휴게소 음식 포장만 허용 나들목 등 상시 음주단속 시행

으로 정하고 관계기관 합동으로 '정부 합동 특별교통대책'을 수립·시행한다.

한국교통연구원에서 실시한 '추석 연휴 통행실태조사'에 따르면 추석 특별교통대책기간 총 2759만 명, 하루 평균 460만 명이 이동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지난해

추석과 비교해 28.5%(하루 평균 183만 명) 감소한 수준이다. 이동 인원은 작년 추석(3215만 명, 5일간) 대비 14.2%(456만 명)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코로나19 추가확진자 추이 변화 등에 따라 아직 이동 계획을 정하지 못한 국민이 19.3%에 달해 실제 이동 규모 및 혼잡 상황 등은 달라질 수 있다. 특히 코로나19로 불가피하게 이동하는 경우 대중교통보다는 자가용을 이용하겠다는 국민이 최근 5년간 84.4%에서 91.4%로 늘어 고속도로 쏠림 현상이 심화할 가능성도 크

다.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차량 대수는 1일 평균 459만 대로 예측된다.

정부는 코로나19 이후 처음 맞이하는 명절을 '수송력 증강' 중심의 기존 대책과 달리 '이동 시 방역과 안전' 관리에 역점을 뒀 마련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고속도로 휴게소 내 출입구 동선을 분리하고 출입명부 작성, 모든 메뉴 포장만 허용, 실내테이블 운영 중단 및 야외 테이블 투명가림막 설치 등을 추진한다. 주요 휴게소는 혼잡안내시스템 및 혼잡정보도로전광표지 사전 표출 등을 통해

휴게시설 이용 분산을 유도하기로 했다.

철도, 버스, 항공, 연안 여객선은 창가 좌석 우선 예매를 통해 승객 간 거리를 최대한 확보하고 예매부터 탑승, 이용까지 전 단계에 걸친 방역 체계를 확립해 철저히 이행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추석에는 고속도로 통행료 유료 전환을 시행하되 통행료 수입은 휴게소 방역인력 및 물품 확충 등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공익 목적에 활용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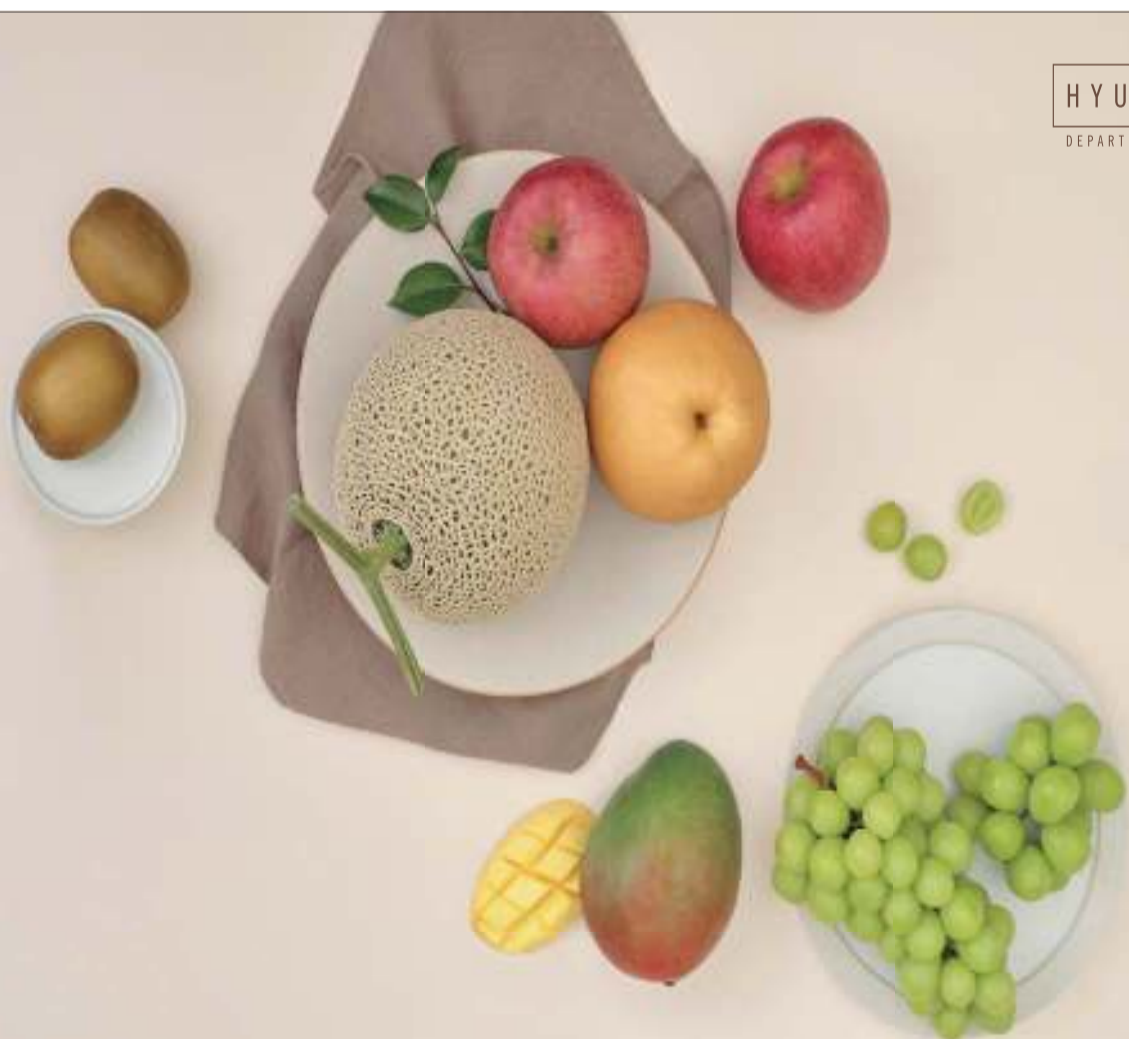
아울러 감시카메라를 장착한 드론(50대), 암행순찰차(21대), 경찰 헬기 등을 활용해 주요 교통법규 위반행위를 집중 단속하고 비접촉 음주감지기를 활용해 고속도로 나들목, 식당가 등에서 상시 음주단속을 시행한다. 세종=곽도훈 기자 soqood@

## 소중한 분께 최고의 선물을 전하실 수 있도록

현대백화점이 기업 고객을 위해 방문 없이도 주문 가능한 선물 상담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상품 맞춤 구성부터 안전한 배송까지 보내시는 분의 품격에 신뢰를 더해 전하겠습니다.

문의전화 080-850-2233 ~ 2234



HYUNDAI DEPARTMENT STORE

# 입법처 “초과 유보소득 배당세, 기준·범위 명확히 해야”

### 특수관계인 지분 80% 기업에 적용... 무분별 도입엔 투자 위축 중소·건설사에 세금폭탄... “지분 줄이기 등 과세 회피 가능성”

정부가 개인 유사법인(가족법인)의 소득세 부담 회피를 방지하고자 초과 유보소득을 배당으로 간주해 과세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대해 취지는 이해하지만 중견·중소기업 위축과 시장 부작용을 피하려면 시행령에서 과세·적용기준을 명확히 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0일 국회입법조사처는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 의뢰로 작성한 ‘유보소득세 영향 관련 조사’ 보고서에서 “철세를 목적으로 법인을 설립한 개인유사법인뿐 아니라 순수하게 영업활동을 하는 대표지분 중심의 중소기업에도 예외사항 없이 적용된다면 후속 사업투자를 하려는 기업 의지가 약화할 가능성이 크다”며 “비상장 중견·중소기업에 무분별하게 제도가 도입돼 기업 위축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도입대상과 적용범위 구분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앞서 기획재정부는 7월 발표한 ‘2020년 세법 개정안’에서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해 특수관계인 지분율이 80% 이상인 기업의 초과 유보소득을 배당으로 간주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당기순이익의 50% 또는 자본금과 이익잉여금·자본잉여금 합계(자기자본)의 10%까지 적정 유보소득으로 본다. 이를 초과하는 소득에 대해 법인세가 아닌 소득세를 물리겠다는 것이다. 과세대

상 유보소득은 2021년도 귀속분부터이며, 상장·비상장 법인 모두 적용대상이다.

이는 가족 등 특수관계인 지분율이 80% 이상이면 일반적인 주주 구성을 갖춘 법인으로 보기 어렵고, 조세 회피 목적이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현재 법인세와 소득세 최고 세율은 각각 25%, 45%다. 사실상 개인사업자여도 법인으로 등록하면 세금을 아낄 수 있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지난달 비상장 중소기업 300곳을 대상으로 벌인 ‘법인의 초과 유보소득 과세에 대한 중소기업의 견조사’에 따르면 최대주주·특수관계인 지분율이 80% 이상인 기업은 49.3%였다.

세법 개정안 발표 이후 중소기업들과 건설업계를 중심으로 ‘세금 폭탄’ 등의 우려가 잇따라 제기됐다. 향후 대규모 연구개발(R&D), 설비투자에 대비해 유보금을 비축했던 정상적인 기업들도 피해를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아직 구체적인 과세기준이나 적용대상은 정해지지 않았다. 정부는 올해 정기국회에서 조세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내년 1월 배당소득으로 간주하는 초과 유보소득의 범위와 적용 예외사유 등을 담은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의 이번 조치는 해외에서도 유사 사례를 찾기 어렵다. 입법처는 “기업에 대한 유보소득 과세는 1990년부터 2001년까지



거리두기 2단계 1주일 연장 정세균 국무총리가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이날 중대본은 브리핑에서 20일 종료 예정이던 비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를 27일까지 1주일 더 연장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시행했던 적정보유소득 과세와 유사한 제도”라며 “사내유보금에 대한 과세 제도는 미국(유보이익세), 일본(동족회사에 대한 유보금 과세), 대만(미분배이익에 대한 과세) 등 소수 국가에만 존재하며, 다른 나라의 ‘적정보유 초과소득세’는 모든 유보금액이 아니라 비상업 성격의 자산소득에

만 적용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가 규정하는 초과 소득에 대한 미배당분을 배당으로 간주해 과세하는 것과 큰 차이가 있다”고 부연했다.

이와 관련해 양 의원은 “현재 마련된 정부안은 미실현이익에 대한 과세이므로 이를 시행할 경우 유사법인에서 지분 줄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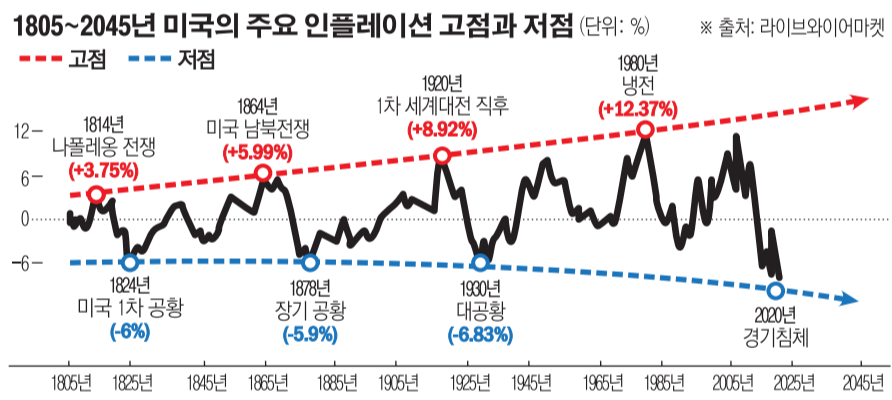
기, 비용 처리 늘리기 등을 통해 유보소득세를 회피하려는 시도를 할 수 있다”며 “향후 시행령을 통해 과세기준과 제외범위를 명확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대기업 유보금에 대해서 내년부터 과세가 강화된다. 투자·상생협력 촉진세 의무환류액이 당기 소득의 65%에서 70%로 5%포인트(P) 오른다. 2018년 도입된 투자·상생협력 촉진세는 의무환류액을 투자, 고용 확대, 상생협력에 쓰지 않으면 의무환류액에서 지출분을 뺀 금액에 20%의 세금을 물리는 제도다. 강제적으로 ‘낙수 효과’를 유도하기 위한 취지다.

김정호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한국은행에서 낸 자료에 따르면 국내 상위 100대 기업의 사내유보금은 2017년 기준 1486조 원으로 집계됐다. 2009년 700조 원에서 매년 약 100조 원씩 증가하고 있다.

단,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최근 발표한 심층평가 보고서에서 투자·상생협력 촉진세제를 폐지하되, 개별 조세특례 제도를 확대해 기업들의 자발적인 투자와 임금 증가, 상생협력을 촉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세종=김지영 기자 jye@



## 철광석값 6년 만에 최고... 구리도 급등 미 대선후보 인프라 공약... 美·中 ‘경기부양 위한 투자 경쟁’

### 원자재 ‘슈퍼 사이클’ 오나 ▶1면서 계속

중국뿐만 아니라 미국도 인프라 집약 투자에 관심을 보인다.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번 대선에서 재선 시 2기 행정부 정책으로 1조 달러(약 1164조 원) 규모의 인프라 투자를 계획하고 있다. 투자 분야는 고속철도와 고속도로, 5세대(5G) 통신망 등 전통적인 기반 시설에 집중될 전망이다. 민주당 대선 후보인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은 4년간 2조 달러 규모의 친환경 인프라 투자를 공약했다. 친환경에너지 확대 등 ‘그린뉴딜’에 좀 더 방점을 찍은 것이긴 하지만 누가 당선되든 인프라 투자에 막대한 자본이 투입된다.

인프라 투자에 의한 경제 성장은 원자재 시장의 호재로 이어진다. 인프라 투자에 가장 크게 영향받는 원자재인 철광석 가격은 14일 t당 130달러대를 돌파하며 6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올해 4분기까지 철광석 가격은 t당 100달러 이상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에너지·원자재 정보 제공업체인 S&P글로벌플래츠가 중국 철강업계 관계자와 주요 글로벌 자원회사 등 28개 업체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54%가 4분기 철광석 가격이 t당 100

~110달러에 머물 것이라고 답했다.

글로벌 경기의 바로미터(적도)로 꼽히는 ‘닥터 코피’ 구리 역시 상승세가 이어질 전망이다. 런던금속거래소(LME)에서 거래되는 3개월물 구리 가격은 코로나19가 한창 확산하던 3월 t당 4626.50달러로 올해 들어 최저점을 기록한 뒤 꾸준히 올라 15일에는 2년 만에 최고치인 t당 6830달러에 근접했다.

올해 4월 코로나19 여파로 마이너스권까지 주저앉았던 WTI는 3개월 동안 빠르게 회복하며 배럴당 40달러 선을 유지하고 있다. 세계 최대 원유 수입국인 중국은 6월에 사상 최고 수준의 원유 수입량을 기록하며 원유 가격 회복을 견인했다. 맥스레이더 시티은행 EMEA 원자재 책임 연구원은 “중국 건설부문의 반등은 전반적인 산업 원자재 시장의 랠리로 이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전문가들은 원자재 가격이 단기 상승으로 끝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앤디 크리칠로 S&P글로벌플래츠 애널리스트는 CNBC와의 인터뷰에서 “다음 단계는 대규모 인프라 투자”라며 “인프라 투자는 전 세계적으로 이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우리는 이것을 2008~2009년 금융위기 때 목격했다”며 “인프라 투자는 산업 원자재 랠리로 이어졌다. 그것은 슈퍼 사이클이다”라고 덧붙였다.

# ‘전환의 시대’

(敎學相長)

## 지구시민과 함께 하는 교학상장

“문화세계의 창조.” 지난 70여 년 이어온 경희의 가치입니다. 인류 문명의 한계에 도전하며 더 나은 미래를 향한 학술과 배움의 지평을 열어왔습니다. 오늘의 인류사회는 거대한 변화의 전환점에서 있습니다. 삶의 기반인 환경과 생태, 기후와 자원, 인류 보건이 크게 흔들리고, 생존과 평화번영의 지반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교육에서 학습으로!’ ‘문화에서 종합으로!’ 경희는 교학상장의 새 지평과 함께 내일을 상상하고, 오늘을 혁신하는 지구시민의 길을 열어갑니다.

### 둠스데이클락 (The Doomsday Clock)

둠스데이클락(지구종말시계)은 기후변화, 핵전쟁 등 위험요인을 분석해 종말까지 남은 시간을 보여주는 시계. 세계원자과학자협회(The Bulletin of Atomic Scientists)가 매년 노벨상 수상자 13명을 포함한 자문위원회와 협의해 발표

**2020년 23시 58분 20초**

2019년 2분 전에서 20초 당겨져, 1947년 시작 후 ‘종말’에 최근접 인류는 여전히 핵전쟁과 기후위기로는 두 가지 위험에 직면 핵 무기 경쟁 재개와 핵 확산을 유발하는 환경 조성 기후위기에 대한 대중 인식은 증가했지만, 각국 정부의 조치 부족

### 경희대학교

KYUNG HEE UNIVERSITY

### 경희사이버대학교

KYUNG HEE CYBER UNIVERSITY

**2021학년도 수시모집**  
접수기간 : 2020.9.24(목) ~ 2020.9.28(월) | 입학정보 : <http://iphak.khu.ac.kr>  
원서접수 : [www.uwayapply.com](http://www.uwayapply.com) | 입학상담 : 1544-2828

---

**2021학년도 학부 학생 모집**  
접수기간 : 2020.12.1(화) ~ | 입학상담 : 02-959-0000 | <http://khcu.ac.kr/ipsi>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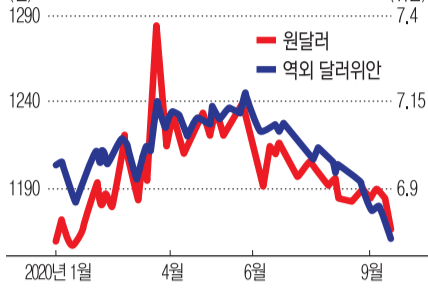
**2021학년도 대학원 학생모집**  
접수기간 : 2020.11.9(월) ~ | 입학상담 : 02-3299-8808 | <http://grand.khcu.ac.kr>

# 위안화 강세에 원·달러 환율 급락... 수출 악영향

환율 1160.30원... 8개월 만에 최저치

중 1분기 경상수지 흑자 영향  
“달러, 美 대선 전까지 약세 전망  
1차 지지선 1150원~1160원”  
코로나 지속되면 상승 가능성

원달러 vs 역외 달러위안 환율



원달러 환율이 이번 주 들어 5일 연속 떨어지며 1160원대 초반까지 내려앉았다. 8개월 만에 최저치다.

시장 전문가들은 그 원인을 중국 위안화 강세에서 찾았다. 중국 경제지표가 양호했던 점이 위안화 강세로 이어졌다는 평이다. 중국은 상대적으로 다른 국가들에 비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일찍 피해를 입었던 만큼 회복 역시 빠르다는 평가다. 여기에 미국 대선을 앞두고 중국 인민은행의 위안화 절상 고시 분위기도 한몫했다고 평했다.

18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일 대비 14.1(1.20%)원 급락한 1160.3원에 마감했다. 이는 1월 20일(1158.1원) 이후 최저치다. 하루 낙폭으로는 3월 27일(-22.2원, -1.8%) 이후 6개월 만에 가장 컸다.

시장에선 당분간 원달러 하락 압력이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정미영 삼성선물 리서치센터장은 “중국은 수출이 늘었는데 수입이 줄면서 2분기 경상수지 흑자가 크

게 증가했다. 이에 달러 공급이 많다 보니 위안화 환율 하락 압력이 꾸준히 있었다”며 “최근 8~9월 데이터가 시장 예상치보다 좋게 나온 부분이 위안화 강세를 밀고 가는 작용을 했다”고 말했다.

정 센터장은 “중국 경제가 좋다는 인식이 강화된 통화에 대한 매수세를 촉발했다”며 “이로 인해 원달러는 박스권이 깨지게 됐고, 국내에선 지급이라도 팔기 위한 물량들이 가세하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예단은 어려우나, 시장에서 1150원 선이 큰 지지선이기 때문에 그 선까지는 지지력을 확인하는 흐름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상재 유진투자증권 연구원은 “미 대선을 앞두고 미국이 중국에 대해 통상압력을 줄 빌미를 막기 위해 중국 인민은행이 강세를 유도할 것”이라며 “1차 지지선은 1150~1160원 선일 것 같다. 다만 위안화

환율이 6.7위안 밑으로 떨어질 경우 원달러 역시 1150선을 하회할 여지도 있다”고 내다봤다.

원달러 하락세가 향후 국내 경제에 미칠 영향에 대해선 금·부정이 나뉘었다. 즉, 수출에는 좋지 않을 수 있다는 지적과 함께 금융 안정 측면에선 나쁘지 않다는 평가다. 다만 코로나19가 내년까지 지속될 경우 원치 않는 환율 상승 가능성도 있다고 내다봤다.

김소영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환율이 떨어지긴 했지만 이전보다 많이 낮은 수준이라 하긴 어렵다”며 “사실 과거 환율이 오르고 외인이 나가면서 외환위기 등을 걱정했었는데 금융시장이 안정된다는 측면에서 괜찮다고 본다”고 말했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환율이 더 떨어질 경우 수출이 감소할 수 있고, 또 수출이 국내 성장률에 미치는 비중이 크기 때문에 성장률 둔화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말했다.

반면, 코로나19가 지속돼 실물경기가 더 침체될 경우 향후 자산 버블과 금융위기로 전이될 수 있어 오히려 원달러 상승을 촉발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김정식 교수는 “코로나19가 내년 혹은 2022년까지 지속될 경우, 실물경기가 더 침체될 것이고 금융부실로 연결되면서 부동산 등 자산 버블이 붕괴되고 자본이 빠져나가는 금융위기가 올 위험이 있다”고 말했다. 고대영 기자 kodaee0@

## 재난지원금, 28~29일 1차 지급 추석 전 받으려면 주말까지 신청

4차 추경 내일 국회통과 전제  
증빙서류 없이 온라인 신청  
위기가구는 11월 이후 지급

일반업종은 선지급·후증빙 방식으로, 추후 소득 감소가 증빙되지 않으면 지원금이 회수된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프리랜서 등 고용보험 미가입 취약계층 중 1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받은 50만 명에 대해선 추석 전 50만 원이 지급된다. 신청 시기에 따라 24일 또는 29일에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신규 신청자에 대해선 추석 이후 접수돼 11월 중 지급될 예정이다.

구직활동을 했으나 취업하지 못한 청년에게 50만 원을 지급하는 청년특별구직지원금은 29일이 지급 예정일이다. 추석 전 지급대상은 저소득 취약계층으로서 구직촉진수당을 받지 못한 청년, 지난해 취업성공패키지에 참여했으나 아직 취업을 못한 청년이다. 취업성공패키지에 참여해 프로그램이 올해 종료됐거나 아직 진행 중인 청년은 추석 이후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휴직이나 폐업 등으로 코로나19 확산 이전보다 소득이 25% 이상 감소한 취약계층에 4인 기준으로 100만 원이 지원되는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금은 11월 이후 지급이 가능하다. 위기가구는 기준중위소득 75% 이하이면서 재산이 대도시 6억 원, 중소도시 3억 5000만 원, 농어촌 3억 원 이하인 가구다. 4인 가구 기준으로 기준중위소득의 75%는 345만 2000원이다. 여기에서 휴직이나 폐업 등으로 코로나19 확산 이전보다 소득이 25% 이상 감소한 경우 지원 대상이다.

소득 감소를 증빙하는 방법 등 구체적인 기준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신청이 10월부터 시작되는 만큼, 복지부는 이달 중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해 발표할 예정이다. 세종=김지영 기자 iye@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피해를 본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망자금·긴급고용안정지원금이 28~29일 1차로 지급된다.

20일 기획재정부와 고용노동부, 중소기업벤처부,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4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이 22일 국회를 통과한다는 전제로 이 같은 지급 일정을 잠정적으로 정했다.

정부는 4차 추경의 국회 통과를 전후해 각종 지원금 대상에 안내문자를 보낼 예정이다. 대상자들은 별도 증빙서류 없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다만 지급 일정이 촉박해 추석 전인 28~29일 지원금을 받으려면 늦어도 돌아오는 주말까지는 신청을 마쳐야 한다.

가장 신속하게 지급 가능한 지원금은 영유아·초등학생 대상으로 한 아동특별돌봄지원금과 소상공인 대상 사회망자금이다.

아동특별돌봄지원금은 지급 대상이 전체 미취학 아동과 초등학생 등 532만 명으로, 기존 아동수당·스쿨뱅킹 정보를 활용하면 돼 이달 중 완전 지급이 가능하다. 사용 편의성을 고려해 아동 1인당 20만 원씩 현금으로 지급된다.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들에게 100만~200만 원씩 지급되는 사회망자금도 대부분 28일 집행될 예정이다. 지급 대상은 코로나19 재확산으로 매출이 감소한 일반중소상공인(100만 원)과 집합금지·제한업종 소상공인(150만 원·200만 원) 전체다. 세종=김지영 기자 iye@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청와대 녹지원에서 열린 '제1회 청년의 날 기념식'에서 방탄소년단(BTS)으로부터 음악적 성과물과 메시지 등을 담은 '2039년 선물'을 받은 후 환한 미소를 짓고 있다. 연합뉴스

## ‘공정’ 37번 언급 文대통령... “채용·병역·교육 비리 근절”

‘청년의 날 기념식’서 청년민심 다독이기... 야 “공허한 얘기”

문재인 대통령의 19일 청년의 날 기념사의 초점은 ‘공정’에 맞춰졌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들의 복무 중 특혜 의혹과 이른바 ‘인국공(인천국제공항공사)’ 사태 등으로 청년층에서 불공정 이슈가 지속되면서 부정적인 2030 여론을 다독이려는 의지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녹지원에서 열린 기념식 연설에서 ‘공정’이라는 단어를 모두 37번 언급했다. ‘불공정’은 10번 거론했다. 이날 행사는 지난달 시행된 청년기본법에 따른 첫 정부 공식 행사로 방탄소년단(BTS)과 피아니스트 임동혁 등 다양한 연령과 직군의 청년들이 참여했다.

이 자리에서 문 대통령은 “우리 사회의 공정에 대해 허심탄회한 이야기를 하고 싶다”며 청년층과의 소통 의지를 부각했다. 문 대통령은 “여전히 불공정하다는 청년들의 분노를 듣는다”며 “끝없이 되풀이되

는 것 같은 불공정의 사례들을 본다”고 밝혀 청년층의 분노에 공감하는 태도도 보였다. 특히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과정에서 불거진 인국공 사태에 대해선 구체적으로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때로는 하나의 공정이 다른 불공정을 초래하기도 했다”며 “정규직과 비정규직 차별 해소가 한편에선 기회를 문 닫는 것처럼 여겨졌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연설에서 무엇보다 공정 사회 구현을 위한 정부의 흔들림 없는 의지를 강조하는 데 주력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공정에 대한 청년들의 높은 요구를 절감하고 있고 반드시 부응하겠다”며 “공정은 촛불혁명의 정신이며 다 이루지 못할 수는 있을지언정, 우리 정부의 흔들리지 않는 목표”라고 강조했다. 그러면 청년층의 반감과 박탈감이 큰 병역·입학 특혜·비리, 부동산값 폭등 문제를 두루 거론하며 공정 이슈에 대한 정면 대응 의지도

나타냈다. 문 대통령은 “청년의 눈높이에서 공정이 새롭게 구축되려면 채용, 교육, 병역, 사회, 문화 전반에서 공정이 체감돼야 한다”면서 채용·병역비리 근절과 부동산 시장 안정 등을 약속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공정을 이루기 위한 방법으로 공정거래법·상법·금융그룹감독법 개정 등 ‘공정경제 3법’을 강조했다. 현재 공정 이슈에 대한 여야 협치 가능성이 커 제계 반발 속에서도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0일 정부 여당이 추진하는 이른바 ‘공정경제 3법(상법·공정거래법·금융그룹감독법)’을 지지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김은혜 국민의힘 대변인은 “공정을 말할 자격이 없다”며 “불공정에 대한 정권의 총력 옹호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37번이 아닌 1000번 공정을 외친들 청년들에게 공허한 메아리로 들릴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꽃들 기자 flowerslee@

## 가구·출판·보일러 대리점 4곳 중 1곳 ‘갑질 피해’

공정위, 내달까지 표준계약서 제정

가구, 도서출판, 보일러 업종의 대리점 10곳 중 3곳은 공급업체의 경영활동 간섭, 판매목표 강제 등의 불공정행위를 경험한 것으로 조사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가구, 도서출판, 보일러 3개 업종을 대상으로 진행한 대리점거래 실태조사 결과를 20일 공표했다.

올해 7월 7~31일 진행된 이번 실태조사는 29개 공급업체와 4258개 대리점(응답 대리점 1379개)을 대상으로 했다.

조사 결과 3개 업종의 대리점 가운데 불공정거래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대리점은 24.7~25.8%로 나타났다.

가구의 경우 판매목표 강제(8.5%), 불이익 제공(7.8%), 구입 강제(6.5%) 등을 경험했다는 응답이 상당수였다. 도서출판은 판매목표 강제(17.1%), 구입 강제(10.7%), 불이익 제공(9.8%) 등의 경험이 높게 나타났다. 보일러의 경우 불공정행위 경험의 대부분이 판매목표 강제(19.5%)였으며, 구입 강제(7.6%) 비율도 상당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가구의 경우 소비자에 대한 오프라인 매장 전시가 중요한 상품으

로 인테리어 관련 경영활동 간섭(시공업체 지정 등)의 불공정행위 발생 우려가 있었다”며 “도서출판은 공급업체가 영업지역을 설정하고 있으며 위반 시 제재를 받는다는 응답이 많아 경영활동 간섭 발생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고 분석했다.

보일러에 대해서는 공급업체의 판매목표를 제시받는 대리점에서 목표 미달성으로 불이익을 받는 불공정행위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설명했다.

3개 업종 대리점 모두 ‘다수·유사 피해 발생 시 피해구제 방안(동의의결 제도) 마련’에 대한 응답(26.3~40.5%)이 가장 많았다. 표준대리점계약서 도입에 대해서는 응답자 42.0%가 필요하다고 답해 불필요 의견(12.8%)보다 많았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애로사항으로 ‘대금납부 지연 및 이자 부담 증가’를 가장 많이 꼽았다. 이는 공정한 위험부담기준의 도입 방안 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공정위는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공급업체 및 대리점 의견 수렴 과정 등을 거쳐 내달까지 표준계약서를 제정·공개할 예정이다. 세종=서병근 기자 sbg1219@

〈정부 추진 전국민 지급사업·총 예산 9300억〉

# 고장·탈선 ‘누더기 열차’... ‘통신비 2만원’ 이면 싹 교체

## 안전 위협 ‘20세기 전동차’

수도권 전철 1호선 전동차의 노후화가 심각한 수준이다. 시민의 안전과 직결된 사안인 만큼, 많은 재원이 필요한 전동차 교체를 운영사에 맡겨둘 게 아니라 정부 역시 예산을 지원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가 전 국민에게 통신비 2만 원을 지급하는 사업에 배정할 예산(약 9300억 원)이면 20년이 넘는 낡은 1호선 전동차 전체를 바꾸고도 남는다.

◇전동차 10대 중 4대는 20년 넘어=20일 이투데이가 서울교통공사와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함께 운영하는 수도권 전철 1호선 전동차의 차량(차량 나이)을 전 조사한 결과, 전체 1160칸 중 514칸(44%)이 20년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용하지 26년이 넘는 전동차도 64칸이 나 있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서울교통공사가 보유한 전동차 160칸 중 77%(124칸)가, 코레일 소유 1000칸 중 39%(390칸)가 20년이 넘었다. 국내에서 20년이 넘는 전동차는 정밀안전진단 대상이 된다. 반면, 차량 4년 미만의 신형 전동차는 90칸에 불과했다.

현재 코레일이 보유한 가장 오래된 1호선 전동차는 1997년 대우중공업(대우조선해양의 전신)과 현대정공(현대모비스의 전신)이 제작한 차량으로, 지난해 도입된 최신 전동차와는 22년의 나이 차가 난다.

구형과 신형 전동차를 모두 이용해본 시민들은 확연한 차이를 실감한다. 석계역에서 1호선을 자주 이용하는 전승환(29) 씨는 “구로형 신형 전동차를 탄 적이

해외, 적정사용기간 정해 차량 관리 국내에선 자체진단 후 ‘무한 운행’을 4월, 낡은 부품 원인 1호선 탈선 시민안전 직결...정부 관리·감독 시급 노후 전동차 교체 예산 우선 마련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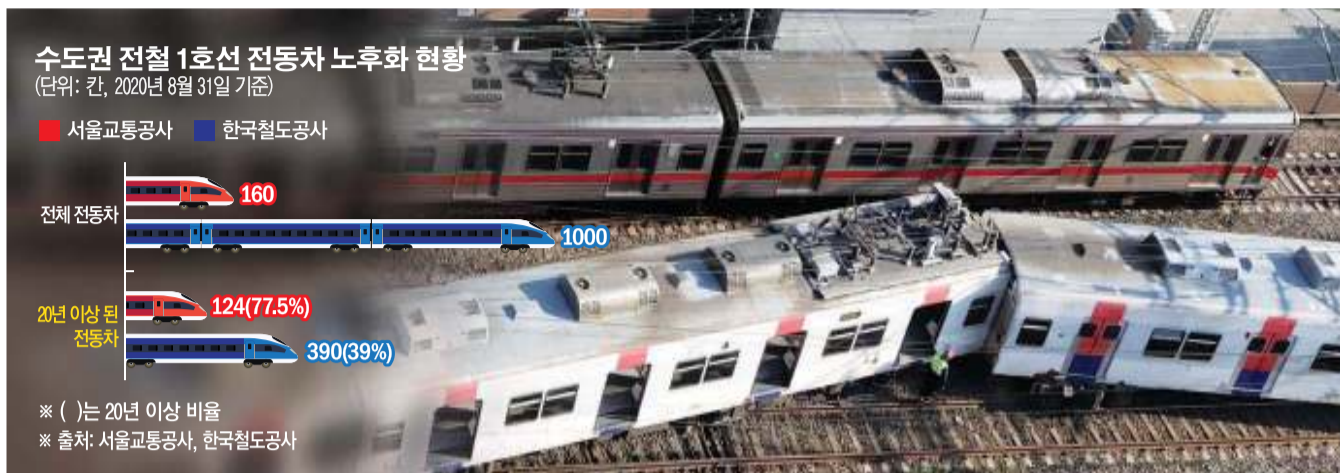
있는데 평소 타던 1호선과 너무 달라 기어에 남는다”며 “전동차 내부의 소음과 덜컹거림이 덜했다. 실내가 어두컴컴하지도 않았고, 전광판은 큼직해 보기 편했다”고 했다.

◇내구연한 폐지 이후 노후화 지속=애초에 법으로 정해진 15~25년의 전동차 내구연한(적정 사용 기간)이 있었지만, 2014년 관련 규정이 사라지며 ‘기대수명’ 개념이 도입됐다. 기대수명은 전동차를 제작할 당시에 기대한 성능을 유지하며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을 뜻한다. 국내의 일반적인 전동차 기대수명은 25년이다.

해외의 경우 국내보다 기대수명을 짧게 정하고, 전동차 주요 부품을 주기에 따라 의무적으로 교체해야 한다는 규정을 뒀다.

철도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철도 운영사의 의견을 수용해 내구연한 규정을 폐지하면서 지금까지 정밀안전진단을 통과하면 전동차를 무기한 사용할 수 있는 구조가 만들어졌다”고 밝혔다.

노후된 전동차는 사고를 유발한다. 올해 4월, 1호선 신길역 부근에서 용산행 급행 전동차가 탈선한 사고가 대표적 사례다. 이 사고는 전동차의 낡은 차축 부품이 끊어지며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해당 전동차는 1996년에 제작된 노후 차량이



올해 4월 서울지하철 1호선 영등포역에서 신길역으로 가던 전동차가 탈선해 멈춰 서 있다.

뉴스1

다. 서울시 교통정책과에 따르면 전동차 운행 장애와 사고의 주요 원인이 차량 부품 장애(32.6%)인 것으로 조사됐다.

◇신형 전동차 도입 나섰지만, 체감 속도 더뎠=서울교통공사와 코레일도 노후 전동차 교체의 필요성을 느끼고 신형 전동차 도입에 나서고 있다. 하지만 선제적 교체를 위해서는 정부가 직접 예산을 지원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양 공사는 올해 각각 1조 원의 적자가 예상될 정도로 재정

상황이 좋지 않다.

전동차 1칸을 제작하는 비용은 14억 원에 달한다. 정부가 추진 중인 전국민 통신비 2만 원 지원 예산(약 9300억 원)으로 는 전동차 664칸을 바꿀 수 있다.

적자에 시달리는 와중에도 코레일은 2024년까지 1조5000억 원을 투자해 노후 전동차 1012칸을 교체할 예정이다. 1호선에는 510칸이 배정돼 올해부터 차례로 신형 전동차가 도입된다. 다만, 노후된 차량

이 워낙 많고 전동차 제작에도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시민이 체감하는 개선 속도는 더딜 것으로 보인다. 신형 전동차 510칸의 도입이 끝나는 2025년에는 현재 차량이 15~19년인 전동차 276칸이 또다시 교체 대상이 되는 점도 문제다.

코레일 관계자는 “노후 전동차는 운영을 최소화하고 있다”며 “재정이 넉넉지 않지만, 안전에 대한 투자만큼은 아끼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유창욱 기자 woogi@

## 전동차의 진화

# 흔들림·소음·먹먹한 귀 ‘아듀~’ 미래엔 ‘청정공기’까지 만든다

현대로템, 분당선 새 열차로 교체 친환경·속도·안전·승차감 등 개선

전동차가 진화하고 있다. 2002년 분당선에 운행됐던 전동차에 탑승객을 위한 안전장치라고는 운전실 CCTV가 전부였다.

지금은 다르다. 현대로템이 분당선에 투입할 신규 전동차는 다양한 안전·편의 장치가 설치돼 있다.

운전실에만 있었던 CCTV는 객실로 확대됐다. 객실 내 CCTV 영상을 관제실로 실시간 송신하는 무선설비가 적용돼 사고 발생 시 관제실 직원이 상황을 확인할 수 있다.

탑승객이 깨끗한 공기를 마실 수 있도록 공기정화 장치도 도입됐다. 이외에도 차량 출입문 바닥에는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 블록이 설치됐다.

객실 내 휠체어와 유모차를 보관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는 등 교통약자를 위한 시설도 있다.

GTX-A 노선을 달리게 될 전동차는 빠른 속도를 자랑한다. GTX-A 노선의 전동차 최고 운행속도는 시속 180km다. 기존 전동차의 최고 속도가 시속 110km임을 고려하면 상당히 빠르다.

일반 지하철보다 속도가 빠른 만큼 GTX-A 노선 전동차에는 KTX 등 고속 열차에 사용되는 두꺼운 단문형 출입문이 설치됐다. 단문형 출입문으로 소음 차단 수준을 고속열차급으로 확보한 것이다.

지하 터널과 승강장 사이에서 차량이 오갈 때 발생하는 압력파와 귀가 먹먹해지는 이명감을 방지하고자 차체 벽면 보강재도



현대로템의 수소전기트램 모형도.

강화했다.

전동차의 변신은 앞으로도 계속될 전망이다. 현대로템은 현대차와 협업하며 수소전기열차(트램 등)를 개발하고 있다.

수소전기열차는 수소를 연료로 사용하는 열차다. 물을 제외한 오염물질을 배출하지 않아 대표적 친환경 차세대 교통수단으로 꼽히고 있다.

현대로템이 개발 중인 수소전기트램은 단 한 번의 충전으로 200km까지 주행할 수 있다. 전동차가 1시간 운행되면 성인 약 107명이 1시간 호흡할 수 있는 청정 공기를 생산한다.

현대로템의 수소전기트램은 예상보다 일찍 공개될 예정이다.

지난달 현대로템과 울산시는 수소전기트램 실증사업 MOU(양해각서)를 체결했다. 협약 체결로 울산시는 현재 계획 중인 울산 도시철도에 수소전기트램이 적용 가능한지 검토한다.

현대로템 관계자는 “수소 사회 구현을 위해 고품질의 안전한 수소전기트램과 수소충전소가 구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영대 기자 yeongdai@

참다한 홍삼.

# 참다한 홍삼 추석맞이

# 15%

최대 할인

:: 이벤트기간 2020.9.11-10.12 ::

**3+1**

다시, 남자  
69,000원

다시, 여자  
89,000원

**5+1**

클래식  
55,000원

마일드스틱  
55,000원

홍삼정스페셜  
79,000원

· 온, 오프라인 동시진행 · n+1은 금액대별 할인과 중복 적용 불가 · 복수구매 할인과 중복 적용 불가

자세한 내용은 참다한홍삼 전국 200개 직/가맹점과 고객센터(1661-0308)에서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 美 지분 60% ‘국적세탁’ 되는 틱톡… 中이 놔둘까



### 오라클 제휴에 월마트까지 가세... ‘미국기업 과반지분’ 조건 충족 트럼프 “안보 100% 될 것” 환영...정치적 부담·중국 측 보복 변수

중국의 인기 동영상 공유 앱 ‘틱톡’의 미국 사업 매각이 새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오라클과 틱톡 간 제휴에 유통공룡 월마트가 돌연 가세해 미국 측 지분을 늘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긍정적인 반응을 끌어내는 데 성공한 것이다. 다만 이는 어디까지나 미국 측의 안으로, 틱톡 모회사인 바이트댄스와 중국 정부 쪽의 대응이 주목된다.

19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이날 오라클과 틱톡은 제휴안에 기본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틱톡의 글로벌 사업을 분리, 새로 설립하는 회사에 오라클에 다 월마트가 가세해 미국 쪽에서 총 20% 지분을 확보한다는 게 골자다.

새로 설립하는 회사 명칭은 ‘틱톡 글로벌’이며, 이 회사는 향후 기업공개(IPO)를 목표로 한다. 오라클과 월마트가 IPO 전 자금 조달에 참여해 양사가 총 20%를 출자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틱톡 글로벌에 대한 출자 비율은 오라클이 12.5%, 월마트는 7.5%이며, 틱톡 모회사 바이트댄스 지분율은 80%가 된다.

또 바이트댄스에는 미국 쪽 투자자가 40%를 출자하고 있기 때문에 틱톡 글로벌 주식의 절반을 직·간접적으로 미국 기업이 갖게 되는 구조다. 아울러 새 회사는 IPO를 통해 미국 투자자의 출자 비율을 늘릴 수 있다. 이렇게 되면 미국 정부가 요구하는 ‘미국 기업의 과반 지분 조건’을 충족한다.

트럼프 대통령이 오라클과 월마트 연합의 틱톡 미국 사업 인수에 쌍수를 들어 환영한 이유다. 트럼프 대통령은 19일 틱톡과 오라클 측의 합의에 대해 “안보는 100%가 될 것”이라며 “나는 이 합의를 개

념적으로 승인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나는 그것이 환상적인 합의가 될 것이라고 본다”며 “만일 그들이 그것을 해낸다면 그건 대단한 일”이라고 치켜세웠다.

틱톡 글로벌은 본사를 미국 텍사스에 둔 전망이다. 여기에서 2만5000명을 고용하며, 텍사스에 본부를 둔 교육 기금에 50억 달러(약 5조 8175억 원)를 기부할 것으로 알려졌다.

틱톡과 오라클의 제휴 합의 발표에 앞서 미국 상무부는 20일로 예정된 미국 내 틱톡 앱 이용금지 조치를 27일로 일주일 연기했다. 미국 정부의 최종 승인은 대미외국인투자위원회(CFIUS)의 최종 심사를 거쳐야 한다.

전날까지만 해도 미국은 중국과의 극한 대립을 예고하면서 미·중 갈등이 다시 첨예해지는 것 아니냐는 불안감을 고조시켰다. 그러나 미국 내 틱톡 이용자가 1억 명 이상에 달하는 상황에서 이를 제한하는 것은 트럼프 자신에게 큰 정치적 부담이 따르는 문제인 데다 중국 측이 자국 기업의 합법적 권익을 확고히 지키고자 보복을 경고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 변화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트럼프 대통령은 11월 대선을 앞두고 중국의 안보 위협을 해소하면서 미국의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 합의를 끌어냈다는 지적을 내세울 수도 있게 됐다.

다만 이번 제휴안이 최종 확정될지 예단하기 어렵다. CFIUS의 최종 심사를 거쳐야 하지만, 무엇보다 중국 정부의 승인이 필요하다. 앞서 중국 정부는 매각 시한에 쫓겨 틱톡을 파스니 차라리 미국 영업을 중단시키겠다고 엄포를 냈다.

변호선 기자 hsbun@



### 퇴임 사흘 만에 ‘아스쿠니’ 달려간 아베

아베 신조(왼쪽) 전 일본 총리가 19일 전범이 합사된 일본 도쿄의 아스쿠니 신사 참배를 위해 경내를 이동하고 있다. 아베 전 총리는 퇴임 사흘 만인 이날 자신의 트위터 계정에 아스쿠니 신사 참배 사진과 함께 “총리 퇴임을 영령에 보고했다”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 그가 공개적으로 아스쿠니 신사 참배에 나선 것은 6년 8개월 만이다. 2013년 아스쿠니 신사 참배 이후 한국과 중국은 물론 미국의 비판까지 받은 아베 전 총리는 공물을 보내는 것으로 참배를 대신해왔다. 이번 신사 참배는 지지기반인 보수층을 겨냥한 정치적 메시지라는 분석이 나온다.

아베 신조(왼쪽) 전 일본 총리가 19일 전범이 합사된 일본 도쿄의 아스쿠니 신사 참배를 위해 경내를 이동하고 있다. 아베 전 총리는 퇴임 사흘 만인 이날 자신의 트위터 계정에 아스쿠니 신사 참배 사진과 함께 “총리 퇴임을 영령에 보고했다”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 그가 공개적으로 아스쿠니 신사 참배에 나선 것은 6년 8개월 만이다. 2013년 아스쿠니 신사 참배 이후 한국과 중국은 물론 미국의 비판까지 받은 아베 전 총리는 공물을 보내는 것으로 참배를 대신해왔다. 이번 신사 참배는 지지기반인 보수층을 겨냥한 정치적 메시지라는 분석이 나온다.

출처 아베 신조 전 일본 총리 트위터@AbeShinzo

## 금지령 풀린 틱톡에... “위챗은요?”

### 틱톡만 이용금지 조치 일주일 연기 미국내 이용자 많은 위챗 불만 고조

미국 정부가 똑같이 미국 내 이용금지를 예고했던 중국 동영상 공유 앱 ‘틱톡’과 무료 메신저 앱 ‘위챗’에 대해 다른 결정을 내리면서 두 앱의 희비가 엇갈렸다. 중국 시장 의존도가 높은 애플과 구글은 위챗에 대한 미국의 추가 결정 여부에 촉각을 세우고 있다.

19일(현지시간) CNN에 따르면 미국 상무부는 전날 ‘틱톡’과 텐센트의 무료 메신저 앱 ‘위챗’에 대한 제재를 20일부터 시작한다고 발표했지만 이날 틱톡 앱에 대해서만 이용금지 조치를 일주일 연기한다고 반복했다. 틱톡의 미국 사업 매각 협상이 긍정적 진전을 보임에 따른 것이다.

다만, 위챗에 대해서 기존 방침을 유지했다. 이에 텐센트는 19일 성명을 통해 “위챗은 해외 각지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앱으로서 법령을 준수하고 있다”며 미국의



왼쪽부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스마트폰에 표시된 틱톡, 위챗 아이콘. 로이터연합뉴스

발표에 유감을 표했다. 아울러 “해결을 위해 미국 정부와 계속 노력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위챗은 중국 인터넷 대기업 텐센트가 운영하는 무료 메신저 앱으로, 전 세계적으로 12억 명 이상이 이용하고 있다.

특히 중국 본토에서 페이스북 메신저 등 해외 앱 이용이 차단된 가운데 중국의 가족, 지인과 위챗을 통해 연락하던 미국 내 중국인 수백만 명은 당혹스럽게 됐다. 위챗은 미국에서 중국인 유학생이나 사업가

등 1900만 명이 이용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인터넷 상에서 불만이 고조되자 미국 정부는 “이미 위챗 앱을 설치한 미국 사용자들은 20일 금지조치가 발효된 후에도 해외 가족, 친구와 연락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새로운 사용자는 더는 위챗을 다운로드 할 수 없으며, 기존 사용자는 소프트웨어 업데이트가 안 된다.

이에 18일 애플 앱스토어와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서는 위챗과 틱톡 다운로드 수가 폭발적으로 늘었다. ‘막히기 전에 다운로드’는 사람이 급격히 몰린 것이다.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틱톡은 미국 애플 앱스토어에서 무료 다운로드 앱 순위 1위에 올랐고,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는 3위 안에 들었다. 위챗도 마찬가지로 애플 앱스토어에서 위챗은 다운로드 순위 100위에 올랐다고 전했다. 통상 1000~1500위를 맴돌았었다.

변호선 기자 hsbun@

## 백악관에 ‘독극물 편지’ 배달

### 우편물서 ‘리신’ 검출... FBI수사

미국 대선을 40여 일 앞두고 일부 주(州)가 18일(현지시간)부터 조기 투표에 돌입한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앞으로 배송된 우편물에서 맹독성 물질 ‘리신’이 검출돼 백악관이 발각 뒤 집혔다.

미국 CNN은 19일(현지시간) 여러 당국자를 인용, 트럼프 대통령 앞으로 배송된 우편물에서 맹독성 물질인 ‘리신’이 검출됐다고 보도했다.

리신은 아주자리(피마자)씨에서 추출되는 자연 발생 맹독 물질로, 약 0.001g 정도의 극소량으로도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할 만큼 치명적이다. 삼키거나 흡입, 주사하면 구역질과 구토, 출혈을 일으키며, 결국 장기 부전을 초래해 36~72시간 이내에 사망한다. 해독제는 없다.

또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에 따르면 리신은 분말이나 미스트 상태, 또는 알약 등 형태의 무기로 제조할 수도 있다. 리신이 검출된 우편물은 지난 주 초 캐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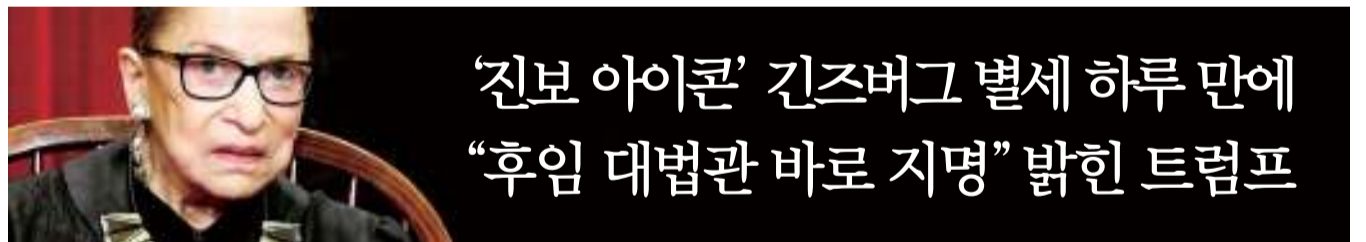
다에서 온 것으로 알려졌으며, 해당 우편물은 백악관에 들어가기 전에 압수됐다. 백악관에 오는 우편물은 별도 시설에서 검사를 받는다. 뉴욕타임스(NYT)는 여러 번의 검사 끝에 리신의 존재가 확인됐다고 전했다.

미국 연방수사국(FBI)은 19일 성명을 내고 “미국 정부의 우편 시설에 배달된 ‘의심스러운 편지’에 대해 FBI와 비밀경호국, 우편검사국이 조사하고 있다”며 “공중 안전에 대해 알려진 위협은 없다”고 밝혔다. FBI는 수사에 돌입, 해당 우편물을 누가, 어디에서 보냈는지를 알아내는 데 주력하고 있다.

백악관에 리신이 보내진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2013년에는 미국 남부 텍사스주에 사는 여성이 당시 대통령이었던 버락 오바마 앞으로 리신이 든 봉투를 보내 징역 18년의 판결을 받았으며, 재작년에는 리신이 추출되는 식물의 씨앗이 국방부와 백악관 등에 배송되는 사건이 있었다.

최혜림 기자 rog@



## ‘진보 아이콘’ 킨즈버그 별세 하루 만에 “후임 대법관 바로 지명” 밝힌 트럼프

미국 대통령 선거를 40여 일 앞두고 갑자기 별세한 고(故) 루스 베이더 킨즈버그(사진) 미국 연방대법관의 후임 인선이 대선 새 쟁점으로 떠올랐다. 낙태와 총기 규제 등 미국 사회를 양분하는 민감한 문제의 사법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대법관 후임 인사에 대해 국민의 관심이 뜨겁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킨즈버그의 후임을 지체 없이 지명하겠다고 밝혔지만, 야당인 민주당은 대선 이후로 미뤄야 한다고 팽팽히 맞서고 있다.

19일(현지시간) CNN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노스캐롤라이나 유세 현장에서 전날 타계한 킨즈버그 대법관의 후임에 대해 “다음 주 지명하겠다. 여성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미국 헌법에는 대통령이 대법관을 지명하도록 되어 있다”고 강조하며 대선 전 의회 승인 절차를 마칠 뜻을 시사했다.

중신직인 대법관은 대통령이 지명하고,

### 野 반대 속 ‘대선 쟁점’으로 부상

상원에서 과반수의 찬성을 얻으면 승인된다. 현재 상원은 공화당이 과반을 차지하고 있어 선거 전 후보 지명이 진행된다면 이탈자가 생기지 않는 한 무난하게 임명할 수 있다. 연방 대법원은 대법관 9명 중 보수 성향 5명과 진보 성향 4명으로 구성, 공화당은 보수 성향 대법관을 6명으로 늘려 확실한 보수 우위의 대법원을 꾸리겠다는 심산이다.

하지만 민주당은 11월에 당선되는 대통령이 킨즈버그의 후임을 선택해야 한다고 반발하고 있다. 조 바이든 민주당 대선 후보는 “킨즈버그의 자리는 선거가 끝날 때까지 비워둬야 한다”며 “유권자들이 대통령을 선택한 뒤 대통령이 상원을 고려해 지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이것은 2016년 공화당 상원이 주장한 것”이라며 “공화당은 그때와 마찬가지로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2016년 2월 보수파인 앤터닌 스캘리아 대법관이 타계해 공석이 됐을 당시 공화당은 곧 퇴임할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대법관을 지명해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진보 성향의 대법관 후보를 지명했지만, 상원을 장악하고 있던 공화당이 후보를 인준하지 않았고 결국 트럼프가 대통령에 취임하고 나서 보수파인 닐 고서치 대법관을 지명했다.

한편 27년간 연방대법관으로 재직했던 킨즈버그는 최장수 임기 중 최장 임기였으며 고령이다. 향년 87세다.

1993년 여성으로서 두 번째로 연방대법관에 오른 킨즈버그는 성 평등과 여성 인권운동에 앞장섰으며, 소수자를 대변하는 진보의 아이콘이었다. 생전 트럼프와 사이가 좋지 않았던 그는 “내 소원은 새 대통령이 취임할 때까지 내가 교체되지 않는 것”이라며 자신이 은퇴한 후 대법원의 우경화를 걱정했다. 최혜림 기자 rog@

# Hi Innovation

It's time to act

## 친환경을 실천하는 잉크 절약

모든 영역에서 친환경을 주도하는 SK이노베이션이  
광고에서도 친환경에 도전합니다

지구의 안녕을 위해

Hi Innovation SK 에너지



친환경 에너지 플랫폼



승차인기량 대비 70%는 70% 절감  
친환경 인턴 배타인



초저량도  
친환경 인턴도인



식물성 더 오일 안전하게 보관하는  
친환경 포장소재



QR코드를 찍어  
SK이노베이션의 더 많은  
친환경 혁신들을 만나세요

이 광고는 자사일반인쇄광고 대비  
잉크를 약 90% 이상 절약하여 폐잉크용기 발생을 억제하고  
잉크 제작시 발생하는 CO<sub>2</sub>를 줄여 친환경을 실천합니다



# “처럼 못한다”... ‘1+1 리더’ 택한 넷플릭스

기업 최고경영자(CEO)는 꼭 한 명이어야 한다? 답은 'No'다.

빠르게 변화하는 현대 비즈니스 환경에서는 CEO 한 사람에 몰린 과도한 역할을 여럿이 나눠야 할 필요가 커지고 있다고 하버드비즈니스리뷰(HBR)가 최근 분석했다.

HBR에 따르면 글로벌 동영상 스트리밍 서비스 업계의 강자인 넷플릭스의 리드 헤이스팅스 CEO는 올여름 최고콘텐츠책임자(CCO) 테드 서랜도스를 공동 CEO로 승진시켰다. 이로써 넷플릭스는 CEO가 둘이 됐다.

이런 공동 CEO 체제는 업계에서는 낯선 그림이다. S&P500지수에 속한 기업 중에서는 극히 일부만 공동 CEO 체제를 채용하고 있고, 심지어 일부 기업은 다시 1인 CEO 체제로 돌아간 경우가 적지 않기 때문이다.

대표적인 사례가 클라우드 컴퓨터 솔루션 업체 세일즈포스다. 올 2월 세일즈포스는 18개월간의 쌍둥이 CEO 체제 실험을 끝내고 마크 베니오프 단독 CEO 체제로 돌아갔다. 소프트웨어 기업 SAP도 올 4월 반년 만에 공동 CEO 모델을 버렸다. 또 다른 소프트웨어 업체 오라클은 작년 12월 공동 CEO였던 마크 허드가 사망한 이후 다시는 공동 CEO 체제로 돌아가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이처럼 공동 CEO 체제가 뿌리내리지 못한 것을 두고, 기업 지배구조 전문가들은 “기본적으로 인간의 본성이 ‘두 개의 머리’를 허락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찰스 엘슨 텔라웨이대학 기업지배구조센터 책임자는 “의사결정권이 궁극적으로 누구에게 있는지 직원들이 혼란스러울 수 있고, 두 CEO 사이에 미묘한 신경전이 불필요한 갈등을 증폭시킬 수 있다”면서 “두 개의 머리가 결코 하나보다 낫지 않다”고 진단했다.

이런 상황에서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 속 인기가 치솟는 넷플릭스가 시대에 역행하는 길을 선택해 의구심을 자아내는 것도 무리는 아니다. 넷플릭스의 공동 CEO 체제도 결국 시한부에 그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그러나 CEO 1인에게 권력이 집중되는 ‘1인 CEO 체제’의 개념은 점차 20세기의 유물이 되어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사회가

## ‘공동 CEO’ 체제

전략-감독-집행... 1인만으론 불가능  
헤이스팅스, 서랜도스와 왕좌 나누며  
사라진 낡은 모델 ‘공동 CEO’ 가동

변한 만큼 시대가 요구하는 리더상도 변하고 있으며, 그 결과 현대사회는 CEO도 짝꿍을 필요로 한다는 것이다.

물론 아마존닷컴의 제프 베이스,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 페이스북의 마크 저커버그는 여전히 기업 피라미드의 꼭대기에서 홀로 고독한 싸움을 하고 있다.

그러나 HBR은 미국심리학회(APA)와 공동으로 진행한 연구에서 “CEO는 보통의 인간이 혼자 감당하기 벅거운 일”이라고 결론냈다. CEO에게도 짝꿍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다. 특히 현대사회에서는 더욱 그렇다고 한다. 비즈니스 환경이 매우 빠르게 변하고 있고, CEO에 대한 요구사항이 셀 수 없이 많아지면서 공동 CEO의 등장을 부추기고 있다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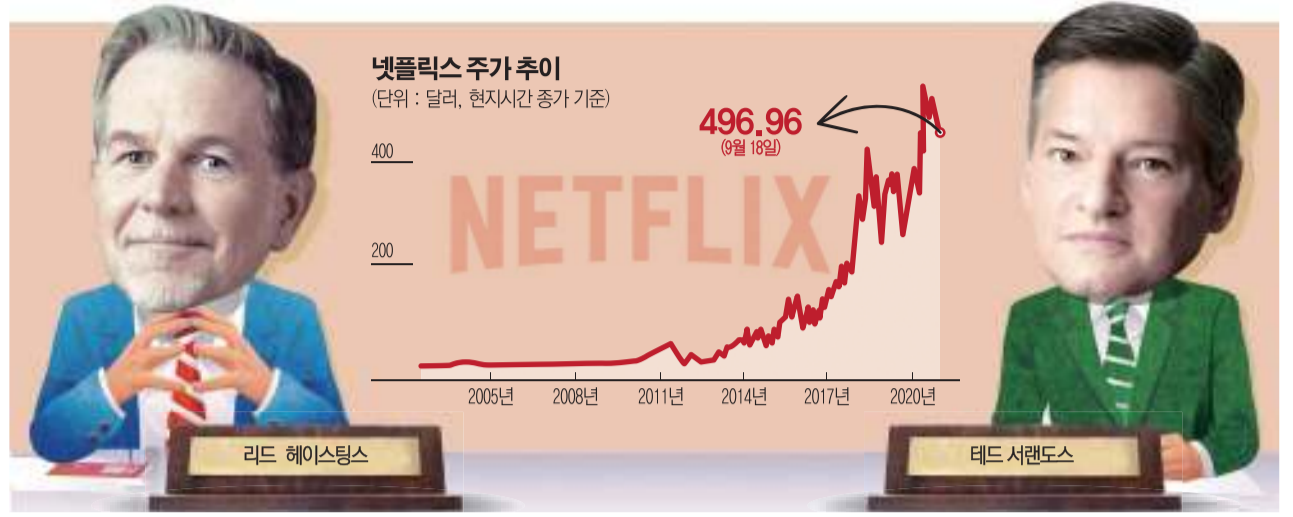
CEO 한 사람이 홀로 조직의 전략을 결정하고, 내부의 다양한 의사결정을 감독하면서 동시에 이해당사자들을 상대로 ‘회사의 간판’ 역할을 하는 게 불가능해 가깝다는 설명이다.

포용으로의 전환은 리더들에게 기술과 역량 확대를 요구한다. 운 좋게 우뇌와 좌뇌가 모두 발달하거나 추진력과 협동심을 모두 갖춘 리더를 만날 수 있지만, 최고의 대안은 이런 점들을 서로 보완해줄 수 있는 두 명의 리더를 갖는 것이다. 서로를 보완해줄 파트너가 있다면 CEO는 완벽한 존재일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공동 CEO 체제는 기업의 골칫거리인 고급 인재 유출 가능성을 낮출 수도 있다는 점에서도 긍정적이다. 2016년 스탠퍼드비즈니스스쿨 보고서에 따르면 고위직 가운데 무려 4분의 3이 CEO에서 밀려난 이후 회사를 떠났다.

물론 두 명의 CEO를 두는 것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거나 기업을 성공으로 이끄는 만병통치약은 아니다. 여느 관계처럼 공동 CEO 체제도 지속적인 진화가 필요하다.

김서영 기자 0jung2@



## ①케미 ②스펙 ③역량 ④권한... 네 가지 맞아야

공동 CEO 체제 생존수칙... 비전 공유·건전한 경쟁 통해 성과 추구

몸통 하나에 두 개의 머리. 공동 최고경영자(CEO) 체제의 성공 조건은 무엇일까.

하버드비즈니스리뷰(HBR)는 그 조건으로 네 가지를 제시했다.

우선, 힘이 맞는 파트너를 골라야 한다. 공동 CEO란, 사실상 업무상의 결혼을 의미한다. 오래 지속되는 인간관계의 기본 속성은 CEO 사이에도 적용된다. 같은 비전을 공유하고 의사소통이 명확해야 한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서로에 대한 깊은 신뢰다. 이런 요소들은 불가피하게 의견 불일치가 발생하더라도 파트너십을 유지할 수 있게 만드는 밑바탕이 된다. 또 공동 CEO는 각자가 상대방의 장점과 능력을 기억하고 그것이 기업의 한 축이라는 인식 위에서 의사결정을 내려야 한다. 파트너에 대한 믿음 없이 순탄한 결혼생활은 불가능하다.

둘째 조건은 기대치를 설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공동 CEO 체제를 못마땅해 하는 사람들은 책임 질 일이 생

기면 결국 아무도 책임지지 않으려 한다. 그러나 제대로 관리만 된다면 결과는 정반대다. 공동 책임은 파트너를 서로의 기대에 부응하는 수준까지 밀어 올리는 구조다. 이는 건강한 경쟁을 만들어낸다. CEO 지망생은 기본적으로 성과가 우수한 개인일 확률이 높는데, 분명한 기대치 설정은 서로를 향상시킬 수 있다. 2011년 파인애플리뷰에 게재된 논문에 따르면 공동 CEO의 상호 모니터링은 이사회 감독을 대체할 만큼 충분한 책임감을 이끌어냈다.

셋째 조건은 역할과 책임을 정의하는 것이다. 조직은 공동 CEO 중 누가 어떤 부분을 책임지고, 누가 의사결정을 하는지 정확하게 이해해야 한다. 이는 다른 한편으로는 각 CEO에게 일부 책임으로부터 해방시켜 주는 것을 의미한다. 그렇게 되면 자신이 전담한 영역에 대해선 더 온전히 시간을 쏟을 수 있다. 이를 바탕으로 자신의 구역에서 더 현명하고 성실한

지위를 구축할 수 있다. 또 각 리더는 파트너가 머리를 싸매고 있는 문제에 대해 신선한 관점을 제공할 수도 있다. 책임 영역의 명확한 선 긋기는 ‘공동 CEO가 병목현상을 가져온다’는 일반적인 의구심도 누그러뜨릴 수 있다.

따지고 보면, 공동 CEO 체제는 한 명이 풍부한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결정을 내릴 권한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빠른 대응을 촉진한다.

마지막 조건은 책임이 아닌 권한만 나누라는 것이다. 공동 CEO는 각자의 의무를 갖고 한 배를 탄 것이라 할 수 있다. 한 명의 성공과 좌절은 함께 짊어져야 하며 장·단기적 보상에 반영돼야 한다. 그들은 한 몸처럼 보상과 처벌을 받을 준비를 해야 하고, 결과도 받아들여야 한다. 환상의 ‘케미’와 상호 신뢰는 건전한 경쟁을 장려한다. 또 공동 CEO 체제는 신인 리더를 양성하는 기회가 될 수도 있다.

김서영 기자 0jung2@

www.douzone.com

DOUZONE

# ERP, 그 이상의 진화 더존 ERP 10

빅데이터 기반 인공지능으로 변화하는 미래를 예측하고, 반복적인 업무는 대신하며, 언제 어디서든 기업의 필요에 따라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하는 단 하나의 ERP-

더존 ERP10과 만나는 순간,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은 한 차원 더 높아질 것입니다

경영관리 효율은 물론, 기업가치의 극대화까지-  
지금, 더존 ERP 10에 주목하십시오!



안정적인 도입부터 차별화된 관리까지, 더존이라면 가능합니다

새로운 비즈니스 패러다임 더존올지타워

누구나 쉽게 사용 가능한 DEWS 개념 플랫폼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중추기관인 DTEC

전문 컨설팅 그룹이 검증 지원하는 FoEX 구축방법

국제 기준 품질관리 안정성 검증 CMMI Level3 인증

# 외국계 보험사 '脫한국' 가속화 지주사 '몸집 키우기' 기회 될까

규모 작지만 일부상품 점유율 높아  
사업 확장 등 인수전 관심 집중

프랑스계 약사(AXA)손해보험이 지분 전량을 매각하기 위한 예비입찰을 진행하는 가운데 매물로 나온 외국계 보험사가 금융지주사의 몸집 불리기 기회로 작용하고 있다. 다만 외국계 보험사가 국내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 않은 탓에 실제 인수 매물로 고려될 가능성이 적다는 지적도 나온다.

20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프랑스 약사(AXA)그룹 자회사인 약사손해보험의 매각 예비입찰에 교보생명만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력 후보로 꼽히던 신한금융지주, 우리금융지주, 카카오페이 등은 참여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예상과는 달리 실제 경쟁은 치열하지 않았다.

2000년 한국자동차보험으로 출발한 약사손보는 2001년 교보생명으로부터 인수되면서 본격 영업을 시작했다. 최대주주는 2007년 교보생명에서 약사(AXA.S.A)로 변경됐다. 최대주주 지분율은 99.71%다.

약사손보는 주력사업인 자동차보험의 손해율이 악화하면서 실적 부진에 시달렸고, 이에 지분 전량에 대한 매각이 시도됐다. 약사손보뿐만 아니라 라이나생명, 메

## 외국계 보험사 국내 시장 철수 현황

2013년	ING생명	2018년 신한금융에 재매각
2016년	알리안츠생명	중국인방보험에 매각
2016년	영국PCA생명	2018년 미래에셋생명에 통합
2020년	푸르덴셜생명	KB금융지주에 매각

트라이프생명, 동양생명, ABL생명, AIA생명 등 다른 외국계 보험사들도 잠재적 매물로 거론되고 있다. 앞서 지난 4월에는 푸르덴셜생명이 2조 원이 넘는 가격에 KB금융그룹에 넘어간 바 있다.

국내 보험시장이 포화 상태에 이르렀고, 저성장·초저금리 기조가 더해지면서 성장의 한계에도 직면했다. 아울러 새 보험회계기준(IFRS17) 도입을 앞두고 대규모 자본확충에 대한 부담도 커질 수밖에 없다. 계속해서 외국계 보험사들에 대한 매각설이 불거지는 이유다.

앞서 2013년 네덜란드계 ING생명, 2016년 독일 알리안츠생명(현 ABL생명), 영국 PCA생명(현 미래에셋생명) 등이 국내시장을 떠났다. 사모펀드인 MBK파트너스 품에 안겼던 ING생명(현 오렌지라이프)은 2018년 신한금융에 재매각됐다.

한편 외국계 보험사 매물이 많아지는 상황은 금융지주사로선 '몸집'을 키울 기회

로 작용하고 있다. 외국계 보험사는 덩치는 작아도 일부 상품의 시장 점유율이 높기 때문이다. 약사손보도 자동차보험 분야에선 장점을 살릴 수 있는 매물로 평가받기도 했다.

특히 경쟁 지주사인 KB금융그룹이 푸르덴셜생명을 인수해 덩치를 키운 영향도 작용하면서 그룹 내 손보사가 없던 신한금융지주나 우리금융지주 등이 매물로 등장한 외국계 보험사 인수전에 참여할 것으로 전망했다. 푸르덴셜생명을 인수한 KB금융은 해당 인수를 계기로 총 자산을 591조 원으로 불러 신한금융과 12 조원 이상의 차이를 벌였다.

하지만 약사손보의 경우 초우량 보험사와 달리 시장에서 상대적으로 실익이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추정된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매물이 많이 거론되면서 초우량 보험사가 아니면 상대적으로 시장의 관심이 떨어질 수 있다"라고 말했다. 객진산 기자 jinsan@

## 손태승 회장 '디지털 혁신' 직접 챙긴다

IT자회사에 별도 집무실 마련  
개발 인력 250명과 함께 근무



디지털 혁신 슬로건인 '디지털 우선, 모든 것의 변화(Digital First, Change Everything)'를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디지털 부문은 인사, 예산, 평가 등 조직 운영체계 전반을 빅테크 수준 이상의 자율성을 갖는 조직으로 바꿔 혁신성과 경쟁력을 확보할 계획이다.

손태승(사진) 우리금융 회장이 디지털혁신을 직접 진두지휘한다. 손 회장은 디지털 부문을 혁신적인 운영체제로 전환해 빅테크와 경쟁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우리금융그룹은 18일 화상회의 방식으로 그룹 경영협의회를 개최했다. 손 회장은 이 자리에서 향후 그룹 디지털 혁신을 직접 총괄 지휘할 것이라고 밝혔다.

손 회장은 자회사 CEO들에게 "디지털 혁신은 그룹의 생존 문제다. 앞으로 금융그룹 회장이자 우리금융의 디지털 브랜드인 윈(WON)뱅크 CEO라는 각오로 디지털 혁신 선봉에 서서 우리 금융을 1등 디지털 금융그룹으로 변모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손 회장은 이 자리에서 그룹의 디지털 혁신을

으로 디지털 부문은 인사, 예산, 평가 등 조직 운영체계 전반을 빅테크 수준 이상의 자율성을 갖는 조직으로 바꿔 혁신성과 경쟁력을 확보할 계획이다.

손 회장은 은행 디지털 인력들이 근무 중인 우리금융남산타워에 IT 자회사인 우리FIS 디지털 개발인력 250명도 함께 근무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손 회장은 디지털 혁신 사업을 직접 챙기기 위해 해당 건물에 제2의 사무실을 마련해 매일 오후 그곳에서 근무하겠다는 계획도 언급했다. 손 회장은 "그룹 전체가 한 몸처럼 협업하여 디지털 혁신 과제들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획기적인 성과도 이끌어야 한다"고 말했다. 나경연 기자 contest@



허인 KB국민은행장, 양중희 KB손해보험 사장, 이동철 KB국민카드 사장, 허정수 KB생명보험 사장, 박정림 KB증권 대표

## '윤종규 3기' 안정이나 변화나 KB금융, 계열사 CEO 선임 착수

은행·손보 등 연말 임기 만료  
일각선 변화보다 안정에 무게

윤종규 KB금융지주 회장이 사실상 3연임에 성공하면서 계열사 최고경영자(CEO) 인사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코로나19로 인한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안정을 택할 가능성이 높은 가운데 세대교체를 통한 변화를 꾀할 가능성도 있다.

20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KB금융지주 차기회장 최중후보로 윤종규 회장이 결정되면서 계열사 CEO 선임 절차도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윤 회장은 17일 오전 출근길 기자들과 만나 계열사 CEO 인사와 관련해 "지금까지처럼 계열사 경쟁력, 그룹 전체 시너지, 후계자 양성 프로그램 등을 종합해 계열사대표이사추천위원회와 협의해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선 큰 변화보다는 안정에 무게를 둘 것이라 관측이다.

가장 큰 관심은 금융지주 2인자격인 KB국민은행이다. 11월 20일 임기가 끝나는 허인 행장 후임을 찾기 위해 KB금융지주는 계열사대표이사후보추천위원회(대추위)를 내달 중순경 개최한다. 주력 계열사 대표들도 연내 임기가 만료된다. 양중희 KB손해보험 사장, 이동철 KB국민카

드 사장, 허정수 KB생명보험 사장은 금융권 통상적인 임기인 '2+1'년을 이미 채운 상태다.

증권업계 최초 여성 CEO인 박정림 KB증권 대표의 임기도 올 연말까지다. 윤 회장이 평소 여성 임원 확대에 대해서 적극적으로었던 만큼 박 대표의 거취도 관심사다. 박 대표는 금융소비자보호 강화를 위해 소비자보호본부를 신설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펼쳤다. 하지만, 금감원에서 라임펀드 관련해 판매사(은행, 증권사) CEO도 징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점이 유일한 변수다. KB증권은 라임에 TRS(총수익스왑) 대출을 해줬다.

윤 회장이 과거 안정을 택했던 만큼 이번에는 변화를 꾀하면서 조직을 정비할 수도 있다는 시각도 있다.

윤 회장은 "업무 간 경계를 넘어 디지털 경쟁이 벌어지고 있다. KB금융은 넘버원 금융플랫폼이 되겠다"며 공격적인 경영계획을 밝혔다. 그동안 안정을 꾀한 윤 회장이 대대적인 인사를 통해 조직을 정비할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되면 허인 국민은행장을 비롯해 2+1년 임기를 채운 CEO들은 연임이 어려워 질 수 있다.

한편, 후계 구도 안정화를 구축하기 위해 금융지주에 부회장직을 신설하는 안이 논의되고 있다. 김병근 기자 nova@

금융투자협회심사필 제 17-04061호(2019.11.15~2020.11.14)  
교보증권 준법감시인 심사필 제 75-158호(2019.11.15~2020.11.14)

# 스 현명한 소비습관 슈퍼그레이트 WIN.K

교보증권 WIN.K 체크카드

**교육비 할인 서비스**

국내전 직권입금 10% 청구 할인  
교보뱅크, 롯데뱅크, 명품뱅크, 만디얼뱅크 및 어학시험 응시료 10% 청구할인

**부가 상품 서비스**

스타벅스, 커리언, 무림플레이스 등  
DL, GS25, 세원플레이스 등 10% 청구할인  
SKT, KT, LG+ 이동통신요금 10% 할인

**주유 할인 서비스**

SK유유스, S-Oil, GS25뱅크  
현대오일뱅크 리타일 100원 할인

**CMA 금융서비스혜택**

RPO에 자동투자해서 수익 제공  
주식거래까지 One Stop 서비스

**연회비 없이 누리는 신용카드급 혜택**

(전월 실적 기준 충족 시, 월 최대 4만 3천원 캐시백)

**위 혜택이 실화인지 지금 바로 신청해보기**

- 1 Win.K 설치 후 비대면카드개설 시작
- 2 본인인증 Win.K 체크카드 신청
- 3 주소 등 정보입력
- 4 신분증 촬영
- 5 제라인출
- 6 신청완료 카드배송시작

당사는 금융투자상품에 관하여 충분한 설명을 의무가 있으며, 투자자는 투자에 앞서 그러한 설명을 충분히 받으시기 바랍니다. 금융투자상품은 예금과 달리 만기 불확실성이 있으며, 운용 결과 원금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그 손실은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비대면을 통한 당사 최초 계좌개설 고객의 경우 MTS 해지 시 0.014%의 주저택에 수수료율이 적용됩니다. 체크카드 관련 상세 내용은 당사 홈페이지 또는 소비자지원센터(1544-0900)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LNG·저유가에 치인 바이오중유...“올 사용량 반토막”

코로나·장마 겹쳐 전력용 수요 폭  
업계, 전용 화력발전소 건립 호소  
선박유 등 사용처 확대 정책 절실

폐 음식물에서 나오는 기름인 '바이오 중유'가 지난해부터 세계 최초로 화력발전소에서 중유(벵커C유)를 대체하는 연료로 사용되기 시작했지만, 최근 사용량이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액화천연가스(LNG) 복합화력발전소의 확대와 국제유가 하락,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등의 영향을 받은 탓이다. 바이오 중유 업계에선 화력 발전소 폐지 대신 바이오 중유 전소발전소를 확대하거나 선박용 등으로 용처를 확대하는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20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발전용

바이오 중유 수요는 최고치를 찍었으나, 다시 감소세로 전환하고 있다. 한국바이오에너지협회 관계자는 "바이오 중유를 사용하던 발전사들이 LNG 복합화력을 시작하며 사용량이 반 토막 났다"고 설명했다.

중부발전 제주발전본부는 작년보다 LNG 복합화력을 가동해 바이오 중유 사용량이 50% 이상 감소했으며, 남부발전의 남제주화력도 올해 상반기 LNG 복합화력을 준공하며 바이오 중유 사용량을 줄이고 있다.

특히 최근 국제유가가 떨어지면서 벵커C유의 가격도 하락했다. 이에 따라 바이오 중유와 혼합해 사용할 수 있는 발전소들이 바이오 중유 대신 값싼 벵커C유를 선택하고 있다.

국내 모든 발전소는 전력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전력 실시간 가격(계통한계가격·

SMP)을 따져서 낮은 가격에 전기를 판매할 수 있는 순서대로 가동된다. 통상 원자력, 석탄, 액화천연가스(LNG), 석유 발전 순이다.

하지만 올해 들어 코로나19로 공장 가동률이 하락하며 산업용 전력 수요가 감소하고 긴 장마로 인한 냉방 수요가 크지 않아 발전부문 전체 소비량이 급감하면서 가동순서상 끝자락에 있는 석유 발전량도 줄어들었다. 작년 상반기 206만 배럴에 달했던 벵커C유 사용량은 올해 상반기 39만 배럴로 80.5% 급감했다.

바이오 중유 업계에선 기존 화력발전소를 폐지하는 대신 바이오 중유 발전소로 전환하는 방안을 정책적으로 고려해달라고 주장한다.

업계 한 관계자는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보급 정책에 있어 바이오 중유는 보급을

확대하려는 정책과 전력수급 기본계획(벵커C유 발전소 폐지) 간의 상충으로 발전사의 경우 바이오 중유만 사용하는 발전소로의 개조 결정이 지연되고, 바이오 중유 생산업계는 중·장기 투자 및 사업계획 수립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이어 "바이오 중유를 기존 중유 대신 사용해 최선은 아니지만, 차선의 친환경 발전 수단으로 석유 발전을 선택하는 것도 가능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아울러 바이오 중유의 용처를 산업용, 선박용 등으로 확대하는 정책적 지원도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연간 약 40만 톤 규모의 벵커C유가 사용되는 것으로 추정되는 산업 현장에서 바이오 중유를 사용하게 되면 황산화물 등 오염물질 배출을 대폭 감소시킬 수 있다는 주장이다.

**바이오중유**  
과자나 라면을 만드는 데 쓰는 팜유, 바이오디젤을 만드는 과정에서 남은 부산물, 음식물에서 배출되는 기름 등으로 만든다. 황산화물을 전혀 배출하지 않고 중유보다 질소산화물 39%, 일산화질소와 분진을 각각 40%, 29% 감축할 수 있다.

또한, 벵커C유에 바이오 중유를 첨가(블렌딩)하는 등의 방식으로 선박용 연료로 사용될 수 있게 하면 선박 연료의 황 함량 규제(3.5%→0.5%)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도 있다는 것이 업계의 입장이다. 국제해사기구(IMO)에서는 2050년까지 선박 온실가스 배출량을 2008년 대비 최소 50%까지 줄일 것을 규정하고 있다.

김유진 기자 eugene@



LG 윈으로 촬영 시 흔들림을 방지해주는 짐벌 기능 사용 모습. 오른쪽은 LG 윈과 제휴를 맺은 아스팔트9 게임. 세컨드 스크린에 맵이 표시된다.

## 돌리는 화면 'LG 윈' 써 보니 유튜브·게임 많이 하면 강력 추천

세컨드스크린으로 카톡 확인  
짐벌 기능, 흔들림 없이 촬영  
"LG, 정말 칼 같았네" 느낌 팍!

LG전자가 야심 차게 내놓은 'LG 윈'은 선입견을 품기에 충분했다. 이미 세계 최초로 내놓은 모듈식 스마트폰(G5)에 대해 '새롭지만, 사용하기 불편하다'라는 경험을 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직접 LG 윈을 써보니 "이번엔 정말 칼을 갈았구나"라는 느낌이 들었다.

먼저 디스플레이가 두 개라는 점에서 두껍거나 무거운 것으로 생각했지만, 생각보다 잘 빠졌다. 일반적인 다른 대화면 스마트폰과 거의 같은 모양새다. 무게도 윈의 활용성을 생각하면 크게 아쉬운 부분은 아니다. LG 윈의 핵심은 화면을 돌리는 '스위블 모드'다. 엄지손가락으로 메인 화면을 쓱 밀자 시계방향으로 부드럽게 돌아갔다.

LG 윈을 사야 할지 고민하고 있다면, 스위블 모드의 사용성이 나에게 꼭 필요한가 보고 판단하면 될 듯하다.

스마트폰으로 동영상 촬영을 많이 한다면 이번 LG 윈의 '짐벌(Gimbal)' 기능은 눈길도 갈만하다. 짐벌은 영상을 촬영할 때 스마트폰이나 카메라를 고정해 자유롭게 들고 다닐 수 있게 해주고, 영상의 흔들림을 방지해주는 장이다.

모터로 작동하는 일반 짐벌과 달리 윈은 초광각 카메라를 활용해 소프트 웨어로 이를 구현한다. 세컨드 스크린의 조이스틱을 조작해 흔들림을 최소

화할 수 있다. 일반 손떨림 보정 기능보다 한 단계 위다.

듀얼레코딩 기능도 흥미롭다. 전면 팝업 카메라가 솟아오르면서 촬영자와 피사체를 동시에 카메라에 담을 수 있다. 각각의 영상을 나눠 저장할 수도 있고, 한 화면에 두 영상을 붙여 저장하는 것도 가능하다. 두 대의 카메라를 이용하지 않아도 피사체와 촬영자의 모습을 모두 촬영할 수 있다.

기자와 같이 동영상 시청이 많은 소비자에게는 강력히 추천할 만하다. 기존 스마트폰에선 영상 시청 중 카톡이나 문자 등을 확인하려 하면 물입감이 저해됐지만, 윈은 세컨드 스크린을 통해 두 가지를 모두 할 수 있다. 메인 스크린으로 유튜브를 보며, 세컨드 스크린으로 댓글을 달 수 있다.

특히 헤비 게이머들도 윈을 반길 만하다. 윈과 제휴를 맺은 '아스팔트9' 게임을 하면, 가로 화면은 게임 조작에 쓰고 보조 화면으로는 맵을 볼 수 있다. 이 밖에 세컨드 스크린을 노트북의 터치패드처럼 이용할 수 있는 기능도 흥미롭다. 또 인터넷 검색 등을 할 때, 세컨드 스크린으로 자판을 입력할 수 있다.

다만 전화통화와 메신저, 웹서핑 정도를 주로 사용하는 일반 소비자라면 윈의 두 가지 스크린이 거추장스러울 수 있다. 하지만 LG전자가 게임, 동영상 업체들과 스위블 모드를 잘 활용할 수 있게 해주는 다양한 제휴에 나선다면, 윈의 충성 고객 혹은 새로운 고객 유입이 더 늘어날 수 있다.

글·사진·송영록 기자 syr@

## 현대차, 협력사 대금 1조1000억 조기 지급

3000개 업체에 20일 앞당겨  
현대자동차그룹이 추석을 앞두고 협력업체에 납품대금을 조기 지급하고 온누리상품권을 구매하는 등 상생 경영에 나선다.

현대차그룹은 20일 협력사 자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납품대금 1조 1087억 원을 추석 연휴 전에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대차·기아차·현대모비스·현대건설·현대제철·현대위아에 부품, 원자재, 소모품 등을 납품하는 3000여 개 협력사가 대상으로, 예정일보다 최대 20일 일찍 지급한다.

협력사들은 명절 전에는 상여금 등 임금과 원부자재 대금 등의 자금 수요가 몰려 어려움을 겪곤 한다. 현대차그룹은 1차 협

력사들도 2, 3차 협력사들에 납품대금을 앞당겨 지급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현대차그룹은 또 전통시장 활성화 등을 위해 온누리상품권 약 127억 원을 구매했다고 말했다. 지난해 설과 추석에도 각각 128억 원, 257억 원 어치를 구매했다.

현대차그룹은 이번 추석에도 1만 4800여 개 우리 농산물을 구매할 수 있는 '임직원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한다. 또, 추석 명절을 맞아 임직원 비대면 봉사 활동도 한다. 16개 계열사 임직원들은 18일부터 29일까지 결연시설과 소외이웃에 온누리상품권과 기부금을 전달하고, 방역물품 제작 재택 봉사, 헌혈 등을 할 예정이다.

김준형 기자 junior@



## 현대 수소트럭 중서 혁신상 기술표준 놓고 본격 한일전

현대자동차의 수소전기트럭이 중국 수소 에너지 박람회에서 기술혁신상을 받았다. 중국 수소차 시장 선점을 위해 충전기술 표준 제정 등을 추진해온 일본차와 본격적인 승부가 시작될 전망이다.

현대차는 중국 상하이에서 개최된 '제5회 국제수소연료전지차 포럼'에서 대형트럭 엑시언트를 기반으로 한 수소전기트럭이 기술혁신 부문 2등을 수상했다고 20일 밝혔다.

기술혁신상은 중국자동차공정학회와 국제수소연료전지협회가 주관해 선정한다. 평가는 중국의 수소에너지 전문가들이 참여한다. 이들은 △수소에너지 부품 △소재 △설비 등에서 기술혁신 정도와 발전 전망 등 6개 항목에 대해 점수를 평가한다.

이번 행사에서 1등부터 참가상까지 모두 중국 업체 및 기관이 휩쓸었다. 외국 업체이자, 또 완성차 모델이 상 받은 것도 현대차가 유일했다.

현대 수소전기차를 양산 중인 메이커는 △현대차 △토요타 △혼다 등 3곳이 전부다.

중국 역시 수소 에너지를 중심으로 산업과 자동차 분야에서 영역을 확대 중이다. 일본 토요타와 혼다는 거대 시장인 중국을 노리며 현지 정부와 수소충전 기술표준 제정 등을 추진해 왔다.

현대차가 자동차를 넘어 선박과 철도, 자가발전 등으로 수소연료전지 영역을 다양화하는 사이, 일본 메이커는 중국에 집중했다. 그러나 현대차 수소전기트럭이 이번 행사에서 기술혁신상을 받으면서 중국에서도 수소전기차 한일전이 본격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현대차가 개발한 엑시언트 수소전기트럭은 190kW 출력의 연료전지 스택을 통해 최대 350kW(약 476마력)의 동력성을 낸다. 수소저장 탱크 7개를 장착해 수소 저장용량이 약 32kg에 달한다. 이를 모두 충전하면 약 400km를 달릴 수 있다.

현대차는 7월 스위스에 엑시언트 수소전기트럭을 처음 수출했다. 연말까지 50대, 2025년까지 총 1600대를 공급할 예정이다. 현대차 관계자는 "중국과 미국에도 수소상용차 진출 계획을 세우고 있다"며 "미국에서는 스위스보다 더 큰 규모의 공급을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김준형 기자 junior@



한화솔루션 '디지털 혁신 비전 공유식' 한화솔루션 케미칼 부문은 17일 유튜브를 통해 이규영(가운데) 대표이사를 비롯한 전 사업장 임직원들이 참여하는 '디지털 혁신 비전 공유식'을 열었다고 20일 밝혔다. 이규영 한화솔루션 케미칼 부문 대표이사는 "지난 1년간 준비해온 디지털 혁신의 정착을 위해서는 임직원 모두의 적극적인 참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지금은 석유화학산업도 디지털 데이터를 기반으로 의사결정을 해야 하며 일하는 방식도 과감히 전환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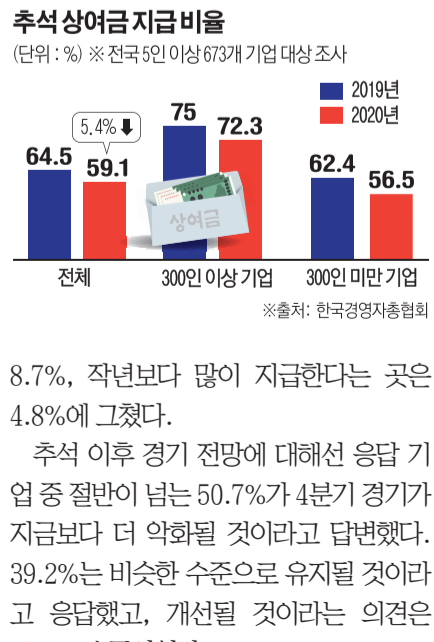
사진제공 한화솔루션

## 추석 상여금 주는 기업 5%P 줄어 59%

기업 절반 "4분기 경기 더 악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경기가 얼어붙으면서, 올해 추석 상여금을 지급하는 기업이 줄어들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가 20일 발표한 2020년 추석 휴무 실태조사 결과에서 근로자 5인 이상 673개 기업 중 추석 상여금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응답한 곳의 비중은 59.1%로 나타났다. 지난해(64.5%)에 비해 5.4%포인트(p) 감소한 수치다. 자금난으로 인해 지급 여력이 떨어진 기업들이 많아진 영향으로 풀이된다.

상여금을 지급하는 기업들 중 86.5%는 작년과 동일한 수준으로 지급한다고 응답했고, 작년보다 적게 지급한다는 곳은





LIFEPLUS 모델 악동뮤지션

# 딱, 30살까지만 들어오세요

보험에도 타이밍이 존재합니다  
 사회초년생이니 보험료 부담 없이,  
 필요한 보장만 골라 설계할 수 있는  
 보험을 만나고 싶다면  
 30세 이전까지만 가입 가능한  
 LIFEPLUS 어른이보험을 놓치지 마세요

30세가 넘으면 들고 싶어도 못 드는 보험  
**LIFEPLUS 어른이보험 무배당**

상담문의 **080.365.6363**

**LIFEPLUS 어른이보험 무배당**  

자세한 상품정보를  
확인해보세요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한도는 본 보험회사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험대상 금융상품의 해지환급금(또는 만기시 보험금이나 사고 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또한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 납부자가 법인이면 보호되지 않습니다. 기존 계약 해지 후 신계약 체결 시 보험인수가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되는 등 보장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세한 상품내용은 반드시 약관 및 상품설명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프로게이머가 만드는 게임, 재미로 승부해야죠”

## 인터뷰

이윤열 나다디지털 대표

e스포츠 전성기를 이끌었던 스타크래프트. 이 게임을 장기간 흥행하게 했던 주역 가운데 하나가 프로게이머였다. 2000년대 초반 수많은 프로게이머 중에서도 ‘천재 테란’으로 불렸던 선수 이윤열. 그는 게임 개발사 ‘나다디지털’을 설립하고 ‘마피아3D’를 출시하는 게임 개발사 대표로 제2의 인생을 시작했다.

이 대표는 올해 4월 대구에 ‘나다디지털’을 설립하고 본격적인 게임 개발에 뛰어들었다. 회사명인 ‘나다디지털’은 프로게이머 시절 ID였던 ‘NADA’에서 따왔다.

이 대표는 프로게이머 시절부터 게임을 만들어보고 싶다는 생각을 해왔다고 밝혔다.

그는 “군대 다녀오고 나서 개인방송을 진행하며 스타크래프트가 아닌 다양한 게임을 접하다 보니 새로운 것을 만들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스타크래프트 유

스타크래프트 ‘천재테란’ 명성 게임 개발사 ‘나다디지털’ 설립 첫 작품 ‘마피아3D’ 출시 앞두고 AR·MMORPG 장르 도전 계속

스맵 중에 ‘랜덤타워디펜스’를 접하고 모바일로 만들어보자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랜덤타워디펜스를 기반으로 한 게임 개발을 두고 여러 개발사 문을 두드렸다. 그중 엔젤게임즈와 손을 잡았고 회사에 들어가 개발자 경력을 쌓았다.

하지만 아쉬운 부분도 있었다. 게임을 직접 개발했지만, 대표이사 아니므로 방향성을 정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결국, 그는 회사를 나와 더 늦기 전에 진짜로 원하는 것을 해보겠다는 각오로 회사를 설립



이윤열 나다디지털 대표는 모두가 재미있는 게임을 만들고 싶다는 포부를 밝혔다.

했다.

창업 초기에는 구성원도 많지 않고 사무실도 제대로 된 곳이 아니라 재택으로 작업하는 경우가 많았다. 심지어 여름에는 사무실 에어컨이 고장이나 열악한 환경에서 개발을 진행하기도 했다.

그는 “점점 나은 개발환경을 겪으며 현

재 직원은 총 14명으로 늘어났고, 그토록 원했던 ‘마피아3D’의 출시를 앞두고 있다”며 “초기 그림과는 많이 바뀌었지만, 결과적으로는 출시를 앞두고 있다는 점 자체가 남다르다”고 소감을 밝혔다.

마피아3D는 가상의 공간에서 정통 마피아 게임을 모바일로 즐길 수 있는 점이 가

장 큰 특징이다. 마피아를 비롯해 경찰, 의사, 시민 등의 직업이 있고 심리전을 통해 마피아를 찾아내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게임은 최소 8명에서 최대 10명까지 참여해 실시간 멀티플레이를 지원한다. 나다디지털 설립과 동시에 개발에 착수했으며 약 5개월 만에 빛을 보게 됐다.

마피아3D는 출시 이후 시즌패스를 도입한다. 이를 통해 안정적인 수익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또 구글과 페이스북 등 SNS를 위주로 한 마케팅 광고도 진행할 계획이다.

그뿐만 아니라 마피아3D 이후의 계획도 준비하고 있다. 현재 AR 게임 프로젝트와 디펜스 게임을 개발 중이며 MMORPG 장르의 게임 인수하는 것을 목표로 작업 중이라고 전했다.

이 대표는 “새로운 분야에 도전하는 만큼 정말 즐겁게 임하고 있고, 즐거우면서도 확실하게 준비해서 치고 나갈 준비를 했다”며 “이 회사의 게임은 다 재미있다는 평가를 받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조성준 기자 tiatio@

## 가상자산 보관만 해도 수익 쌓인다?

가상자산 시장에서 개인 사용자에게 자산을 예치받아 제3자에게 대여하는 중개 서비스가 속속 등장하고 있다. 자산을 보관하는 것만으로 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알려지면서 투자자가 몰리고 있지만, 원금 손실 위험성이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20일 라인 주식회사에 따르면 이 회사가 운영하는 가상자산 거래소 비트프론트에서 코인을 예치하면 이자를 받는 수익 상품을 17일 출시했다.

올해 2월 27일 출범한 비트프론트는 라인 주식회사의 블록체인 사업 자회사인 ‘LVC 주식회사’와 라인 주식회사 산하 ‘LVCUSA’가 운

영하는 미국 가상자산 거래소이다. 라인 주식회사는 일본 내에선 가상자산 거래소 ‘비트맥스(Bitmax)’를 운영 중으로 일본 외 국가를 대상으로 비트프론트를 별도로 설립해 서비스하고 있다. 문자 메신저 애플리케이션 ‘라인’으로 잘 알려져 있는 라인 주식회사는 네이버가 설립한 일본 법인인 비트프론트는 네이버의 손자회사 격인 셈이다.

비트프론트가 출시한 상품은 사용자가 예치한 자산을 블록체인 기반 P2P

대출서비스 플랫폼인 셀시어스 네트워크에서 운영한 후 연 3~12%대 수준의 이자를 되돌려 주는 방식이다. 예치 자산별 이자율은 △비트코인(BTC) 3.46%(주복리 연이율) △이더리움(ETH) 4% △비트코인캐시(BCH) 3.46% △테터(USDT) 7.71% 등이다.

금융 상품이 활성화되지 않은 가상자산 시장에 고객 자산을 이용한 수익 상품이 나오고 있지만, 원금 손실 위험이 없는 상품과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는

### 라인 비트프론트, 코인 예치 이자 수익상품 출시 블록체인 P2P 대출 활용... 빚썸 등 출시 잇따라 “원금 손실 가능성... 투자자들 각별한 주의 필요”

상품이 섞여 있어 투자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비트프론트가 서비스하는 상품은 원금이 보장되지 않는 ‘원금 비보장형’이다. 자산 운영사인 셀시어스 네트워크에서 운영 중 손실이 생겨도 중개자인 비트프론트는 손실을 보존해주지 않는다.

비트프론트 관계자는 “해당 상품은 원금 비보장형 상품으로 원금이 손실될 수 있으며, 그 손실은 투자자에게 귀속된다”며 “셀시어스 측에서 발생한 문제에 대해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을 것”이

라고 설명했다.

국내에서도 가상자산 거래소 빚썸과 한빛코에서 원금 비보장형 예치 상품을 서비스하고 있다. 빚썸에서 올해 4월부터 제공하는 예치 상품은 1개월 단기에 치로 연이율 6~7%대 수준의 수익을 올릴 수 있다. 이달 개설한 5개 상품 모두 모집률 100%를 달성했을 정도로 인기가 높다. 다만 빚썸은 자산 운용사의 악의적 자산 횡령을 막기 위한 조치를 하고 있다고 했다.

빚썸 관계자는 “자산 운용상 손실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없지만, 일정 정도 담보를 설정하는 방식으로 위험을 낮추고 있다”고 강조했다.

원금이 보장되지 않는 예치 상품과는 방식이 다른 ‘스테이킹(Staking)’ 서비스도 가상자산 투자자들에게 인기가 있다. 스테이킹은 자산을 담보로 해당 네트워크 운영에 참여하는 것으로 원금이 손실될 위험은 극히 적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의도적으로 악의적인 행동을 하지 않는 한 원금을 잃을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제3자인 자산운용사가 관리하는 예치 서비스와는 달리, 운영상 발생하는 각종 문제에 대해 가상자산 거래소가 책임을 져야 한다. 김우람 기자 hura@

이다원 기자 leedw@

## “글로벌 감염병 공동 대응체계 구축”

### 구현모 ‘브로드밴드 위원회’서 제안 (KT 대표)

#### 신임위원으로 정기회의 참석

구현모(사진) KT 대표가 올해 10주년을 맞은 ‘브로드밴드 위원회’ 정기회의에서 ICT 기반 글로벌 감염병 공동 대응체계 구축을 제안했다.

KT는 구 대표가 지난 18일 브로드밴드 위원회 신임 위원으로서 정기회의에 참석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정기회의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화상으로 진행됐다.

브로드밴드 위원회는 디지털 발전과 초고속인터넷(브로드밴드) 보급을 목표로 국제전기통신연합(ITU)과 유네스코(UNESCO)가 주도하는 국제 통신 위원회다. 전 세계 초고속 인터넷 인프라 확산과 디지털 개발을 지원하는 글로벌 협의체로서 각국 정상과 정부 관료, 국제기구 관계자와 페이스북, 마이크로소프트, 노키아, 에릭슨, 노바티스 재단 등 글로벌기업 임원진이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선 유일하게 구현모 KT 대표가 참여 중이다. 구 대표는 지난 5월 브로드밴드위원회 위원에 2년 임기로 선임됐다.

이번 회의에서 구 대표는 신임 위원으로서 각오를 밝히고 위원회 결성 10주년을 축하했다. 또 코로나19 상황에서 네트워크의 커버리지와 ICT 활용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한국에서 감염병 극복을 위해 ICT가 맡은 역할에 관해서도 설명했다.



구 대표는 “ICT를 활용해 감염원을 빠르게 확인하고 차단하는 조치가 필요하다”며 “감염병은 이제 단일 국가의 이슈가 아닌 전 세계적인 이슈로, 전

세계적인 감염병 공동 대응체계 구축을 위해 브로드밴드 위원회 내 ‘감염병 관리 워킹 그룹’을 신설하자”고 제안했다.

또한, 구 대표는 “ICT를 활용해 감염원을 빠르게 확인하고 차단하는 조치가 필요하다”며 코로나19 대응에 중점을 두고 ICT를 활용한 각 국가의 대응 사례 분석을 진행하며, 이 결과를 토대로 글로벌 감염병 공동대응 체계의 구체적 방향성을 제시하기로 했다.

회의에선 이 외에도 코로나19 위기상황에서의 디지털 네트워크와 서비스의 역할, 디지털 사회로의 변화에 따른 브로드밴드위원회의 새로운 목표 설정에 대해 위원들이 추가로 논의하기도 했다.

구 대표는 “이번 회의에서 제안한 워킹 그룹 신설을 통해 ICT 기반 감염병 확산방지 글로벌 프로젝트에 국제사회의 동참을 이끌어 낼 것”이라며 “전 세계 이해관계자들과의 협업을 추진해 유엔 지속가능개발 목표 달성에도 이바지하겠다”고 말했다.

이다원 기자 leedw@

## SKT, 200개국 로밍 고객에 ‘현지 재난정보 알림’

### 한국어 문자로 무료 발송

SK텔레콤(SKTEL) 로밍 고객이라면 체류 국가의 재난 정보가 담긴 문자를 무료로 받을 수 있게 됐다.

SKTEL은 기상청과 함께 200여 개국 방문 고객에 현지 재난 정보를 제공하는 ‘긴급 재난 문자 알림 서비스’를 개시했다고 20일 밝혔다.

SKTEL은 사자 로밍 고객을 대상으로 시차와 관계 없이 체류 국가의 재난정보를 SMS 문자를 통해 무료로 제공하기로 했다. 지난 5월 일본, 대만을 시작으로 긴급 재

난 문자 알림 서비스를 시작한 데 이어 이날부터 미국, 스위스 등 200여 개국으로 확대하는 것이다.

회사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로 출국 수는 크게 감소했지만 해외 출장을 가거나 장기 체류를 할 수밖에 없는 고객을 위해 해당 서비스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방문국에 재난 발생 시 빠르게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다.

고객은 현지에 도착해서 휴대폰 전원을 켜기만 하면 로밍 요금제 사용유무와 상관 없이 재난정보를 받을 수 있다.

긴급 재난 문자의 재난 종류는 지진, 화

산, 지진해일 등이다. 지진 발생 시 문자 발송 대상 지역은 미국, 일본 등 200개국이며 화산·지진해일의 경우는 동아시아권에 해당한다. 재난이 발생하면 재난 종류와 발생 시간, 재난 발생지의 위치 정보 등이 한국어로 발송된다. 또한 문자에는 외교부 영사콜센터 긴급 연락처도 포함된다.

SKTEL은 새벽, 야간, 주말 등 상관없이 재난이 발생하면 관련 정보를 국어로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어 고객의 안전을 더욱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다원 기자 leedw@

## 중기부, 업무추진비 제로페이로 결제

### 중앙정부 첫 도입... 타 부처·공공기관 등 확대 계획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가 중앙 정부 최초로 관서운영경비를 소상공인 간편결제(제로페이)로 집행한다.

20일 중기부는 이달 23일부터 업무추진비 등 관서운영경비를 제로페이로 집행한다고 밝혔다. 중기부에 시범 도입한 뒤 개선사항 등을 보완해 타 부처와 지자체, 공공기관 등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향후 업무추진비뿐 아니라 특근매식비, 일반수용비 등 다른 관서운영경비까지 집행 영역도

넓힐 방침이다. 이번에도 도입되는 소상공인 간편결제는 공무원이 간편결제 애플리케이션(앱)을 활용해 결제하면 국고 계좌에서 소상공인 점포로 입금되는 직불 결제 방식으로 0%대 결제수수료가 적용된다.

소상공인 간편결제는 2018년 12월에도 도입돼 코로나19 확산 등 영향으로 1년 9개월 만에 가맹점 63만 개, 결제 7636억 원을 기록하며 급성장하고 있다.

이지민 기자 aaaa346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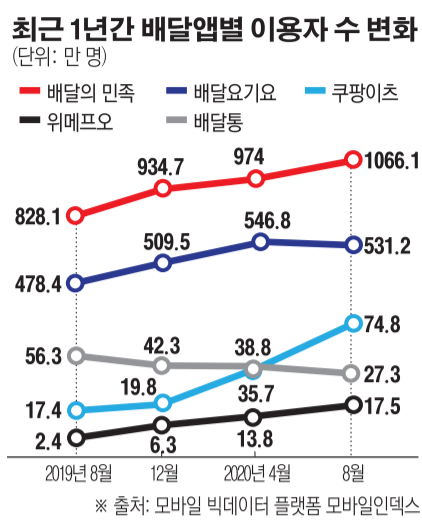
# 야식 주문 20분 만에 ‘딩동~’ 불붙은 배달앱 경쟁

#금요일 오후 10시. A씨는 쿠팡이츠를 통해 야식을 주문했다. 주문을 마치자 애플리케이션에는 배달까지 남은 시간이 ‘23분’이라고 표기됐다. A씨는 ‘이렇게 빨리...주문 많을 것 같은 날인데 좀 늦겠지’라고 생각하며 샤워를 시작했다. 그러나 예고했던 23분이 흐르자 정확히 현관 벨이 울렸다. 허겁지겁 나가보니 비대면 배송을 통해 문 앞에 음식이 도착해 있었다.

**주요 5개 앱 지난달 1717만명 이용... 작년보다 24% ↑**  
**쿠팡이츠, 이용자 329% 급증... 배달통 밀어내고 3위로**  
**위메프 “중개수수료 0%” 선언 후발주자들 추격 고삐**

1716만9509명. 지난달 주요 배달 5개 앱(배달의민족·배달요기요·쿠팡이츠·위메프·배달통)의 월간 순 이용자 수다. 이는 1년 전(1382만5951명)과 비교하면 24.1% 증가한 수치다. 언택트 문화 확산은 배달 앱 시장 급성장으로 이어졌다. 20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쿠팡과 위메프의 가세로 배달 앱 시장의 지각변동이 예상된다. 후발주자가 추격의 고삐를 죄며 기존 배달 앱의 지위를 위협하는 형국이다. 아직 배달의민족·요기요·배달통까지 3개 앱을

운영하며 시장 점유율 90% 이상을 기록하고 있는 딜리버리히어로의 독주 체제가 견고하지만, 월간 이용자수 기준으로 쿠팡이츠가 배달통을 밀어내고 3위에 오르며 “변화는 이미 시작됐다”는 분석마저 나온다. 대규모 배송 역량을 보유하고 있는 이커머스 1위 기업 쿠팡이 지난해 선보인 쿠팡이츠는 배달앱 시장 후발주자의 대장격이다. 쿠팡이츠는 기존 쿠팡이 보유한 AI 기술과 물류 관련 노하우를 접목해 고객의 주문을 최적의 기사에게 1:1로 자동 배치하



는 시스템을 구축한 점이 특징이다. 이를 통해 기사 1명이 '1명'은 주문 건수 1건만 처리하기에 빠른 배달이 가능하다. 타 배달앱의 경우 한 명의 기사가 복수의 주문을 처리한다. 또한 쿠팡이츠는 빠르고 만족도가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가맹점을 대상으로 '치타배달' 배지를 제공한다. 빠르고 정확한 배송을 통한 쿠팡이츠의 성장세는 눈부시다. 20일 모바일 빅데이

터 플랫폼 모바일인덱스에 따르면 국내 안드로이드 OS 기준 지난달 쿠팡이츠 이용자는 74만8322명을 기록했다. 이는 배달의민족(1066만539명)이나 요기요(531만2477명)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지만, 성장세만큼은 이들을 압도한다. 코로나19로 인한 배달 수요 폭증 속에 전년 동기 대비 배달의민족과 요기요 이용자 수는 각각 28%, 11% 늘었다. 같은 기간 쿠팡이츠 이용자 수는 329% 폭증했다. 위메프가 지난해 선보인 위메프도 공격적인 마케팅으로 영역을 넓히고 있다. 위메프의 배달·픽업 서비스 위메프오는 18일부터 '공정배달 중개수수료 0%' 프로그램을 선보인다고 17일 밝혔다. 이 프로그램은 위메프에 입점한 자영업 점주가 서버 비용(주 8800원, VAT 10% 포함)만 부담하면 중개수수료를 전혀 받지 않는다. 민간 배달앱 중개 수수료가 10%대 수준임을 고려하면 파격 정책으로 평가된다. 별도의 광고비 등 추가 비용도 없다. 또 외부 결제수수료를 제외한 주차별 정산 금

액(매출)이 3만 원 이하면 서버 비용도 부과하지 않는다. 현재 위메프오는 결제금액의 5%를 중개수수료로 부과하는 '중개수수료 5%'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앞으로 위메프오 입점 점주는 언제든 주 8800원(월 3만5000원 상당)의 서버비만 부담하면 추가 비용 부담 없는 '중개수수료 0%'와 기존 별도 비용 없이 결제금액에 따른 수수료만 부담하는 '중개수수료 5%' 가운데 유리한 상품을 선택할 수 있다. 업계에선 위메프오가 배달통을 곧 뛰어넘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지난달 위메프오 이용자 수는 17만5414명을 기록하며 배달통(27만2757명)과의 격차를 10만 명 이내로 좁혔다. 그러나 이같은 빠른 배달의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외식업계 관계자는 "빠른 배달 경쟁은 라이더들의 안전 사고를 부를 수 있다"며 "과거 30분 내 배달 서비스 경쟁이 한창이던 당시 배달 사원들의 사망사고가 잇달았던 과거를 기억해야 한다"고 말했다. 안경우 기자 noglasses@

## 미즈 대용량·육포 팬티... 상상 속 제품 판매하니 '대박'

### 식품업계, SNS 가상 마케팅

식품업계가 가상 마케팅을 주목하고 있다. 가상 마케팅은 실물 출시를 전제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굿즈·제품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아이디어를 가상 이미지로 옮겨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계정 등에서 미리 공개한 후 소비자의 반응을 살피는 것이다.



특히 장수 브랜드가 많은 식품업계는 낯은 이미지를 탈피하고, 실제 제조에 대한 부담 없이 소비자 반응을 미리 살펴볼 수 있어 가상 마케팅 선호도가 높다.

20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오리온이 내놓은 '미즈 대용량 팩'이 완판되는 등 가상마케팅을 실제 제품화해 성공한 사례가 늘고 있다.

오리온은 1020세대들 사이에 '미즈'를 우유나 요거트에 넣어 시리얼처럼 즐기는 레시피가 유행하는 점에 착안해 지난 5월 '미즈 시리얼'이라는 가상 제품을 공식 인스타그램과 페이스북에 소개했다. 가상 제품이 등장하자마자 소비자들의 출시 요청이 줄을 이었고 오

리온은 기존 미즈의 용량을 8배 이상 확대한 미즈대용량팩(사진)을 선보이며 흥행에 성공했다. 오리온 관계자는 "가상 콘텐츠가 실제로 제품화된 사례가 일반적인 루트는 아니다"라며 "장수 브랜드들이 MZ세대와 부담 없이 소통하는 방법으로 유머코드를 적용한 가상 콘텐츠 활용을 선호하는 것 같다"라고 전했다. 샘표의 육포 브랜드 '질러'에서 나온 '육포 팬티'도 가상에서 출발해 실물로 나온 경우다. 샘표는 4월 1일 만우절에 맞춰 재미를 위해 '질러' 공식 인스타그램에 가상으로 만든 육포 팬티 이미지를 올렸다. 샘표는 '실물로 내달라'는

소비자 반응에 힘입어 6월 속옷 브랜드 BYC와 손잡고 팬티 1장과 육포 1개를 묶어 한정판 패키지로 출시했다.

동아오츠카는 가상 콘텐츠를 전담하는 가상 굿즈 인스타그램 '동아굿즈'를 운영한다. 동아굿즈는 그동안 포카리스웨트, 데미소다, 데자와 등 동아오츠카의 가상 굿즈들을 선보여왔다. 이달 초에는 가상 굿즈를 보고 실물로 출시해달라는 소비자들의 요청에 따라 최초로 '데미소다 마스킹테이프'를 제품화했다.

앞서 동아오츠카는 GS25와 협력해 오랜시 추억의 양은도시락을 선보인 바 있다. 7월 자사 공식 인스타그램에 게시한 가상 이미지에 1000여 개의 '좋아요'를 얻어낸 결과다.

동아오츠카 관계자는 "처음에는 재미로 시작했지만 가상 굿즈에 MZ세대가 호응해주고 있어 동아오츠카도 이런 흐름에 계속해서 주목 중"이라면서 "식품업계에 주로 장수 브랜드들이 많아 자칫 울드해 보일 수 있는데, 가상 굿즈를 통해 젊은 층들과 소통하고 있다"라고 전했다. 김혜지 기자 heyji@



**현대백화점 '프리미엄 대하 세트'** 현대백화점은 올 추석 선물세트로 압구정동점 등 경인 지역 10개 점포에서 국내산 '프리미엄 대하 세트'를 출시한다고 20일 밝혔다. '프리미엄 대하 세트'는 서해안에서 어획된 대하 1.6kg(18~24마리)으로 구성됐다. 가격은 30만 원이며, 200세트 한정 판매한다. 사진제공 현대백화점

### <기업 PR>

## 24시간 문 여는 홈카페... 맥심 카누 새 TV광고

따뜻한 커피 한잔이 생각나는 계절이 돌아온 가운데 코로나19의 여파로 언택트(비대면) 소비가 일상화되면서 집에서 커피 한 잔의 여유를 즐기는 '홈카페' 트렌드가 가속화하고 있다.



담아낸 것이 특징이다. △100% 콜롬비아 원두를 다크 로스팅으로 볶아 진한 초콜릿 맛과 스모키한 향을 즐길 수 있는 카누 다크로스트 △콜롬비아 코페탈라 코스타리카 원두를 미디엄로스팅해 산뜻한 과일향과 달콤한 와인 향미를

동서식품은 이같은 트렌드에 맞춰 '세상에서 가장 작은 카페'라는 맥심 카누의 브랜드 콘셉트를 살린 새 TV 광고를 선보였다고 20일 밝혔다.

맥심 카누의 광고모델인 배우 공유는 세상에서 가장 작은 카페의 바리스타로 분했다. '이 카페는 24시간 오픈, 언제 와도 신선한 원두의 향긋함이 가득'이라는 공유의 내레이션으로 맥심 카누가 언제 어디서나 원두 고유의 풍미를 그대로 느낄 수 있는 커피임을 드러냈다.

동서식품에 따르면 맥심 카누는 2000년대 이후 젊은 세대들 사이에서 원두커피가 인기를 얻은 점에서 착안해 출시됐다. 카누는 갓 볶은 듯한 원두커피의 풍부한 맛을 구현하기 위해 콜롬비아, 과테말라, 코스타리카 등 고품질의 원두를 로스팅하고 블렌딩해 제품별로 각기 다른 풍미와 향을

즐길 수 있는 카누 마일드 로스트 △자일 로스슈거를 사용한 카누 스위트 아메리카노 2종 등으로 구성됐다.

동서식품은 매년 100건 이상의 시장조사와 소비자 분석을 진행하면서 제품 개발도 병행 중이다. 이에 따라 △카누 라떼 △카누 디카페인 △카누 미니 △카누 시그니처 등 소비자들의 니즈에 맞는 다양한 제품과 △카누 스프링 블렌드 △카누 아이스 블렌드 △카누 윈터 블렌드 등 시즌 한정판 제품을 지속적으로 출시했다.

동서식품 옥지성 마케팅 매니저는 "맥심 카누는 많은 소비자들이 합리적인 가격으로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고품질의 커피를 즐길 수 있도록 동서식품의 커피 기술을 집약해 만든 인스턴트 원두커피"라고 전했다.

## 갤러리아백화점, 25일부터 가을 정기세일

### '농가동행 가을'로 착한 소비 행사

갤러리아백화점이 오는 25일부터 내달 11일까지 가을 정기세일을 연다.

행사 기간 중 갤러리아 전 지점에서는 각 70여개의 브랜드가 최대 50% 세일을 실시하고 상품별 다양한 할인 혜택과 함께 갤러리아 앱 참여 이벤트, 사은품 제공 등 풍성한 행사를 선보인다.

이전 행사의 일환으로 갤러리아는 지난 여름 세일에 이어 지역 농산품을 활용한 '농가동행 가을'을 진행한다.

'농가동행' 행사는 코로나19로 판매 부진을 겪고 있는 농가의 상품을 대량 매입하여 판로를 마련, 이를 고객들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선보이는 '착한 소비' 행

사다. 특히, 갤러리아 앱(App)을 통해 선착순으로 사용 가능한 특가 쿠폰을 받으면 시즌 대표 농산물을 보다 할인된 가격에 구매할 수 있다. 이번 가을 세일에는 지난 여름 행사 대비 3.9톤 증가한 약 7.9톤 가량의 제철 농산물을 매입했다. 해당 물량은 25일과 내달 9일 두 번에 걸쳐 열린다.

세일 기간 중 고객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다채로운 이벤트와 새로운 명품 브랜드도 선보인다.

'갤러리아 앱 이용 방법'이라는 테마로 전자영수증 받기 설정, 푸쉬 알림 허용 등 7가지 미션을 모두 완수한 고객에게 추첨에 따라 G개시를 경품으로 제공한다.

또한 세일 마지막 주말인 10월 9일부터 11일 동안 △환경보호 △생명존중 △안전문화 등 3대 영역의 가치를 실천하는 '라잇! 갤러리아' 사회공헌 캠페인의 일환으로 구매고객 대상 리유저널 장바구니를 증정하는 프로모션을 진행한다.

한편, 압구정동에 위치한 명품관에서 내달 5일까지 이탈리아 럭셔리 하우스 브랜드 '발렌티노'의 'V-시그니처(V-signature)' 팝업 전시를 열고 갤러리아 광고에서는 23일 프랑스 명품 브랜드 생로랑과 하이엔드 럭셔리 브랜드 디올이 새롭게 오픈한다. 또 내달 18일까지 프랑스 럭셔리 브랜드 '교야드' 팝업 스토어가 열린다.

유현희 기자 yhh1209@

# “한국 증시 랠리 국면... 내년까지 상승세 이어갈 것”

블룸버그, IB·경제연구 전망 집계 경기 살아나면 코스피 수익률↑ 현재 10차 순환기 회복 진행 중 증시 기초체력 좋아 투자 긍정적

한국 경제가 살아나는 시기에 코스피 수익률이 다른 자산을 압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블룸버그가 24개 국내의 투자은행(IB)과 경제연구소의 전망치를 집계한 결과 한국의 3분기 국내총생산(GDP) 기준 성장률은 작년 동기 대비 평균 -1.5%로 예상됐다. 주요 20개국(G20) 가운데 성장률이 전 분기 대비로 전망된 미국, 일본, 캐나다를 빼고 보면 16개국 중 중국(5.2%)에 이어 두 번째로 양호한 수준이다.

또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올해 국내 성장률을 기준 -0.8%에서 -1.0%로 낮췄지만, 내년 성장률 전망치는 3.1%로 유지했다.

박옥희 IBK투자증권 연구원은 “한국 경기 국면은 1990년부터 2017년까지 총 9번의 경기 순환을 겪었고 현재는 10차 순환기의 회복 국면이 진행 중”이라고 분석했다.

경험상 경기 회복은 증시 상승 동력이다. IBK투자증권이 블룸버그가 제공한 수치를 분석한 결과, 한국 경제가 회복국면과 확장국면을 거친 시기에 ‘국내주식(코스피)’이 국내채권이나 해외주식, 해외채권, 원자재 등의 수익률을 웃돌았다.

1990년 이후 한국의 회복국면(실질성장률이 상승하지만, 잠재성장률보다는 아직 낮은 시기)에는 국내주식 수익률이 가장 높았다. 2차(107.8%), 3차(44.6%), 4차(16.2%), 5차(26.4%), 8차(8.3%), 9차(6.6%) 순환기 회복 국면에 국내주식이 모두 수익률 1위를 차지했고, 1차와 6차 순환기 회복국면에서는 2위를 기록했다.

경기의 확장국면(실질성장률이 상승하면서 잠재성장률보다 높은 시기)에도 비슷한 결과를 보였다. 국내주식은 2차(31.2%), 3차(39.1%), 6차(55.4%), 10차(10.8%) 순환기 확장국면에서 수익률 1위를 기록했다.

박 연구원은 “과거 회복과 확장 국면에 수익률이 높았던 국내주식에 대한 투자는 긍정적”이라며 “올 4분기 금융시장이 코로나19, 미국 대선 부담, 미·중갈등 심화 우려 등 불확실성에 노출돼 조정될 수도 있

으나 상대적으로 펀더멘털이 양호하고 코로나19 대응이 우수한 한국의 주식시장은 내년도 상승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하인환 KB증권 연구원은 “질병에 의한 경기침체라는 특수한 상황에서의 국내 증시의 기초체력은 좋다”면서 “국내 주식시장의 랠리는 더 길게 갈 것”이라고 전망했다.

외국계 투자은행(IB)들도 한국 증시의 내일을 밝게 본다. 글로벌 IB인 크레디트 스위스(CS)는 올해 코스피 전망치를 2300에서 2600으로 올렸다. 맥쿼리증권은 코로나19 여파를 반영해 2200으로 낮췄던 올해 코스피 목표치를 2400으로 올려 잡았다. HSBC도 ‘중립’에서 ‘비중 확대’로 방향 조정했다.

CS의 한국 전략가인 박지훈 부문장은 “당분간 달러 약세가 이어지면서 코스피 상승을 뒷받침하는 가운데 단기 경제지표 호전이 투자심리 개선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박종학 베어링자산운용 한국법인 대표는 “글로벌 경제 회복 속도가 더딘 가운데서도 한국은 상대적으로 잘 버티고 있다”면서 “유동성 장세는 당분간 계속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오예린 기자 yerin2837@

이름	직위	매입금액	평가차익	평가수익률
정의선	수석부회장	405억7295만	646억4833만	159.3%
서보신	사장	3억2952만	4억3068만	130.7%
이용우	부사장	5866만	1억80만	171.8%
김연수	전무	9654만	1억3514만	140.0%
최윤중	상무	1억4947만	1억9864만	132.9%

※ 출처: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평가차익·수익률은 9월 18일 증가 기준)

## ‘자사주 쇼핑’ 현대차 임원들 최고 수익률 174% 함박웃음

정의선 현대차그룹 수석부회장과 100여 명의 임원들이 함박웃음을 짓고 있다. 코로나19 사태로 국내 증시가 급락한 지난 3월 대거 사들인 현대차 주식이 100%가 넘는 수익률을 내고 있어서다. 코로나 쇼크로 주가가 52주 최저가 수준까지 떨어지자 과감하게 ‘자사주 매입’에 베풀었던 것이다.

20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18일 현재 기준 현대차 주가는 18만1000원

411억 원)도 사들였다. 이를 합하면 총 시세 차익은 964억 원에 달한다. 최근 정 수석부회장의 자사주 매입 행보는 2015년 현대중공업 그룹이 경영 상황 악화로 내놓은 현대차 지분을 매입한 이후 4년 만이다.

정 수석부회장 다음으로 가장 많은 자사주를 매입한 서보신 사장은 3월 20일 주당 7만8457원에 총 4200주를 취득했다. 그는 총 3억2952만 원을 투자해 현재 130.7%의 수익률을 기록

## 정의선 부회장 등 100여명 8월까지 62만주 사들여 정 부회장 159% 수익률 기록... 평가차익 646억 넘어 “전기·수소차 재평가 미래 가치 커 차익실현 없을 것”

이다. 17일에는 장중 19만1500원까지 오르며 52주 최고가를 갈아치웠다.

지난 3월 현대차 주가가 코로나19 충격에 6만 5000원까지 떨어졌을 때와 비교하면 178.46%(18일 증가 기준) 상승했다.

정 수석부회장과 100여 명의 현대차 임원들은 자사주를 대량으로 사들이면서 주가 방어에 나섰다. 3월 한 달 동안 사들인 주식만 61만7548주(약 432억 원)나 됐다. 8월까지 130명의 임원이 사들인 주식은 62만7277주(약 441억 원)에 달한다.

정 수석부회장은 책임경영의 하나로 3월 23일부터 5일간 총 405억 7295만 원(58만1333주)을 투자해 약 646억 원의 평가차익을 기록 중이다. 수익률은 159.3%에 달한다. 그는 현대모비스 주식 30만3759주(약

하고 있다.

이용우 부사장은 총 5866만 원을 투자해 171.8%로 임원 중 두 번째로 높은 수익률을 보였다. 김연수 전무는 9654만 원을 투자해 140%의 수익률을 기록 중이다. 최윤중 상무는 보통주에 6917만 원, 우선주에 8030만 원을 투자해 합산 132.9%의 수익률을 봤다. 현대차 임원 가운데 최고 수익률의 주인공은 편수범 상무로 174.2%에 달한다.

주가상승기에 ‘대박’을 터뜨리려는 임원도 없다. 현대차그룹 한 임원은 “표면적으로 150% 넘는 평가차익이 생겼지만, 지금 팔 사람은 없을 것”이라며 “전기차와 수소차 사업 부문이 재평가받고 있어 차익실현 보다 미래 가치가 더 큰 상황이다”고 전했다.

유혜림 기자 wiseforest@

## SK텔레콤, 체질 개선 하다 ‘투자맛집’ 변신

나노스, 투자 평가차익 3배 넘어 인크로스, 울들어 주가 99%↑ ‘뉴 ICT 기업’ 도약 발판 마련

SK텔레콤이 체질을 바꾸기 위해 투자한 기업들이 잇달아 대박을 터뜨리고 있다. 증권가는 SK텔레콤이 기업 가치가 높아진 것은 물론 미래 성장동력까지 확보했다고 평가한다.

20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SK텔레콤은 최근 다양한 업종에 대한 투자로 상당한 시세 차익이 기대되는 것은 물론이고 자회사 IPO(기업공개)로 인한 수혜가 예상된다.

SK텔레콤은 이스라엘의 디지털 X선 기업인 나노스에 투자해 3배가 넘는 평가차익을 내고 있다. SK텔레콤이 2300만 달러(약 272억 원)를 투자해 확보한 지분율은 5.8%이다. 17일 증가 기준 지분가치는 870억 원에 달한다.

디지털·동영상 광고 플랫폼 기업인 인크로스의 주가도 뛰며 SK텔레콤을 웃게 했다. 인크로스의 주가는 올해 들어 18일까지 99.20% 상승했다. SK텔레콤이 사들인

기업명	지분율	기업명	지분율
SK텔레콤	100%	윈스토어	52.1%
PS&M	100%	SK브로드밴드	74.3%
SK하이닉스	20.1%	콘텐츠웨이브	30%
ADT캡스	55%	인크로스	34.6%
SK인포섹	100%	드림어스컴퍼니	51.4%
IDQ	67%	11번가	80.3%
나노엔텍	28.4%	SK스토아	100%
Nanox	5.8%	F&U신용정보	50%
SK플래닛	98.7%		

34.6%의 지분가치는 2700억 원에 달한다. 525억 원을 투자해 5배 이상 평가 차익을 내는 셈이다.

지난해 카카오와 3000억 원 규모 주식 교환을 통해 확보한 지분 2.5%의 가치도 급등했다. 카카오는 올해 들어서만 주가가 142.99% 상승했다. SK텔레콤의 지분 보유 가치만 8209억 원으로 높아졌다.

SK텔레콤은 IDQ 지분 68.1%를 사들여 1대 주주가 됐다. IDQ는 2001년 스위스에 설립된 양자암호 전문 기업으로 5G가 상용화되면서 보안의 중요성이 커져 매출이 꾸준히 늘고 있다.

지분 가치 상승보다 더 기대되는 것은 SK텔레콤이 통신사업자를 넘어 ‘뉴(New) 정보통신기술(ICT) 기업’으로 도약하

는 발판을 마련했다는 점이다. 현재 SK텔레콤의 비통신 매출은 6조 원(비중 36%) 가량이다.

김희재 대신증권 연구원은 “SK텔레콤은 New ICT 기업으로 도약하고 있다”면서 “최근에 성공적으로 나스닥에 상장한 나노스, 양자암호 통신에서 독보적인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IDQ, 데이터 기반의 광고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인크로스, 2년간 거래액이 2배로 증가한 윈스토어 등 작지만 알찬 투자기업들의 가치를 SKT의 기업가치에 반영할 시점이다”고 설명했다.

자회사들의 IPO도 SK텔레콤의 기업가치를 더 올릴 전망이다. IB(투자은행) 업계에 따르면 윈스토어가 IPO 작업을 실무적으로 준비할 주관사 선정 절차를 마무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윈스토어는 지난 2016년 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 등이 통합3사와 네이버가 합작한 토종 앱 마켓이다. SK텔레콤은 윈스토어 지분 52.1%를 보유한 최대주주다. 윈스토어는 실적이 빠르게 개선되면서 상장 시 기업가치가 1조 원 수준으로 예상된다.

SK브로드밴드와 ADT캡스, 11번가 등의 상장 시기도 저울질하고 있다.

구성현 기자 carlove@

## 김용진 “직원들 대마초 흡입 사죄... 근본적 쇄신책 만들겠다”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 “일벌백계·무관용 원칙 적용”

국민연금공단은 20일 기금운용직 직원에 관련된 대마초 사건과 관련해 대국민 입장문을 내고 “국민들께 깊이 사죄드린다. 신뢰 회복을 위한 근본적 쇄신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김용진(사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은 입장문에서 “최근 기금운용본부 직원들이 대마초를 흡입하는, 있어서는 안 될 일이 발생했다”면서 “공단은 국민의 소중한 자산을 관리하고 노후를 책임지는 공공기관인데 국민을 안심시키기는커녕 실망과 격정



을 끼쳐드리고 그동안 어렵게 쌓아온 신뢰를 한순간에 무너뜨렸다”고 말했다.

이어 “공단을 대표하는 기관장으로서 비롯함과 함께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면서 “공단 임직원을 대표해 국민들께 깊은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고 덧붙였다.

김 이사장은 “이번 일로 또 다른 부조리의 싹이 공단 내부에서 자라고 있는 것은 아닌지 걱정하는 분들이 많다”면서 “자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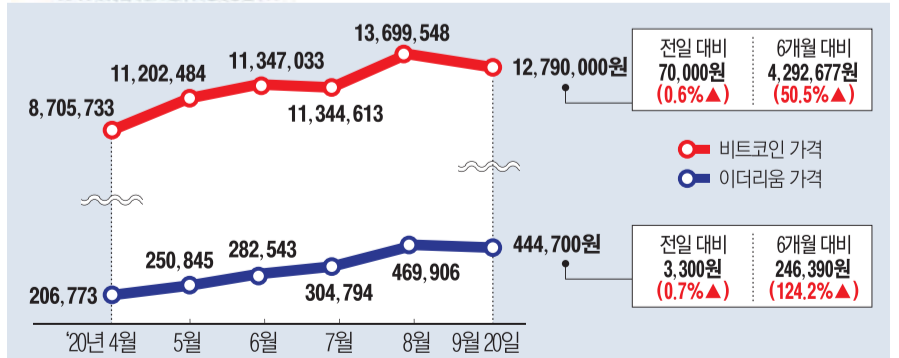
운용에서 연금제도 운영에 이르기까지 운영 전반을 살살이 짚어보고 문제점을 찾아낸 뒤 근본적인 쇄신대책을 마련하고 실천에 옮기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특히 “국민들의 정서로는 용납될 수 없는 일탈·불법 행위에 대하여는 퇴출 기준을 강화하고 일벌백계,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전북지방경찰청은 현재 대마초를 피운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위반)로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직원 4명을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이들은 지난 9일 해임됐다. 고종민 기자 jim@



빗썸 지수 (2020년 9월 20일 17:00, KST)



코인명	가격(원)	전일대비 등락(원)	코인명	가격(원)	전일대비 등락(원)
비트코인캐시	268,900	-2,500 (0.9%▼)	이오스	3,138	-15 (0.5%▼)
리플	292	2 (0.7%▲)	비트코인골드	9,655	40 (0.4%▲)
라이트코인	56,200	100 (0.2%▲)	이더리움클래식	7,150	-45 (0.6%▼)
대시	83,850	-100 (0.1%▼)	퀀텀	3,002	-74 (2.4%▼)

전 세계 1등 가상화폐 거래소

# 심각한 시장 혼란에도... 與, 부동산 규제 '마이웨이'

계약갱신 청구 등 권리 해석 모호  
집주인-세입자 갈등 잇따라 발생  
부동산 감독기구에 기소권 부여  
금융정보 열람 등 권력 남용 우려  
전문가 "충분한 검토 없는 정책  
장기적으로 신뢰성 상실할 것"

서울 전세 물건

2만7501건

8월 20일

-65%

9763건

9월 20일

**여당 부동산 입법 주요 내용**

법안명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대표발의자 : 허영 등 13인

① 국토부 장관은 필요한 경우 거래당사자에 대한 가족관계 등록사항과 부동산 등기기록 등을 관계기관에게 요청할 수 있음

② 금융기관에 금융정보와 신용정보, 보험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음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    조영선 등 10인

투기과열지구에서 시행하는 재건축 사업의 경우 소유 주택에 2년 이상 실거주해야 조합원 분양신청 허용

---

**세입자 주거안정 보호법(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조영선 등 17인

국가재난 등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거안정 보호기간에는 임차인이 계약의 갱신 거절을 통지 못하도록 함.

"실거주 목적으로 전세 낀 집을 매수했습니다. 세입자에게 전세 끝나면 실거주할 거라고 했더니 세입자 계약갱신권이 우선이라고 잘 알아보라네요. 제가 잘못된 건가요. 너무 화가 납니다"

"전세 낀 집을 매수했습니다. 매도인은 세입자가 만기 때 내간다는 조건으로 집을 내놓았어요. 현대 오늘 현재 집주인에게 세입자가 계약갱신청구권을 써 더 살겠다고 합니다. 제가 실거주하거나 말거나 계약은 성립되고 세입자는 나가는 것 맞아요?"

임대차 3법 시행 두 달 만에 집주인과 세입자 간 갈등이 속속 발생하고 있다. 특히 기

존 세입자가 있는 주택을 실거주 목적으로 매수한 경우 청구권을 적용하는지를 두고 시장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여당은 부동산감독원 권한 강화와 국가재난 때 갱신거절권을 막는 법안을 잇따라 발의해 시장 혼란을 부추긴다는 지적이다.

◇정부도 헛갈리는 '계약갱신청구권' = 임대차 3법은 부작용이 충분히 예상됐지만, 여당의 '속전속결' 입법으로 곧장 국회 문턱을 넘었다. 이 법은 세입자의 임대차 계약 2년 연장 요구권을 보장한다. 집주인이 실거주하면 이를 거절할 수 있다. 문제는 전세 낀 집을 사들인 매수인이다. 매수

인이 세입자에게 실거주의사를 밝혀도 등기 신고 이전이라면 실거주 목적의 계약갱신청구권을 거절할 수 없다. 매수자가 세입자와 '청구권 미행사'를 합의하더라도 구체적인 증거가 없다면 세입자가 얼마든지 반복할 수 있다.

현장에서는 법 적용을 놓고 혼란이 시작됐다. 부동산 커뮤니티에서는 전세 낀 집을 구매한 매수자와 집주인이 아닌 세입자의 계약갱신청구권 적용 문제를 문의하는 글이 줄을 잇고 있다. 전세 낀 집은 매매 우선순위에서 뒷전으로 밀리는 현상까지 발생한다.

정부는 명확한 청구권 행사 범위와 집주인

·세입자 권리 해석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정부 산하 상담센터에서는 계약갱신청구권 문의에 '실거주를 핑계로 세입자를 내보내라'고 답변한 사실이 알려졌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지난 16일 '집주인이 단기간만 거주하고 매각해 실거주하지 않으면 불법행위에 책임을 질 수 있다'고 해명에 나서기도 했다.

◇혼란 속에서도 '논란 입법' 계속 = 여당은 시장 혼란 속에서도 부동산시장 감독기구 설치 논의 등 시장 파급력이 큰 입법안 발의를 이어가고 있다. 지난 16일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은 국토부장관이 거래자 가족관계 등록사항과 등기는 물론, 금

용정보와 신용정보까지 요구할 수 있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민주당은 전날 부동산시장 감독기구 도입 관련 토론회를 열고 세부안을 논의했다. 이날 논의 내용에는 "부동산시장 감독기구가 수사권(특사청) 권한은 물론 기소권(검찰), 과세권(국세청) 등을 통합적·유기적으로 행사하기 위한 입법 보완이 필요하다"는 내용까지 포함됐다. 금융정보 열람에 수사권, 기소권까지 갖춘 부동산시장 감독기구가 현실화되면 권력남용 우려를 지울 수 없다.

이 밖에 코로나19 등 국가재난 상황 시 세입자를 내보내지 못하도록 한 '세입자 주거안정 보호법'도 민주당에서 발의했다. 국회 입법예고시스템에는 해당 법안에 반대 댓글이 1000개 이상 달리는 등 민심 반발이 거세다. 이와 관련,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 장(경인여대 교수)은 "여당의 최근 부동산 입법안은 백화점식 규제를 나열하는 것"이라며 "현행법과 맞지 않는 부분도 있고 부작용을 남길 수 있는데 충분한 검토를 거치지 않고 인기영합적인 정책을 남발하고 있어서 장기적으로는 정책 신뢰성을 잃을 수 있다"고 말했다. 정용욱 기자 dragon@

## 현대건설, 도심항공교통 생태계 구축 '날갯짓'

인천공항·현대차·KT와 MOU

현대건설은 인천국제공항공사, 현대자동차, KT와 함께 '한국형 도심항공교통(K-UAM)의 성공적 실현 및 비행실증'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20일 밝혔다.

지난 18일 인천공항청사 서관에서 진행된 서명식에는 서경석 현대건설 부사장과 신재원 현대자동차 부사장, 백정선 인천국제공항공사 본부장, 전홍범 KT 부사장 등이 참석했다. 이번 MOU에 따라 4개사는 △한국형 도심항공교통(K-UAM) 로드맵 공동 추진과 협력 △K-UAM 그랜드챌린

지 공동참여 △UAM 이착륙장 건설과 운영 등에 관한 공동연구와 사업 협력 △주요 기술시장의 동향 파악과 상호교류를 통한 긴밀한 협력관계 구축 등을 추진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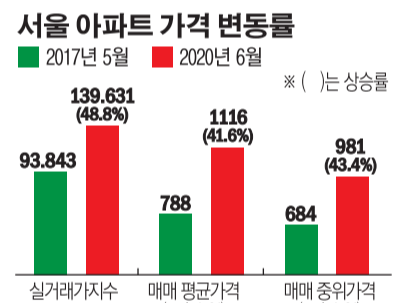
현대건설은 UAM 이착륙장인비터포트의 구조 및 제반시설 설계·시공 표준안과 육상교통 연계형 복합환승센터 건설을 개발할 예정이다. 또한 이를 바탕으로 UAM 실증사업 시설 구축을 지원할 계획이다.

문선영 기자 moon@

## 민간시세 과장됐다면 정부 감정원 실거래도 '못 믿어'

### 현장에서

실거래가지수 49% 올랐지만 미거래 매물 포함 표본 설계 주택가격 10%대 상승률 고수



현 정부 들어 급격한 우상향 곡선을 그리고 있는 집값 상승률을 두고 민간업체의 과장된 시세라고 부인한 국토교통부가 공식 승인통계마저 반박하고 나섰다. 가장 낮게 오른 수치만을 제시하기 위해 상황별로 통계를 선택하면서 시장의 혼선을 가중시키는 모순적인 행보라는 지적이 거세다.

한국감정원 통계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실거래가지수는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2017년 5월 93,843에서 가장 최신 수치인 올해 6월 기준 139,631로 48.8% 치솟았다.

기존 10억 원짜리 아파트가 현재 15억 원에 거래되고 있다는 의미다. 실거래가지수는 감정원이 정확한 시장 동향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실제 신고된 아파트 거래 사례들로 만드는 통계다.

이 기간 서울의 아파트 매매 평균가격은 ㎡당 788만 원에서 1116만 원으로 41.6% 급등했다.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을 순서대로 나열했을 때 한가운데 위치하는 중위가격도 684만 원에서 981만 원으로 43.4% 뛰었다.

이처럼 3년 만에 40%가 넘어간 집값 상승률은 정부가 공식 승인한 감정원 통계 수치들로 일관되게 확인된다. 그러나 국토부는 주택가격동향조사 매매가격지수를 근거로 초저일관 10%대 상승률을 고수하고 있다.

이 지수는 거래가 이뤄지지 않은 집을 포함한 모든 주택을 모집단으로 표본을 설계하고 있다. 실거래가와 공

인중개업소 호가(부르는 가격)를 토대로 거래가 가능한 가격을 추정해 만든다.

여기서 사람들은 묘한 기시감을 느낀다. 그동안 정부는 KB국민은행의 부동산 시세를 반박하면서 "KB국민은행은 호가 중심이고 감정원은 실거래가 중심"이라고 강조해 왔다. 그런데 감정원 실거래가지수라도 높은 상승률이 확인되자 호가를 반영해 가장 낮은 수치가 나온 매매가격지수를 앞세워 강변하고 있는 것이다.

현 정부 들어 서울 아파트값이 40% 넘게 올랐다는 지적이 커지자 국토부는 설명자료를 내고 "주택가격동향지수는 전체 주택시장 상황 진단에 유용한 지표지만, 실거래가격지수는 시장 상황을 과잉 해석할 여지가 있다"고 반박했다.

실거래는 △가격상승률이 높은 신축 아파트와 건축연령 25년 초과하는 재건축 대상 아파트의 비중이 높고 △최근 고가 아파트 거래비중이 늘어나 집값 상승률이 과대 계상될 수 있다는 주장이다.

현 정부 들어 집값이 폭등한 탓에 실거래가가 높아졌는데 호가를 반영한 가장 낮은 추정치로 혼자만 아니라 국토부. 그렇다고 실제 올라간 집값이 낮아지지는 않는다. 반시장적인 조세와 규제의 광풍에 더 단단히 치솟은 서울의 아파트값은 이제 50% 너머를 넘보고 있다. 이정필 기자 roman@

## 금주의 분양캘린더

9월 넷째 주 전국에서 1만1662기구가 분양 시장에 나온다.

18일 부동산114에 따르면 다음 주 전국 12개 단지에서 총 1만1662가구(일반분양 7431가구)가 공급된다. 경기 의정부시 의정부동 '의정부역 스카이라인', 부산 연제구 거

제동 '메이카운티' 등이 청약 신청을 받는다. 당첨자는 모두 19개 단지에서 발표된다. 경기도 평택시 고덕면 '평택 고덕 제일 풍경채3차센텀'을 비롯해 수원 영통구 '영흥공원 푸르지오 파크비엔', 대구 수성구 중동 '수성 푸르지오 리버센트' 등이 청약 당첨자를 발표한다.

정당계약은 15개 단지에서 이뤄진다.

서울 양천구 '신목동 파라곤'을 비롯해 대구 수성구 지산동 '더샵 수성리크에르', 충남 천안 청당동 '행정타운 센트럴 두산위브' 등이 정당계약을 앞두고 있다.

다음주엔 전국 4개 단지가 견본주택 문을 연다. 경기 화성시 반정동 '반정 아이파크캐슬5단지'와 대구 중구 동인동1가 '센트럴대원칸타빌' 등이 25일 견본주택을 개관한다.

날짜	구분	시	구시군	읍면동	아파트명	날짜	구분	시	구시군	읍면동	아파트명							
9/21 (월)	계약	경기도	평택시	서정동	평택고덕A2(영구임대)	9/24 (목)	경기도	화성시	안성동	화성태안3A1(국민임대) (~9/28)	9/25 (금)	경기도	화성시	안성동	화성태안3A2(국민임대) (~9/28)			
			죽백동	평택소사빌A5(영구임대)	충남			홍성군	홍북읍	내포1차대방엘리움더퍼스티지 1순위								
		서울	양천구	신월동	신목동파라곤 (~9/25)		경기도	고양시	지축동	고양지축S1(국민임대)			경기도	광주시	삼동	힐스테이트삼동역		
			김포시	통진읍	e편한세상김포어반베뉴 (~9/24)			시흥시	장곡동	시흥장현A5(국민임대)								
			경기	양주시	덕계동			양주화천덕계역대광로제비앙 (~9/23)	서구	원대동3가				서대구센트럴하이 ♣				
				옥정동	양주옥정3차노블랜드에듀포레 (~9/23)			수성구	중동	수성푸르지오리버센트								
	전남	평택시	죽백동	평택소사빌A5(국민임대) (~9/25)	오른	경기	수원시	망포동	영통롯데캐슬엘클래스(1BL)	경북		성주군	성주읍	성주스위트엠엘크루				
		대구	수성구	지산동			더샵수성리크에르 (~9/23)	화성시	반정동			반정아이파크캐슬5단지						
		전북	김제시	검산동		김제대검산1(영구임대) (~9/23)	대구	중구	동인동1가			센트럴대원칸타빌	부산	연제구	거제동	레이카운티 1순위		
		전남	순천시	서면		포레나순천 (~9/23)		울산	중구			북산동		변영로센트리지 1순위				
		9/22 (화)	계약	충남		공주시	금홍동	공주월송시골마을 (~9/23)	서울			강동구	강일동	고덕강일4단지(장기전세)	경북	구미시	신명동	성원상마을 1순위
						천안시	청당동	행정타운센트럴두산위브 (~9/24)						고덕강일6단지(장기전세)		충남	천안시	신방동
경기	안양시			비산동	비산한신더휴 1순위(당해지역)	고덕강일7단지(장기전세)	충남	홍성군		홍북읍	내포1차대방엘리움더퍼스티지 2순위							
	양평군			양평읍	포레나양평 1순위	고덕강일8단지(장기전세)		9/23 (수)		계약	대구			서구			원대동3가	서대구센트럴하이 ♣
	의정부시			의정부동	의정부역스카이라인 1순위(당해지역)	고덕강일9단지(장기전세)												
	파주시			와동동	운정아이파크더테라스 1순위	마곡동												
9/22 (화)	발표	서울	동대문구	장안동	장안에스아이팰리스	경북	충주시		호안동			충주호안A1(공공분양)						
광주			북구	임동	금남로중흥S-클래스&두산위브더제니스													
경기		화성시	반월동	신동탄롯데캐슬노노시티 (~9/27)	9/24 (목)			계약		경기	안양시		비산동	비산한신더휴 2순위				
		인천	서구	청라동											청라푸르지오리피아노1단지 ♣ (~9/25)			
			강원	강릉시											포남동	KTX강릉역동도센트럴리움 (~9/24)		
		9/23 (수)	발표	경기											안양시	비산동	비산한신더휴 1순위(기타지역)	
양평군	양평읍				포레나양평 2순위													
9/24 (목)	발표	경기	의정부시	의정부동	의정부역스카이라인 1순위(기타지역)													
						파주시	와동동	운정아이파크더테라스 2순위										

(주1) ♣=오피스텔, ♠=도시형생활주택  
(주2) 1순위 청약접수 및 견본주택 개관 단지는 색으로 표시  
(주3) 오른 단지는 사업진행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자료: 부동산114

# 수도권 학교 오늘 등교 재개

유치원·초중고교 7000여 곳 주 1~2회 가고 원격수업 병행 '깜깜이 전파' 늘어 불안감 커

수도권 유치원, 초·중·고교 학생들이 전면 원격수업을 끝내고 등교길에 나선다. 지난달 26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 여파로 고3을 제외한 모든 학교의 원격수업 전환 이후 26일 만이다. 코로나19 일일 신규 확진자 수가 지난달 13일(56명) 이후 38일 만에 100명 아래로 떨어졌지만 집단 감염과 경로를 알 수 없는 '깜깜이 전파'가 늘어 교육현장의 불안감은 여전하다.

20일 교육부에 따르면 수도권 7000여 개 유치원, 초·중·고교가 21일 등교를 다시 시작하면서 대면수업과 원격수업을 병행한다. 이에 따라 학생들은 격주나 일주일에 1~2회 학교에 가게 될 전망이다. 그 간 등교를 지속한 비수도권 학교들도 대면

수업과 원격수업을 병행한다.

그러나 일부 학부모는 등교 재개에 우려하고 있다. 강화된 거리두기를 필요한 때에 내린 성급한 결정이 아니냐는 것이다.

초등학교 2학년 자녀를 둔 수원 거주 이영하(44·가명) 씨는 "우리 동네에서 일가족이 집단 확진 판정을 받았다는 뉴스가 나왔는데, 학교에 보내도 되는 것인지 불안하다"면서 "추석을 앞두고 더 조심해야 하는 것이냐"고 말했다.

반면 부실한 원격수업 장기화에 따른 기초학력 저하, 학생 간 격차, 돌봄 부담가중 문제로 등교 수업을 환영하는 학부모도 많다.

중학교 1학년 자녀를 둔 김지선(48·가명) 씨는 "원격수업에 대한 피로도가 높다"며 "아이가 중학교에 입학한 후 사실상 학교를 가지 못한 셈인데, 앞으로 적응을 제대로 할 수 있을지 걱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제한적으론 학교를 가서 친구들도 사귀고, 선생님들과 소통하는 게 나을 것 같다"면서 "학원을 보내고 있지만 학습 격차

에 대한 불안한 마음도 크다"고 덧붙였다.

교내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한 방역도 관건이다.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학교 방역 업무를 맡을 지원 인력을 1학기 수준인 4만 명 규모로 확대할 계획이지만 일선 학교에서는 지원에 속도를 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익명을 요구한 서울의 한 초등학교장은 "서울 지역 학교는 서울시 공공청년일자리사업 인력을 지원받는데 방역 인력 신청자들이 없어 구인에 애를 먹는다"고 토로했다.

한편 교육부는 수도권과 비수도권 학교 모두 21일부터 추석 연휴 특별방역기간이 끝나는 다음 달 11일까지 한 번에 등교하는 인원을 유치원, 초·중학교는 전교생의 3분의 1 이내, 고등학교는 3분의 2 이내로 유지하는 '강화된 밀집도 최소화 조치'를 시행한다. 10월 12일 이후 등교와 관련해서는 코로나19 감염병 추이 등을 보고 등교수업 연장과 밀집도 완화 여부 등을 방역당국과 협의해 결정할 계획이다.

손현경 기자 son89@



휴일인 20일 서울 여의도한강공원을 찾은 시민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부분 폐쇄된 구역 바깥쪽에 서 휴식을 취하고 있다. 연합뉴스

선을 넘진 않았지만...

## 대법 "원청업체서 쟁의행위한 파견근로자들 무죄"

"실제 일하는 곳에서 시위 정당"

하청업체 근로자들이 원청업체 사업장에서 쟁의행위를 해도 위법하지 않다는 대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업무방해, 퇴거불응 혐의로 기소된 A 씨 등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0일 밝혔다.

한국수자원공사 시설관리 용역업체 소속 시설관리원으로 근무한 A 씨 등은 용역업체와 임금 및 단체협상이 결렬되자 파업에 들어가면서 한국수자원공사 본관과 수질분석연구센터 사이에 있는 쉼터에서 구호를 외치며 농성을 벌여 직원들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았다.

또 이들은 쓰레기 수거 업무에 대체 인력이 투입되지 않을 방해하고 수거돼 있던 쓰레기를 복도에 버린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이들이 쟁의행위 상대방이 될 수 없는 원청업체 사업장에서 시위한 것은 적법하지 않다고 보고 재판에 넘겼다.

1심은 "원고용주가 아닌 한국수자원공사의 사업장 내에서 이뤄진 집회를 적법한 쟁의행위로 위법성이 없다거나 파고인에게 위법성의 인식이나 기대 가능성이 없다고 볼 수 없다"며 A 씨 등에게 각 150만~3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반면 2심은 "집회가 사용사업주인 한국수자원공사 사업장 내에서 이뤄졌다는 사실만으로 법을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어 "파견근로자들에게 근무 장소를 제공하고 그들의 근로 제공에 따른 이익을 누리는 사용사업주는 파견근로자들의 쟁의행위가 시설관리권의 본질적인 부분을 침해하지 않는 한 업무저해를 수인할 의무가 있다"면서 "파고인들은 파견사업주가 불법 대체인력을 투입하자 이에 대항하기 위해 상당한 범위 내에서 실력을 행사한 것이므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대법원도 "도급인의 사업장은 수급인 소속 근로자들의 삶의 터전이 되는 곳"이라며 "쟁의행위의 주요 수단 중 하나인 파업이나 태업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이뤄질 수밖에 없다"고 판단했다.

정수천 기자 int1000@

## 법원 "지각 안하려 계단 뛰었다 사망... 산재"

"업무 스트레스 커" 1심 뒤집어

출근 시간에 지각하지 않기 위해 계단을 급히 뛰어오르다가 갑자기 숨진 간호조무사에게 업무상 재해를 인정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8부(재판장 김유진, 이원희, 김제욱 부장판사)는 A 씨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소송의 2심 재판에서 1심을 뒤집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

A 씨는 서울의 한 병원 산부인과에서 재직하던 2016년 12월 아침 출근 직후에 쓰러져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사망했다. 당시 A 씨는 정식 출근 시간인 9시보다 20분 이른 8시 40분 병원 건물에 도착해 엘리베이터를 이용하지 않고 계단을 통해 자신이 근무하던 3층까지 뛰어 올라갔다. 이 병원의 실질적 출근 시간은 8시 30분으로 조사됐다.

유족들은 A 씨가 평소 심장질환을 앓고 있었고, 지각에 대한 중압감 때문에 발걸

음을 독촉하다 육체적, 정신적 부담을 받아 사망에 이르렀다고 주장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계단을 뛰어 올라가는 행위로 인한 신체적 부담, 지각에 대한 정신적 부담의 정도는 일상생활에서 흔하게 접하는 수준이라고 보고 원소 패소 판결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A 씨의 사망 원인이 전적으로 기존 심장질환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과중한 업무로 인해 누적된 스트레스가 지병의 발현에 상당 부분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충분하다는 것이다.

특히 A 씨가 맡고 있던 산부인과 진료 보조 업무가 병원 내에서 기피 대상일 정도로 업무 강도가 높았다는 점에서 근무로 받는 스트레스가 컸을 것이라고 봤다.

재판부는 "당시 병원에서는 지각해서 오전 8시 30분 조회에 불참하는 경우 상사로 부터 질책을 받았다"며 "내성적이고 소극적인 성격의 A 씨에게 지각에 대한 정신적 부담은 큰 스트레스로 작용했을 것"이라고 밝혔다. 박기영 기자 pgy@

## “온 가족이 함께 즐겁게 지낼 행복한 공간을 만들고 싶다.”

소공동 롯데타운, 세계 최초의 대형 실내 테마파크인 잠실 롯데월드, 그리고 오늘날 서울의 랜드마크가 된 123층 초고층 빌딩 롯데월드타워에는 '온 가족이 모두 즐길 수 있는 공간'을 만들고자 한 신격호 회장의 평생의 꿈이 녹아 있다. 신격호 회장과 50년을 함께한 일본인 건축가 오쿠노 쇼를 통해 본 인간 신격호 이야기.

‘신격호 회장이 맨해튼 한복판에서 트럼프 미 대통령과 담판 나신 사연은?’ 무모하리만치 과감했던 신격호 회장이 만들어 낸 롯데월드의 도전, 저자 오쿠노 쇼의 건축사무소에 잠들어 있던 미공개 계획안들을 통해 밝혀진 그의 꿈.

**신격호 회장의 구상을 담은 도면과 이미지 400여 장 마침내 공개!**

**신격호의 도전과 꿈**  
롯데월드와 타워

오쿠노 쇼 지음

양장본 | 윌커러 | 국배판 변형 | 값 35,000원

Tel. 031-955-4601 **나남**  
www.nanam.net nanam

## 중소기업 2500곳 '스마트공장' 구축

### SAMSUNG

삼성전자는 중소기업들의 스마트공장 전환을 통한 '생산성 혁신'을 지원한 데 이어, 온라인 장터를 통해 '판매 지원'에도 나서고 있다.

삼성은 추석을 맞아 내수 경기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임직원을 대상으로 '추석 맞이 온라인 장터'를 열었다.

또한 '스마트공장 지원 사업'에 참여한 27개 중소기업의 상품도 입점시켰다.

삼성전자는 2015년부터 제조현장 전문가를 투입해 △현장 혁신 △시스템 구축 △자동화 등의 노하우를 중소기업에 전수하는 스마트공장 지원 사업을 펼쳐 왔다.

온라인 장터 참가업체 중 황태 가공 업체의 경우는 스마트공장 전환을 통해 생산성이 300% 이상 향상됐으며, 두부 과자 제조 기업은 생산성이 약 150% 개선됐다.

지원 확대를 위해 삼성전자는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중앙회와 함께 중소기업 2500개를 대상으로 스마트공장 구축을 하고 있다.



마스크 제조기업 레스텍에서 백나원(오른쪽) 공장장과 삼성전자 멘토가 마스크 귀끈 연결 상태를 점검하고 있다.

이를 위해 2018년부터 2022년까지 5년간 중소벤처기업부와 삼성전자는 매년 각각 100억 원씩 총 1000억 원을 조성한다.

특히, 올해는 코로나19 관련 제품을 생산하는 진단키트, 손 소독제, 의료용 보안경, 물티슈 생산 등 약 30개의 기업이 지원해, 중소벤처기업부와 중소기업중앙회는 이들 업체 대상으로는 패스트트랙으로 6월 전에 먼저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다.

## 내비에 '백년가게'...소상공인 육성 앞장

### HYUNDAI MOTOR GROUP

현대·기아자동차는 중소벤처기업부와 손잡고 코로나19로 고통받는 소상공인 지원에 앞장서고 있다.올해 7월부터 차량 내비게이션 업데이트 서비스에 중소벤처기업부가 주관하는 '백년가게 육성 사업'의 선정 업체 정보를 포함하는 방식이다.

'백년가게 육성 사업'은 중소벤처기업부가 2018년부터 진행해온 상생 사업 가운데 하나다. 창업 30년 이상 된 소상공인을 발굴, 100년 이상 지속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다는 게 사업의 골자다.

현대·기아차 역시 이들 '백년가게'와 상생을 도모하기 위해 자동차 내비게이션을 적극 활용 중이다. 고객이 내비게이션에 '백년가게'를 검색하면 선정 업체들이 검색결과 화면에 표시될 수 있도록 배려했다.

한편, 현대·기아차는 지난해 12월 미래자동차 시대를 맞아 자동차부품업계의 경쟁력 확보를 지원하기 위해 중소벤처기업부와 제10호 자상한



현대기아차 고객이 내비에서 '백년가게'를 검색하고 있다. 창업 30년 이상 소상공인을 발굴해 지속성장을 돕는 사업이다.

기업(자발적 상생협력 기업)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등 상생과 공존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지속해서 노력하고 있다. 나아가 국내 다수의 신생기업, 중소·중견 기업들과 손을 잡고 다양한 형태의 미래 모빌리티 및 미래 모빌리티 서비스가 보편화할 수 있도록 새로운 생태계 조성도 적극적으로 추진 중이다. 또 미래 모빌리티 협업 생태계 전략의 일환으로 차량 데이터 오픈 플랫폼의 개발자 포털인 '현대 디벨로퍼스'를 출범시켰다.

## 213개 기업과 동반성장 협약 체결



SK그룹은 모범적인 상생경영을 위해 전사적으로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최근 동반성장위원회가 발표한 2019년 동반성장지수 평가에서 △SK주식회사 △SK텔레콤 △SK하이닉스 △SK종합화학 △SK건설 등 5개사가 최우수 기업으로 선정됐다.

SK이노베이션의 자회사 SK종합화학은 에너지·화학 업계에서는 유일하게 8년 연속 동반성장지수 '최우수 등급'을 받기도 했다. SK종합화학은 협력사와의 동반성장을 위해 △금융 △기술/판로 △경영/교육/채용 △사회 공헌 분야 등을 지원하고 있다. 협력사가 자금 흐름을 개선하는 데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도록 213개 협력사와 동반성장협약도 체결했다. 100억 원의 기금을 마련해 협력사에 직접 대여하고 있을 뿐 아니라, 550억 원 규모 동반성장펀드도 별도로 조성, 지원하고 있다.

SK텔레콤도 지난해 동반성장위, 주요 협력사들과 '혁신주도형 임금 격차 해소 협약'을 체결하고 △



SK와 업드림코리아 관계자들이 3억 원 상당의 '여성위생용품 기부 전달식'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기술 보호 및 특허 비용 △5G, 인공지능(AI) 교육·컨설팅 지원 △금융(동반성장펀드, 대금 지급 바로 프로그램) △협력사 임금·복리후생 등 전방위 상생 협력을 추진해왔다.

올해 위기에 빠진 협력사를 지원하기 위해 상반기 1100억 원 규모 상생 안을 마련해 시행하고 약 1600억 원 규모로 운용하고 있는 동반성장펀드로 긴급 자금을 대출해줬다.

## 코로나 피해 협력사에 1조2000억 지원



LG전자, LG디스플레이, LG화학, LG생활건강, LG이노텍, LG유플러스, LG CNS, 더페이스샵 등 LG그룹 산하 8개 계열사는 동반성장위원회가 발표한 '2019년 동반성장지수 평가'에서 최고 등급인 '최우수 기업' 평가를 받았다. 이로써 LG그룹은 2014년부터 6년 연속 가장 많은 최우수 기업을 배출하는 그룹에 올랐다.

LG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협력사 등을 지원하기 위해 금융지원을 올해 1조1900억 원 규모로 확대했다. 기술지원, 생산성 향상 등 거래분야에 치중됐던 동반성장영역을 안전·환경, CSR, 수출입, 복리후생 등 기업 활동 전반으로 확대해 왔다.

LG전자는 2018년부터 축적한 생산설비 자동화와 정보화 인프라 구축 비법을 협력회사에 전수하고 있다. 올해부터는 2차 협력회사까지 제조 경쟁력 혁신 지원에 나섰다. 또 지난해부터 협력사 직원을 대상으로 한 로봇 자동화 교육과정을 신설해 로봇의 조작과



LG전자가 협력사 직원들을 대상으로 현장 로봇 전문가를 양성하고 있다.

운영, 생산설비 적용사례 학습 등 맞춤형 실습교육을 제공해오고 있다.

LG생활건강은 화장품 가맹점과 대리점 등의 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위해 43억 원의 현금 등 현물 포함 80억 원을 지원했다.

LG디스플레이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었던 해외 진출 협력회사들을 돕기 위해 전세기 지원, 협력사 임직원 가족의 국내 송환을 지원했다.

## 갤러리아 입점 식음료 매장 수수료 인하



한화그룹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코로나19 확산이라는 국가적 위기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각종 기부와 시설 제공, 확산 방지를 위한 캠페인 실시 등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앞서 한화그룹은 올해 2월 대구·경북지역에 마스크 15만 장을 기부했다. (주)한화와 한화솔루션 역시 코로나19 특별 관리구역으로 지정된 대구·경북지역에 마스크 15만 장을 전달했다.

한화생명명은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고객들을 지원하기 위해 계약자와 용자 대출고객에게 보험료 납부와 대출 원리금 상환을 6개월간 유예하고 있다. 경기도 용인시에 있는 한화생명 라이프파크 연수원을 코로나19 치료센터로 제공했다. 이런 결정은 정부나 지방자치 기관의 요청에 앞서 이뤄져 눈길을 끌었다.

한화토탈도 지역사회의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노사가 공동으로 1억 원 상당의 재난기금을 조성했다. 한화갤러리아는 중소협력사의 매장 수수료 인하와



(주)한화와 한화솔루션은 2월 코로나19 특별 관리구역으로 지정된 대구·경북지역에 마스크 15만 장을 기부했다.

210억 원 규모의 동반성장펀드 운용 등 상생 협력 방안을 시행하고 있다.

이달 개점한 광고 사업장을 제외한 전 사업장의 식음료 브랜드를 대상으로 매출감소에 비례해 수수료를 내린다.

또한, 식당가 매장 22곳 중 영세·중견기업 및 개인사업자가 운영하는 17곳을 대상으로 3월 직접 관리비 전액을 면제한다.

## 중견·중소 협력사 대금 전액 현금 지급



현대모비스는 협력사와의 동반성장을 위해 금융지원, 역량 강화, 커뮤니케이션 확대 등 다양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협력사의 기술경쟁력 확보를 위해 최신 특허를 개방하고, 지적 재산권 공개 및 무상 이전을 시행하고 있다. 지난해 현대모비스의 특허 개방과 이전 건수는 200여 건에 달한다.

협력사 스스로 기술을 개발할 수 있도록 연구개발비도 지원하고 있다. 기술 역량을 쌓아 부품 국산화를 앞당기기 위해서다. 현대모비스가 지난해 협력사에 지원한 신제품 기술개발 관련 금액은 200억 원에 달한다.

국제 표준을 충족하는 시험시설이 없는 중소 협력사에는 고가의 연구시험설비를 갖춘 시험실을 개방, 기술 역량 확보를 지원하고 있다. 지난해 국내외 협력사의 시험 장비 사용 횟수는 2300여 건에 달한다. 현대모비스는 2016년부터 매출 5000억 원 미만의 중견, 중소 협력사에는 대금을 전액 현금으로 지급하



현대모비스 임직원들이 부품협력사를 방문해 생산관리 시스템 노하우를 전수하고 있다.

고 있다. 신규부품 개발 시 막대한 투자비가 소요되는 만큼 협력사의 초기 비용 지급에 어려움이 없도록 금형 비용도 양산 전 일시금으로 지급하고 있다.

현대모비스의 동반성장펀드는 2차 협력사 전용 자금 지원 프로그램으로 시중은행보다 낮은 금리를 제공한다. 지난해 현대모비스가 협력사 대출 목적으로 은행에 예치한 대출 지원 금액은 약 2000억 원에 달한다.

## 대기업 최초 '최저가 낙찰제' 폐지



포스코는 2018년 '더불어 함께 발전하는 기업 시민'을 회사 경영이념으로 정립한 이래 '기업 시민 동반성장' 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기업 시민 동반성장 활동은 안전·환경 개선, 소재·부품·장비 국산화 등 산업계 난제 해결과 상생을 위해 협력기업과 함께 노력을 기울이는 것을 골자로 한다. 최근에는 기업 시민 동반성장 활동을 보다 발전시킨 개념인 '체인지업 투게더(Change Up Together)'로 재정비했다.

포스코는 2018년 상생을 위해 대기업 최초로 최저가 낙찰제를 폐지했다. 입찰사가 수주물량 확보를 위해 제조회가 상승에도 저가로 써낼 수밖에 없는 상황을 차단한 것이다.

2004년 국내 최초로 시행한 성과공유제는 대·중소기업 간 동반성장 활동의 대표적인 우수 사례이다. 외산에 의존했던 제철소의 많은 설비 및 자재를 성과공유제 과제 수행을 통해 국산화했다. 그 결과 포스코의 부품, 장비 국산화율은 90%에 달한다. 협력기업 우수인재 확보에도 적



포스코는 협력기업 취업을 희망하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직무수행에 필요한 실무능력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고졸과 전문대를 졸업한 청년들의 취업 지원을 위해 '대·중·소 기업 상생 일자리 프로그램' 및 '채용예정자 양성 교육'을 운영하고 있다.

한편 포스코는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서 올해 6월에는 현대제철과 손을 잡고 1000억 원 규모의 철강 상생 협력펀드를 조성했다. 기업당 최대 10억 원 한도로 시중대비 1.05%포인트 낮은 대출이율을 지원하고 있다.

## 협력사 기술 자료 1088건 관리 지원



LG전자는 협력사 경쟁력이 상생의 토대라는 판단으로 △경쟁력 강화△프로세스 혁신 △인력 육성 지원 △자금지원 △차세대 기술 등 5대 추진 과제를 선정해 협력사를 지속해서 육성·지원하고 있다.

가장 대표적으로 협력사의 기술을 보호하기 위해 지난해 211건의 협력사 기술자료 임치(보관)를 지원했다. 이는 국내 대기업 가운데 가장 많은 수준이다. 기술자료 보관은 핵심기술을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에 보관해 기술 유출의 위험을 줄이는 제도다.

LG전자는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1088건의 기술자료 보관을 지원했고 올해도 200건 이상의 기술자료 임치를 지원할 계획이다.

LG전자는 올해 약 100개 협력사가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을 활용해 스마트 팩토리 솔루션과 자동화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도 참여한다. 특히 LG전자는 지난해 400억 원 규모였던 무이자 자금을 올해 550억 원으로 확대하고, 자금을 지원하는



LG전자는 협력사를 대상으로 생산성 향상을 위한 컨설팅 지원을 이어가고 있다.

일정도 지난해보다 4개월 앞당겨 집행했다.

LG전자는 2015년 1차 협력사에 결제한 납품대금이 2차 이하 협력사까지 안전하게 결제되도록 하는 상생결제 시스템을 도입했다. LG전자 1차 협력사가 2차 협력사에 상생결제시스템을 통해 결제한 금액은 2015년 352억 원에서 지난해 3673억 원까지 증가하며 5년 만에 10배 이상 늘었다. 올해 상반기는 2075억 원으로 국내기업 가운데 최대 규모다.

## 협력사 생산현장 디지털 전환 추진



두산그룹은 '선순환적 파트너십 구축'을 앞세워 상생 중이다. 이를 위해 두산은 경쟁력 공유, 기술력 및 재무 지원, 커뮤니케이션 활동 등 다양한 동반성장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두산은 지난해 7월 △대·중·소기업 농어업협력재단 △대한상공회의소 △한국생산성본부와 함께 '㈜두산 상생형 스마트공장 지원사업 협약'을 체결했다. ㈜두산의 각 사업부문 120여 개 협력사와 '공정거래 및 상생 협력 협약'도 지난해 맺었다.

㈜두산은 10여 개 협력사 생산 현장에 로봇 자동화 공정, MES(제조실행시스템), PLM(제품수명주기 관리) 등의 디지털 전환 프로젝트를 추진 중이다.

올해에는 주 52시간 근로제를 시행하는 중소 협력사를 위해 생산성 혁신, 노무, 법무 관련 컨설팅 및 교육을 무상으로 제공하고, 근로자 1인당 10만 원의 상생 격려금 및 건강검진비용 등을 지원하고 있다.

두산인프라코어는 협력사 경쟁력 강화를 통한 구매, 생산 전반의 경쟁력 제고를 지향하고 있다.



두산인프라코어는 선진 사례와 혁신 기법을 전파해 협력사 경쟁력을 높이는 동반성장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협력사 육성 프로그램(Doosan Supplier Excellence Program)을 기반으로 중점 협력사를 강소기업으로 육성하는 '리딩 서플라이어'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두산중공업은 4월 경남창조경제혁신센터 신생기업인 두텍과 '하동화력발전소 1~4호기 육외 저·상탄기 개·보수공사 엔지니어링 및 기자재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

## 금융권과 네트워크론... 中企 상생대출



효성은 '협력사의 경쟁력이 곧 회사의 경쟁력'이라는 인식을 바탕으로 상생경영의 보폭을 넓히고 있다. 협력사에 재무개선, 컨설팅·교육, 글로벌 판로 개척 등을 지원하며 대내외적 위기를 함께 돌파하겠다는 전략이다.

효성은 우선 협력사의 생산성 향상을 위한 장비·설비 도입과 기술개발을 위한 자금을 지원한다. 원활하게 자금을 운용할 수 있도록 금융권과 '네트워크론'을 구성했다. 네트워크론이란 은행과 기업이 협약을 맺고 협력사의 납품계약 이행에 필요한 자금을 선대출해주는 상품이다.

설비, 연구, 품질관리 등의 분야에서 협력사가 핵심 경쟁력을 기를 수 있도록 설비 개선도 지원하고 있다.

초고압 전력기기 부문의 세계 시장 개척을 위해 협력사에 조작기 등 핵심부품 개발을 지원하고, 협력업체의 품질 개선을 위해 생산 관리 시스템, 원격 검수 시스템 등 설비도 지원한다. 최근에는 ICT 기술을



효성중공업 협력사 관계자들이 창원공장을 견학하고 있다. 효성은 협력사 자금 지원과 설비 지원을 병행한다.

융합한 스마트 공장 구축도 지원하고 있다.

효성은 한국능률협회 등 외부전문기관을 통해 협력업체에 교육과 컨설팅의 기회도 제공한다. 협력업체의 CEO, 품질·생산 책임자를 대상으로 공정, 안전, 생산, 경영, 품질 교육을 하고 작업구역·적치대 구획 등 공장의 기본적인 환경 구축부터 자재·설비 관리, 원가절감, 품질 개선을 돕고 있다. 매년 우수협력업체를 선정해 해외 연수도 제공한다.

## 동반성장지수 5년 연속 최우수 평가



LG화학은 동반성장 5대 주요 전략으로 △공정한 거래문화 조성 △금융지원/결제조건 개선 △안전환경/에너지 상생활동 △협력회사 역량 강화 활동 △정보공유 및 소통 활동을 선정하고 구체적인 방안들을 추진하고 있다.

최근 동반성장위원회가 발표한 '2019 동반성장지수 평가'에서 5년 연속 '최우수' 등급을 받았다.

우선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문화 조성을 위해 공정위원회에서 제시하는 업종별 표준 하도급 계약서와 4대 실천사항을 도입했다. 자체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을 도입해 △공정거래 자율준수관리자 선임 △교육 프로그램 운영 △내부 감독시스템 구축 등 공정하고 투명한 경영시스템 정착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LG화학은 협력회사의 원활한 자금 운용을 위해 2500억 원 규모 금융 지원을 진행하고 있다. 2차 협력회사의 경쟁력도 높일 수 있도록 상생결제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올해는 1~2차 협력회사 간에도



신학철(가운데) LG화학 부회장이 경남 함안에 있는 배터리 부품장비업체 동신모텍에서 제품을 살펴보고 있다.

'3자 간 공정거래 및 동반성장협약'을 체결했다. 또한, 전문인력과 자금 부족으로 에너지 효율 개선이 어려운 중소기업 협력회사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자 매년 20억 원 규모의 상생 협력기금을 출연해 투자비를 무상으로 지원하고 있다.

LG화학 기술연구원과 기술 센터에서는 약 1만 건의 각종 분석·시험 과정을 무상으로 지원해 테스트 장비가 부족한 협력회사의 어려움을 완화하고 있다.

## 커피 찌꺼기 업사이클링, 지역사회 협업



현대제철이 커피박 재자원화 사회공헌 프로그램을 통해 지역사회와 함께 지속 가능한 발전을 꾀하고 있다.

'커피박'은 커피를 만들고 남은 부산물로 '커피 찌꺼기'로 불린다.

매년 발생하는 커피박만 15만 톤에 이를 정도로 그 규모가 매우 크다. 다만 현황법인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생활폐기물로 분류돼 대부분 매립 또는 소각 처리되고 있다.

커피박 재자원화 프로젝트는 자원으로서 유용한 가치가 있음에도 수거 시스템의 부재로 폐기되는 커피박을 활용, 환경과 사회·경제적 가치를 창출하고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사회공헌 프로그램이다.

현대제철은 작년 1차연도에 환경부, 인천시, 중구·미추홀구 등 10개 기관과 MOU를 체결하고 커피박 공공 수거 시스템의 기반을 마련했다.

올해 2차연도에는 인천시 중구·미추홀구를 중심으로 공공 수거를 실시하였고 공모전을 통해 선정된



현대제철이 7월 인천에서 열린 제2회 커피박 재자원화 콘퍼런스 간담회를 진행하고 있다.

재자원화 기관들이 수거된 커피박을 활용해 업사이클링 제품을 생산했다.

현대제철은 올해 진행되는 2차연도 프로젝트를 통해 연간 360톤의 커피박 재자원화, 폐기물 처리비용 2억 원 이상 절감, 30만 개의 업사이클링 제품 생산 및 이에 따른 지역사회 일자리 창출 등 환경·사회·경제적 가치를 동시에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 협력사와 공동 기술개발... 판로개척 지원

GS그룹은 근본적인 경쟁력을 갖춘 중소 협력사가 많아져야 한다는 인식을 바탕으로 상호 발전을 모색하고 있다.

허태수 GS그룹 회장은 "스타트업을 포함한 다양한 비즈니스 파트너들과의 협력관계를 구축해 건강한 영향력을 주고받는 것이 기업과 사회에 지속 가능성을 높이는 길"이라며 "외부와 협업하는 오픈이 노베이션, 살리큰 벨리에 있는 선진 기업이 도입한 혁신 방법론을 각 계열사에 적극 전파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협력회사가 단순한 거래상대방이 아닌 서로가 서로를 통해 동반 성장하는 파트너라는 이념과 협력회사에 대한 상호존중과 배려의 정신을 바탕으로 서로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상생경영 활동을 체계적으로 전개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따라 GS그룹은 계열사별로 업종 특성에 맞게 △협력회사의 원활한 자금흐름을 위한 금융지원 확대 및 지급조건 개선 △협력회사의 지속가능한 경쟁력 확보를 위한 기술 및 상품 공동개발, 교육

및 훈련 지원 △협력회사와의 상생 협력 및 공정거래 등을 위한 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을 제공하고 있다. 아울러 협력업체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계열사별로 협력회사와 공동기술 및 상품 개발, 특허출원, 판로개척을 지원하고 있다. GS그룹은 2010년부터 '공생발전협의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해왔다. 협의회는 계열사별로 추진하는 협력회사 동반성장 프로그램 추진 실적을 점검하고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GS칼텍스 직원이 협력업체 직원과 함께 현장을 둘러보며 점검하고 있다.

### 전국 미혼모 1300명에 '플레저박스' 전달



롯데지주는 최근 롯데복지재단, 롯데정밀화학과 함께 전국 미혼모 1300명을 대상으로 '롯데 플레저박스'를 전달했다.

코로나19 감염예방을 위해 시행되고 있는 사회적 거리두기로, 미혼모들의 어려움이 심화하고 있어 롯데는 이들을 돕기 위해 각종 영유아 제품과 식품 등을 롯데 플레저박스에 담았다. 롯데지주는 2013년 7월부터 '롯데 플레저박스 캠페인'을 통해 이웃들에게 도움이 되는 물품을 상자에 담아 전달해왔다.

이웃의 어려운 상황을 고려해 필요한 물품을 선정해 전달하는 맞춤형 지원으로, 지난해 12월 누적 박스 수 5만 개를 돌파했다. 미혼모들을 지원하는 이번 캠페인은 38회째다. 지금까지 전달한 박스는 총 5만 4500여 개가 된다.



롯데지주는 계열사와 함께 전국 미혼모 1300명을 대상으로 '롯데 플레저박스'를 전달했다.

이외에 세븐일레븐은 지난 8월 대한적십자사와 함께 세븐일레븐 본사 앞에서 임직원 헌혈 캠페인을 진행했다. 롯데월드도 8월 한부모 가정을 지원하기 위해 신생아 수면조끼 만들기 사회공헌활동을 진행했다. 롯데월드 임직원 90명은 이 기간에 한 땀 한 땀 정성스러운 바느질로 수면조끼를 만들었다.

### 협력사 발굴 '즐거운동행' 통해 中企와 상생



CJ제일제당은 대한민국의 건강한 식품산업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경쟁력 있는 협력사를 발굴하는 '즐거운동행' 사업을 진행 중이다.

'즐거운동행' 사업은 협력기업에 필요 자금, 역량, 판로 등을 지원하여 지속 가능한 성장기회를 제공하고, CJ제일제당에 중소기업의 핵심역량을 활용한 제품 출시로 제품 포트폴리오 확대의 기회를 주는 동반성장 사업모델이다.

CJ제일제당은 업계 최초 상생 브랜드인 '즐거운동행' 사업으로 김치, 두부, 장류, 떡류 등의 부문에서 지역 유망 식품기업 제품을 전국에 유통 대행해 8년째 지역 기업의 성장을 돕고 있다.

'즐거운동행' 사업으로 성장한 협력기업에는 '미정'이 있다. 미정은 '즐거운동행' 사업을 통해 기존의



한 대형마트에서 소비자가 CJ제일제당의 동반성장 브랜드인 '즐거운동행' 제품을 살펴보고 있다.

저가형 떡류 제품을 탈피한 신시장을 개척하고, 소스를 자체 생산할 수 있는 경쟁력을 갖춰 시장점유 및 신매출원을 확보했다. CJ제일제당의 소스 개발 지원 민 품질관리 등 전방위적인 지원으로 출시 약 1년 만에 즉석 떡볶이 제품 카테고리에서 제1 경쟁사와의 격차를 빠르게 좁혔다.

### 강원 수해 복구지역 '사랑의 밥차' 봉사활동



KT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과 집중호우·태풍 등으로 위기에 처한 전국 유통망과 협력사, 농가 등을 지원하기 위해 상생 방안을 내놓고 있다. KT는 코로나19가 본격적으로 확산된 상반기에 1040억 원 규모의 상생 방안을 마련해 시행했다. 전국 대리점을 대상으로 정책지원금을 지급하고, 월세를 감면하고 대리점의 휴대폰 매입 대금에 대한 결제 기한을 연기해 자금의 숨통을 트였다.

중소 협력업체들을 위해 지급 예정인 공사 대금과 물자 대금을 앞당겨 지급하기로 했으며, 2017년 조성한 1000억 원 규모의 상생협력 펀드를 활용해 협력사들의 대출 이자 감면도 지원했다. 하반기에도 영세유통점에 대한 긴급영업자금 지원, 중소협력업체에 대한 지원, 전국민 교육서비스 무선데이터 요금 감면 등



KT는 수해 과수 농가를 돕기 위해 농가에서 과일을 구입해 직원들에게 나눠주고, 자발적 기부도 받았다.

약 1000억 원 가량의 상생계획을 실행할 예정이다. 임직원들로 구성된 '사랑의 봉사단'은 홍수 피해가 심한 지역을 돕기 위해 이달 7일부터 강원도 철원군 김화읍 생장리 마을회관에서 이재민과 재해복구에 나선 자원봉사자를 대상으로 하루 130인분 식사를 배식하는 '사랑의 밥차' 활동을 진행했다.

### 우리銀과 상생펀드 협약, 협력사 저리 대출



코오롱그룹은 사업 파트너들과 함께 성장해 나가기 위해서 계열사별로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진행하고 있다.

코오롱인더스트리는 2007년 항구적 무분규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상생동행'과 2016년 '상생동체'를 슬로건으로 내걸고 함께 성장하는 노사관계를 만들어가고 있다. 지난해에는 노사뿐만 아니라 사내협력업체가 더해진 '상생합심'을 선언했다.

코오롱 그룹은 우리은행과 상생펀드 조성 협약을 맺어 사업파트너들이 낮은 금리로 대출받을 수 있도록 지원 중이다. 펀드는 △코오롱인더스트리 △코오롱글로벌 △코오롱글로벌 3사가 상생예금을 우리은행에 예치하고, 우리은행이 일정금액을 보태 만들었다.



코오롱인더스트리 박종태(왼쪽부터) BP사대표협의회장, 김연상 노조위원장, 장희구 대표이사 등이 지난해 구미공장에서 열린 '상생합심' 선언식에 참여했다.

코오롱인더스트리 FnC 부문의 남성 캐주얼 브랜드 '시리즈'는 상생의 의미를 담은 사회공헌활동 중 하나로 '웜트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 웜트 캠페인은 국내외 예술가들과 작업을 협업해 상품을 출시한다. 코오롱글로벌은 협력사 협의회인 '보람회'를 20년 가까이 운영하고 있다.

### 알뜰 배·보조개 사과 2500톤 매입 '농가 돕기'



최장기 장마와 연이은 태풍 영향으로 비상이 걸린 농가를 돕고, 시세가 급등한 과일을 안정적인 가격에 공급하기 위해 이마트가 나섰다.

이마트는 신선도와 당도는 일반 상품과 동일하지만 모양이 고르지 않고 작은 흠집이 있어 '못난이'라고 불리는 '알뜰 배'와 '보조개 사과'를 10일부터 판매하고 있다.

이마트가 판매하는 못난이 과일은 배는 11박스, 사과는 13박스 이상으로 비교과 당도 선별을 거쳐 준비했기 때문에 당도는 일반 상품과 동일한 수준이다.

알뜰 배는 남부지방에 위치해 비교적 빨리 출하되는 전주 지역의 신고배로 이마트에서 판매하는 햇배 일반 상품과 대비해서 약 50% 저렴한 수준으로 판매한다.



이마트는 올해 보조개 사과와 알뜰 배 물량을 2500톤 매입해 농가 돕기에 나서고 있다.

보조개 사과는 경북 안동 및 충남 예산 지역의 흥로 품종 사과로 이마트에서 판매하는 햇사과 대비 약 25% 저렴한 가격이다. 작년보다 보조개 사과와 알뜰 배 매입에 적극 앞장서고 이마트는 올해 전년대비 50%이상 늘린 2500톤 물량을 매입할 계획이다.

### 노사화합 상생문화 바탕 27년째 '무파업'



동국제강은 노사화합과 상생의 문화를 바탕으로 위기 극복의 바람직한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걸프전 이후 국제유가 급등 등으로 산업계 불확실성이 컸던 1994년 산업계 최초 '항구적 무파업 선언'으로 노사화합의 새로운 이정표를 세운 이래 '무교섭 임금협상' 및 항구적 무파업을 27년째 유지 중이다. 회사 측은 노조에 보답하는 차원으로 사원 아파트를 세우고 근로자들을 이주시키는 등 복지 향상에 나서기도 했다.

2013년 동국제강 노조는 그해 철강 업계 최초로 임금협상을 회사에 위임하기도 했다. 회사 측도 고용안정과 실질 임금 방지 대책 등을 마련하는 것으로 화답했다. 항구적 무파업 선언 20주년을 맞이했던 2014년에는 철강업계 최초 통상임금 관련 임금체계



장세욱(오른쪽) 동국제강 부회장과 박상규 노조위원장이 6월 2020년 단체협약을 체결했다.

개편에 합의하기도 했다. 이후 유니온스틸을 흡수 합병하며 노조 통합이 이뤄진 2015년 노조는 '노사상생협력 공동 선언식'을 열고 임금 및 특별단체협약을 회사에 위임했다. 올해도 코로나19 확산 속에서 지난 6월 일찌감치 단체협약 교섭을 마무리했다.

**BIG BANG**® Class가 다른 상위 0.1%를 위한 브랜드 - 뱅

고반발 클럽 설계 기술과 경량화 기술은 이미 타사와 **초격차의 기술 우위** 에서 발전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1st Shot 세계 최고 고반발 드라이버 + 2nd Shot 세계 최고 고반발 우드 + 3rd Shot 세계 유일한 고반발 아이언 = 100yd 증가

PAR 5 3rd shot 까지 합계

# 뱅크골프클럽으로 100yd 더나가도록 세계적인 프로들이 도와드립니다!

클럽구매 선택에서부터 클럽스펙수정, 필드 레슨까지

최대의 비거리를 나가게 하기 위해서는 그 골퍼에게 **최적화된 스펙의 클럽**이 필요합니다

레슨실력과 첨단 과학적 프로그램으로 스윙분석을 잘하는 능력뿐만 아니라

**골프 클럽 지식까지 겸비한 세계 BEST 100프로**가 클럽을 만들어 드립니다

김주미 (LPGA 1승, KLPGA 3승, KLPGA대상/최우수선수상/신인상/최저타수상 4관왕, JTBC골프, SBS골프 방송), 김혜윤(KLPGA 5승, SBS골프아카데미방송, KLPGA K10클럽 수상), 박소영 (KLPGA 3승, 국가대표 코치), 송보배 (LPGA1승, JLPGA 2승, KLPGA 5승, LET 1승, KLPGA대상/상금왕/신인상/최저타수상 4관왕, JTBC골프 방송), 송경서 (JTBC골프 해설위원/라이브레슨 방송), 양제윤 (KLPGA 2승, KLPGA 대상), 이병윤 (JTBC골프 라이브레슨, 수원여대 골프교수), 이지영 (LPGA 1승, KLPGA 2승), 이현 (JTBC골프 라이브레슨, 경찰대/경성대 골프교수), 염동훈 (KPGA 최우수지도자상, 주니어선수/투어프로 코치 선호도1위), 장활영 (SBS골프/JTBC골프 중계, 한국골프대/가천대 골프교수), 조영란 (KLPGA 2승), 최우리 (KLPGA 1승, KLPGA 최우수선수상, SBS골프/MBC 방송), 허석호 (KPGA 2승, JGTO 8승, KPGA대상, 골프다이제스트 선정 베스트 교습가 1위, SBS골프아카데미 방송), 문현희 (KLPGA 2승, 인하대 스포츠심리학 박사수료, SBS골프 및 JTBC레슨 방송), 이정연 (KLPGA 1승, KLPGA 신인상, 우수선수상, 한국골프대학 교수, SBS골프 레슨방송, LPGA 9H 최저타수 28타), 이승호 (KPGA 6승, JGTO 신인상), 김나리 (JLPGA 2승), 신준 (미 PGA Certified Professional, JTBC골프 레슨 방송, JTBC골프 해설위원)



세계 어느 기업도 도전하지 않고 따라 하기도 힘든  
최적화 기술을 실현 시키고 있습니다

- 드라이버를 100m밖에 못 보내는 분도 쉽게 스윙 할 수 있는 타사 대비 30% 더 가벼운 무게의 클럽부터 400m장타자가 사용하는 무거운 클럽까지
- 아주 부드러운 R6강도의 샤프트로 된 클럽부터 3X강도의 강한 샤프트로 된 클럽까지

999,000가지 스펙중에서 사용자에게 최적화된 클럽을  
PGA 정상급 프로가 사용하는 클럽을 제작해주는 시스템 그 이상으로 VIP 고객의 클럽을 만들어 드립니다

최적화된 뱅골프 클럽으로 100대 프로의 필드 레슨 신청 접수중 | 국내 최고 수준의 실력있는 프로 피터, 골프 클럽 전문가 모집중

**BIG BANG**®

(주)뱅크골프코리아

대표전화 1544-8070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야탑로 26 한국골프회관 1층

www.bangolf.co.kr



# “檢시절 기소유에 ‘와우해커’들 지금 보안산업 이끌어”

### ‘디지털 법률 전문’ 구태언 법무법인 린 테크앤로 부문장

#### 국내 클라우드 산업 규제로 외국기업들만 활개 ‘정부의 실패’ ‘스타트업 혁신 지원’ 4차 산업혁명 시대 걸맞은 역할 정립을

“한국처럼 규제가 강한 나라에서는 기업이 자유롭게 활동하기 어렵다. 국민에게 사랑받는 기업을 정부가 개입해서 죽이는 게 우리나라다.”

독설에 가까운 말을 거침없이 내뱉었다. 정내미가 떨어진 듯 보였다. 정보통신(IT)과 디지털 법률 문제 전문 변호사로 꼽히는 구태언(사진) 법무법인 린 테크앤로(TEK&LAW) 부문장의 이야기다.

구 변호사는 국내 첨단산업 발전을 위해 무엇보다 규제개혁이 시급하다는 문제의식을 강하게 드러냈다. 구 변호사는 검사 시절부터 IT 전문 법조인으로 손에 꼽혔다. 검찰 재직 당시 구 변호사는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부에서 IT 범죄를 수사했다.

그는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가 인

지 수사한 뒤 검찰에 송치한 ‘와우해커 사건’에서 18명의 젊은 해커 전원을 기소유에 처분했다”며 “이들 중 다수가 현재 중견 정보보호 인플루언서로 성장해 대한민국의 보안산업을 이끌고 있다”고 말했다.

와우해커 사건은 2003년 해킹 기술을 연구하는 국내 최대 커뮤니티 ‘와우해커’ 회원들이 국내 사이트의 보안 취약점을 확인하기 위해 공식적인 절차 없이 해킹을 진행해 이슈가 됐다. 당시 이들은 H대학 등 14개 사이트와 S대학 수능시험합격자 명단 등을 해킹했다.

검찰에서 사이버범죄 수사를 담당하던 구 변호사는 인사 발령으로 더는 IT 범죄를 다루지 못하자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로 새로운 인생을 시작했다. 이후 2012년 테크앤로 법률사무소를 차려 스타트업



및 기술개발 분야 법률 자문을 진행하고 있다.

구 변호사는 스타트업에 남다른 애정을 품고 있다. 그는 “스타트업은 미래 경제를 이끌 ‘아기 대기업’이다. 시대에 맞는 혁신적인 스타트업이 잘 크도록 모두 도와야 한다”며 “타다 금지법으로 적법하게 사업

을 하던 기업을 국회가 법을 바꿔 하루아침에 문을 닫게 했다”고 쓴소리를 했다.

구 변호사는 혁신 기업이 꺾이는 모습을 보면서 ‘규제개혁 당당하게’라는 시민단체를 창립했다. ‘규제개혁 당당하게’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정부의 역할과 기능을 시대에 맞게 새로 쓰는 데 도움을 주는 것이 목표다.

구 변호사는 “우리나라는 아직도 정부가 국민을 지배한다”며 “공권력에 도전한다”는 말이 여전히 나오는 것이 이를 입증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의 인식 전환 없이 혁신기업이 창의적인 실험을 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그는 정부 규제로 성장하지 못하고 있는 클라우드 산업을 예로 들었다. 구 변호사는 “정부가 금융·의료 산업 부문에서 클라우드를 쓰지 못하게 하는 사이 아마존 AWS, 마이크로소프트 Azure, 구글 cloud 등이 서비스를 고도화해 우리 시장을 장악했다”며 “우리나라 클라우드 산업의 실패는 정부의 실패”라고 주장했다.

김종용 기자 deep@

### “미국 쇠퇴”라는 충격적 변화 전세계가 5년안에 직면할 것”

#### ‘헤지펀드 대부’ 달리오

‘헤지펀드 대부’로 불리는 세계 최대 헤지펀드 브리지워터어소시에츠의 레이 달리오(사진) 설립자가 앞으로 5년 안에 전 세계에 미국의 쇠퇴라는 충격적 변화가 일어날 것이라고 예언했다.



달리오는 17일(현지시간) 미국 금융전문매체 마켓워치와의 인터뷰에서 미국 번영을 이끌었던 자본주의 시스템이 효과적으로 작동하지 않고 있으며 미국은 대규모 부채와 빈부 격차, 중국의 부상이라는 3가지 큰 문제를 안고 있다며 이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면 미국은 몰락할 것이라고 경종을 울렸다.

그는 “지난 수십 년간 미국의 경쟁우위가 약화된 것은 사실”이라며 “미국은 다른 국가에 비해 교육에 대한 강점을 많이 잃었으며 글로벌 국내총생산(GDP)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줄어들었고 빈부 격차 확대도 정치·경제·사회적 양극화도 심화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그러면서 중국의 부상이 아직 미국이 경쟁우위를 지닌 혁신과 기술 분야를 위협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지금과 같은 속도로 중국이 움직인다면 언젠가는 미국을 능가할 것이라는 예상이었다. 군사적으로도 미국이 더 강하지만, 중국 역시 강하며 대만과 다른 분쟁지역 등 중국과 가까운 해역에서는 미국보다 더 강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달러 기축통화 지위도 지금처럼 중앙은행이 돈을 찍어내서 빚을 늘려간다면 문제가 생길 것”이라고 말했다. 이런 막대한 부채와 무한정 돈을 찍어내는 행태, 교육의 쇠퇴, 내부 빈부 격차에 따른 갈등과 경쟁국의 부상은 네덜란드와 영국 등 제국의 쇠퇴로 이어졌다는 것을 역사가 보여준다는 것이 달리오의 통찰이다.

달리오는 사람의 삶에 빗대 “미국은 75살 된 제국이며 쇠퇴 조짐을 보이고 있다”며 “수명을 연장하고 싶다면 할 수 있지만 하기 싫은 일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자본주의가 고장났는가’라는 질문에 달리오는 “고장나지는 않았지만 고쳐야 할 문제가 있다”며 “자본주의는 인센티브와 혁신을 창출하고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자원을 배분하는 멋진 방법으로, 모든 성공한 나라가 이 시스템을 사용했다. 그러나 또 기회의 격차를 만들어내는 커다란 빈부 격차를 생산했다”고 답했다.

달리오는 “자본주의 시스템이 경제 파이의 크기를 늘리는 데 능하지만, 나누는 것에는 서툴다”며 “다 함께 생산적이여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교육처럼 동등한 기회를 창출할 수 있는 좋은 투자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배준호 기자 baejh94@

## 삼성전자, 알츠하이머 극복 연구자 지원 팔 걷었다

#### 오늘 ‘세계 알츠하이머의 날’ 영상 공개... 기초연구 15개 지원

정원석 KAIST 생명과학과 교수는 삼성미래기술육성사업 지원을 받아 ‘수면과 노화에서 뇌의 항상성을 조절하는 새로운 메커니즘’을 연구하고 있다. 정 교수의 연구는 뇌에서 면역 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교세포들이 시냅스의 숫자가 유지되도록 조절하는 기능을 밝히고, 또 시냅스가 과도하게 제거되는 현상을 어떻게 방지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것이다. 이러한 기능이 수면과 노화에 따라 변화하는 현상을 연구해 뇌의 항상성을 조절하는 메커니즘을 밝히고 이를 통해 뇌 노화 억제와 알츠하이머와 같은 질환을 예방·치료하는 데 새로운

방법을 제시할 것으로 기대된다.

삼성전자가 ‘세계 알츠하이머의 날(9월 21일)’을 앞두고 삼성미래기술육성사업 지원을 받아 알츠하이머 극복을 위해 노력하는 연구자들을 소개하는 영상을 20일 ‘삼성전자 뉴스룸’에 공개했다.

삼성전자는 삼성미래기술육성사업을 통해 알츠하이머 진단·치료 관련 다양한 기초 연구를 지원하고 있다.

현재까지 뇌 손상 치료·뇌영상MRI·뇌 영상유전학과 같은 뇌신경질환 분야와 뇌 항상성·뇌기억·뇌신경회로와 같은 뇌연구 분야 등 알츠하이머 극복에 기여할 수 있



는 기초 연구를 15개 지원했다.

△정원석(왼쪽 사진부터) 교수의 ‘수면과 노화에서 뇌의 항상성을 조절하는 새로운 메커니즘’을 비롯해 △박성홍 KAIST 바이오 및 뇌공학과 교수의 ‘새로운 뇌 영상화 기법(Modality)-Neuronal Resonance MRI’ △정호성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교수의 ‘퇴화 저항성 축삭의 RNA 오페론’ △박해운 서울대학교 물리천문학부 교수의 ‘살아있는 뇌 안의 기억 흔적 영상 기술’ 연구 등을 지원하고 있

다. 삼성미래기술육성사업은 우리나라 미래를 책임지는 과학 기술 육성을 목표로 2013년부터 1조5000억 원을 출연해 시행하고 있는 연구 지원 공익사업이다. 지금까지 603개 과제에 7729억 원을 집행했으며, 국제학술지에 총 1246건의 논문이 게재되는 등 활발한 성과를 보이고 있다. 이중 네이처(3건), 사이언스(5건) 등 최상위 국제학술지에 소개된 논문도 97건에 달한다. 권태성 기자 tskwon@

## 송유중 前 기계전자시험연구원장 석유화학협회 상근부회장에 선임

한국석유화학협회는 송유중 전 한국기계전자시험연구원장을 상근부회장으로 선임했다고 19일 밝혔다.



송 부회장은 전남대 행정학과를 졸업하고 1984년 행정고시 28회로 공직에 입문해 정보통신부 혁신기획관, 재정기획관, 전파방송기획단장, 중소기업청 기획조정관, 지식경제부 에너지 절약추진단장,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자원정책관, 감사관 등을 지냈다.

신임 송 부회장은 취임사에서 “대한민국의 주력 기간산업인 국내 석유화학산업의 고부가가치화와 환경안전 이슈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안경무 기자 noglasses@

## 허창수 “미래지향적 한·일 관계... 민간 차원 경제협력 강화”

(전경련 회장)

#### 스가 日 총리 취임 축하 서한

허창수(사진) 전국경제인연합회장이 16일 제99대 일본 내각총리대신으로 취임한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신임 총리에게 축하 서한을 발송했다.

20일 전경련에 따르면 허 회장은 서한을 통해 “일본을 포함한 전 세계가 코로나19로 경제 위기를 겪고 있지만, 신임 스가 총리가 그간 여러 분야에서 쌓아온 경험과 연륜을 바탕으로 일본을 둘러싼 내외의 어려움을 극복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나아가 기업인 입국제한 해제, 교역·투자 확대를 위한 신임 총리의 노력을 요청했다.

허 회장은 한일관계와 관련해 “과거사를 둘러싼 견해차로 한일관계가 원활하지 않

고 올해 코로나19 확산으로 상호 인적 교류가 막혀 더 멀어졌지만, 신임 총리 취임을 계기로 한일관계가 미래지향적으로 발전하기 바란다”고 희망했다. 이어 “상호 입국제한이 풀려 고통받는 양국 기업인의 왕래가 원활해지기 바라며 양국 교역·투자가 확대될 수 있도록 신임 총리가 더욱 노력해 주기를

희망한다”고 요청했다. 허 회장은 전경련 역시 민간 차원에서 경제협력 강화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전경련은 1983년 11월 일본 경단련과 회장단을 중심으로 제1회 회의를 개최한 이후 작년까지 교차 방문 형식으로 총 28회 행사를 열었다. 올해 개최할 예정이던 제29회 회의는 코로나19 영향으로 연기돼 내년 서울에서 열릴 예정이다.

김유진 기자 eugene@

## 인사

◆교육부 ◇일반직 고위공무원 전보 △교육부(국외훈련 파견 예정) 김진홍 ◇부이사관 전보 △교육부(유네스코 고용 휴직) 김홍순 ◇서기관 신규 임용 △양성평등정책담당관 장인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장급 전보 △우주기술과장 황성훈 △공공에너지조정과장 윤성훈 △과학기술정보과장 김영은 ◆행정안전부 ◇과장급 승진 △혁신도시

발전추진단 지원국장 신용식 △과거사관련 업무지원단장 홍종완 ◇과장급 전보 △주미 대사관 공사참사관 김영수 ◇과장급 전보 △안전제도과장 박형배 △사회재난대응정책과장 이형석 △지역사회혁신정책과장 박순영

◆고용노동부 ◇실장급 전보 △기획조정실장 박성희 ◆금융위원회 ◇부이사관 승진 △감사담당관 김대현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친환경안전본부장 김종환

## 부음

#### 경부고속철-인천공항 만든 임인택 前장관

경부고속철도와 인천국제공항을 만들고 한국항공우주산업 초대 사장을 지낸 임인택 전 건설교통부 장관이 20일 오전 4시 10분께 숙환으로 별세했다. 향년 80세.

임 전 장관은 전남 순천에서 태어나 순천고와 서울대 법대를 나왔고, 1962년 제13회 고등고시 행정과에 합격한 뒤 주로 상공부에서 잔뼈가 굵었다. 공업진흥청장, 상공부 차관(1988)을 거쳐 교통부 장관(1990~1992)을 지냈고, 초대 한국항공우주산업 대표이사 사장(1999~2001), 건설교통부장관(2001~2003)을



지냈다. 교통부 장관 때 경부고속철도 기본노선을 선정하고, 한국고속철도건설공단을 출범시켰다. 인천국제공항 건설 계획을 만들 때도 관여했고, 건교부 장관 시절에는 2단계 건설사업을 계획했다.

유족은 부인 박경희 씨와 슬하에 딸 임효진·임남희(MBC 콘텐츠협력센터장), 아들 임경목(CJ 전략기획팀장·부사장)·임태훈(개인 사업) 씨를 뒀고, 사위는 강기원(제일경제회원의원 대표회장)·김훈(넥스토리 대표) 씨, 며느리 최운선·이정은 씨가 있다. 빈소는 서울대병원 장례식장 2호실에 마련됐고, 발인은 22일 오전 8시, 장지는 시안가족공원이다. 02-2072-2011

▲서인성 씨 별세, 최영(광주은행 부행장) 씨 장인상 = 20일, 광주 금호장례식장

301호실, 발인 22일 오전 8시, 062-227-4000

▲민웅기 씨 별세, 허완(CNB미디어 전무이사) 씨 장인상 = 20일, 일산 동국대학교 교병원 장례식장 19호실, 발인 22일 오전 11시, 031-961-9400

▲박은득 씨 별세, 윤병준(인천지검 외사범죄형사부장) 씨 모친상 = 20일, 예산 종합병원 장례식장 목련실, 발인 22일 오전 7시, 041-331-4444

▲정남희 씨 별세, 장정주 씨 부인상, 장성희·성애·영희·남영·윤선(전 오마이뉴스 기자) 씨 모친상, 정진철(진호라인 대표)·상승원(대륜디앤에이 전무)·곽문규(사업)·임정희(한국철도공사 기관사)·정인환(한겨레신문 기자) 씨 장모상 = 19일, 의정부 추병원, 발인 21일 오전 11시, 031-844-4442

### 곽재원의 4차 산업혁명



가천대 교수  
전 경기과학기술진흥원장

세계 각국은 코로나19 백신과 함께 코로나 항체 의약품 개발에도 급피치를 올리고 있다. 어중간한 위치에 있는 한국은 이러한 '백신 내셔널리즘'을 넘어설 수 있는 새로운 백신 개발을 가속화하면서 백신 확보를 서둘러야 한다. 아울러 일본처럼 백신 보급이 늦어질 수 있다는 것을 전제로 감염 위험을 줄일 수 있는 대책으로서의 '플랜B'도 준비해야 한다.

와프(Warp)와 스푸트니크(Sputnik). 의학계에선 미국과 러시아의 코로나19 백신 개발 경쟁을 이렇게 표현한다. 러시아 정부가 공식적인 수순을 건너뛰어 조기에 승인한 '스푸트니크 V' 백신은 러시아가 세계 최초로 발사한 인공위성의 이름에서 따왔다. 반면 미국 정부는 스피드를 강조한 '와프'란 이름의 백신 개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와프는 공상과학(SF) 영화 팬들에게는 잘 알려진 스타트렉에 등장하는 초광속(超光速)의 우주항법이다. 누가 빨리 가느냐, 누가 빨리 실용화하느냐의 경쟁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는 것이다.

1957년 10월 4일 '스푸트니크 1호'로 옛 소련이 세계 첫 인공위성 발사에 성공했을 때 미국 언론과 과학자들은 '파멸적 패배', '과학기술의 진주만 공격'이라고 탄식했다. 미국의 과학기술 수준을 자부해온 미국인들이 당시 겪은 충격을 '스푸트니크 쇼크'라고 부른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지난달 11일 과거 소련의 승리를 재현하여 러시아 국민들의 위신을 세워주려는 정치적 계산 아래 신종 바이러스 백신이 완성됐다고 발표했다. 백신 '스푸트니크 V'는

대통령의 딸도 접종했다고 보도됐다. 이 또한 예카테리나 2세가 1768년 천연두 백신 접종을 스스로 지원한 영웅담을 상기시키려는 의도가 담겨있는 듯하다. 일부 국내의 전문가들은 푸틴 대통령이 정치적 계산과 국위 선양을 국민의 안전보다 우선시하고 있지 않은가 하는 의문을 제기한다. 이러한 부작용 우려에도 불구하고 이미 20개국 이상이 러시아 백신 구입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한다. 러시아가 '스푸트니크 V'를 한국에서 생산하기 위한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는 사실도 지난주 알려졌다. 국내 2개 제약회사가 정부의 승인을 마치면 이르면 11월부터 백신 생산을 시작할 수 있다는 보도도 나왔다.

러시아에 질세라 미국 트럼프 대통령도 11월 3일 대통령 선거 전에 백신을 완성하겠다고 선언했다. 제2의 스푸트니크 쇼크는 없을 것이라는 미국 의학계와 과학계의 결의도 강하다. 미국과 유럽의 코로나19 백신개발은 현재 임상시험 마지막에 해당하는 3단계에 와 있다.

중국도 미국과 러시아 이상으로 백신 개발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시진핑 국가

주석은 5월 세계보건기구(WHO) 연차총회 연설에서 "중국에서 개발된 백신은 세계의 공공재"라고 천명했다. 중국은 이미 9개의 백신 후보에 대해 임상시험을 진행해 이 중 5개 제품이 최종 임상단계에 들어갔다고 한다. 이 2개 회사는 연간 1억~2억 회분의 백신 생산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은 브라질, 인도네시아, 파키스탄, 러시아, 필리핀에 백신 우선 공급을 제안하고 있다.

러시아의 미하일 골진 주일대사는 최근 일본 관청과 정가를 돌며 백신 세일즈 외교에 바쁘다는 소식도 들린다. 중국 왕이 외교부장도 말레이시아-인도네시아 외무장관과 전화를 통해 백신 개발 협력을 약속했다고 한다.

백신을 개발하고 있는 제약회사들로부터 조기에 백신을 특별히 구입할 수 있는 자격을 얻으려는 국가 간 경쟁도 치열하다. 백신 선진국들이 후발 개도국에도 배분한다고 하지만, 자국민을 우선 접종하고 그다음에 특별구입 계약 국가에 제공하기 때문에 개도국은 백신 혜택을 누리기 어려운 구조다. 이것이 바로 백신 선진국들이

펼치는 자국 우선주의의 '백신 내셔널리즘'이다.

국제구호단체인 옥스팜은 최근 미국과 영국, 일본 등 일부 선진국들이 코로나19 백신 예상 공급량의 절반을 이미 확보했다고 밝혔다. 옥스팜은 임상 3단계의 코로나19 백신 후보 5종에 대한 계약 내용을 분석한 결과 53억 회분의 계약 물량 중 27억 회분을 미국, 영국, 호주, 홍콩, 마카오, 일본, 스위스, 이스라엘, 유럽연합(EU) 등 선진국이 확보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는 전 세계 인구의 13%가 백신 예상 공급량의 51%를 사들인 셈이다. 현재의 전망으로는 전 세계 모든 사람이 백신을 접종하기까지 4~5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세계 각국은 코로나19 백신과 함께 코로나 항체 의약품 개발에도 급피치를 올리고 있다. 어중간한 위치에 있는 한국은 이러한 '백신 내셔널리즘'을 넘어설 수 있는 새로운 백신 개발을 가속화하면서 백신 확보를 서둘러야 한다. 아울러 일본처럼 백신 보급이 늦어질 수 있다는 것을 전제로 감염 위험을 줄일 수 있는 대책으로서의 '플랜B'도 준비해야 한다.

### CEO 칼럼



최민성  
델코리얼티그룹 회장

## 자생능력 키우는 지역균형발전으로

국가통계포털에 의하면 우리나라 전체 인구 대비 수도권 인구의 비중은 2019년 기준 50.002%로 비수도권 인구를 넘어섰다. 충남, 세종, 제주, 충북을 제외한 모든 비수도권 지역에서 수도권으로 인구가 유입되고 있다. 특히 대학생과 취업연령인 20대의 비중이 78.9%(7만5593명)로 가장 많다.

고도성장기에 지역내총생산(GRDP) 성장이 높았던 지역은 대부분 성장 속도가 둔화됐다. 저성장기에 접어들면서 대규모 제조산업이 위치한 지역은 국제 경쟁력 하락과 함께 생산액도 줄고 있다. 그러면서 비수도권 내에서의 지역 간 상대적 성장률 불균형도 커지고 있다.

이제는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이분법적 지역균형 개념을 털어낼 때가 됐다. 오히려 비수도권 내에서의 지역 격차 문제를 해소하는 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 예를 들어, 대외충격이 심각한 조선산업 지역이

나 지속적 쇠퇴지역은 그에 맞는 맞춤형 균형발전이 필요하다.

비수도권이 자립 발전을 하기 위해서는 일정 규모 이상의 경제권을 형성해야 한다. 부·울·경(부산·울산·경남) 광역경제권이 그런 사례다. 동반성장권역을 지정해 시군을 통합하는 경제권을 형성하고, 다시 그 안에서 소득 격차를 줄이는 산업재편을 해야 한다. 기초 공공서비스 공급 대상도 기존의 행정경계를 허물어 소외지역을 없애야 한다.

유럽연합(EU)의 스마트 전문화 전략(RIS3)은 일정 규모의 경제권 지역이 스스로 발전하도록 지원하는 정책이다. 지역 중심의 혁신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장소 기반(place-based) 전략이다. 하나의 특화산업 육성보다는 지역 전체의 산업 융·복합화, 다각화, 장기적 신성장동력을 발굴해 스마트 전문화(빅데이터, 순환경제, 첨단 제조, 사이버 보안 등)로 혁신시키고, 새로운 지역 성장경로로 창출을 꾀하고 있다.

RIS3 사례를 보자. 핀란드 헬싱키 등 6

개 도시는 공동으로 민간, R&D와 파트너십을 맺고, 정책과 재원을 묶어 시너지 효과를 내고 있다. 개방형 혁신 플랫폼, 데이터 개방, 개방적 참여에 우선순위를 두고, 관련 사업으로 스마트 모빌리티, 테스트베드, 게임과 학습, 건강과 웰빙, 도시 데이터 모델링, 교육 등 영역에서 30개 프로젝트를 실행하고 있다. 데이터를 개방하면서 상품의 상업화가 확대되고 있다.

프랑스의 샤토르 발 드 루아르 지역은 쇠퇴한 지역경제를 극복하기 위해, 지역 산업의 구조적 전환을 진행하고, 중소기업 역량을 강화하고 있다. EC로부터 받은 6000만 유로를 노동자 기술 향상을 위한 평생학습 기금으로 조성하고, 산업재편 과정에서 2500개 중소기업의 니즈를 평가해 연구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오를레앙 대학은 기업의 니즈 맵핑, 평생학습 통합프로그램을 마련하고, 바이오 연구소는 제약, 화장품, 바이오프로젝트 연구와 훈련을 담당하고 있다. 은행, 대학 등 350개 이해관계 기관은 중소기업의 혁신사업

을 지원하고 있다.

우리 정부도 '스마트특성화 기반구축 사업'과 '산업단지 대개조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은 EU의 스마트 전문화 전략에는 크게 못 미친다. 우리도 선진 노하우를 시스템으로 담아내고 선도하는 능력이 시급하기에, 실행 가능한 민간 파트너십 구성이 절실하다.

지역별 자생능력은 더욱 부족하기에, 지역 스스로 발전과제의 우선순위를 도출하는 자생체계가 갖춰야 한다. 지역 주체로는 지자체, 산업 전문가, 스마트 혁신기관, 대학, 기업 등이 참여하여, 지역 내 산업개편, 우선순위 조정, 스마트화 등을 추진해야 한다. 비수도권의 인구 균형을 위해 해외 이민도 유입해야 한다. EU도 출생률이 낮아 매년 이민을 받아들인다. 그러면서 일자리 제공으로 이민자를 지역별로 분산 정착시켜, 생산인구 확보와 소비시장을 확대하고 있다.

우리의 지역균형발전 정책도 한 차원 높아져야 그 실행 가능성이 올라간다.

### 이투데이, 말투데이

☆ 스티븐 킹 명언  
"지옥으로 가는 길은 부사로 포장되어 있다."

미국 작가. 첫 장편 '캐리' 이후 500여 편의 작품 중 70편 넘게 영화화되어 원작자가 장 많이 영화화된 작가로 기네스북에 올랐다. 주요 작품은 '미저리' '그린 마일' '쇼생크 탈출' 등. 오늘 그는 태어났다. 1947~.

☆ 고사성어 / 아비규환(阿鼻叫喚)  
차마 눈뜨고 보지 못할 참상이라는 말. 모두 범어에서 유래된 아비와 규환이 합쳐진 말. '아비'는 8대 지옥 중 가장 아래 지옥으로 '잠시도 고통이 쉬 날이 없다'고 해 무간지옥(無間地獄)이라고도 한다. '규환'은 8대 지옥 중 4번째 지옥. 전생에 살생·질투·절도·음탕·음주를 한 자들이 떨어진다. 물 끓는 가마솥에 빠지거나 불 타오르는 쇠로 된 방에 들어가 열기의 고통을 받는다. 출전 열반경(涅槃經).

☆ 시사상식 / 빅 배스(big bath) 회계  
누적 손실, 잠재 손실을 한번에 장부에 반영하는 회계기법. 교체된 경영진이 이전 경영자 재임기간의 잠재 손실을 떠안을 경우 책임 소재가 불분명해질 수 있으므로 이를 방지하려고 주로 쓴다. 새 경영진은 실적 부진 책임에서 벗어날 수 있고, 손실이 제거된 기저효과로 다음 해 실적을 더 크게 부각시킬 수 있는 효과도 누릴 수 있다.

☆ 우리말 유래 / 약 오르다  
'화가 나다'라는 뜻. 원래는 고추, 담배 등 자극성 약초가 잘 성숙되어 독특한 자극성 성분이 생기는 것을 말하던 것이 점차 뜻이 확대되었다.

☆ 유머 / 진짜 귀한 손님  
군수가 귀한 손님을 접대하려고 간 고깃집에서 "제일 맛있는 고기로 주시오"라고 했다. 고기가 나오자 군수가 "저번 거랑 다르네. 순 기름당어리잖아요?"라며 따졌다. 종업원이 "군수님, 이놈의 소가 운동을 안 했나 보네요"라고 하자, 손님이 웃으며 한 말. "괜찮아요. 먹고 나서 제가 운동할게요."  
채집/정리: 조성권 국민대 경영대학원 객원교수, 맛있는 삶 연구소장

국내 공모주 시장을 뜨겁게 달군 카카오 게임즈가 '개미'의 무덤으로 바뀐 것은 순식간이었다. 10일 상장 첫날 '따상'(시초가가 공모가의 두 배로 형성된 뒤 상한가 기록) 이후 11일 다시 상한가를 치면서 청약 증거금으로 53조 원이 모인 저력을 확인하는 듯 했다. 하지만 주말 지나 14일부터 18일까지 카카오게임즈 주가는 5거래일 연속 내리며 27.9% 급락했다. 이 기간 개인투자자는 카카오게임즈를 3722억 원 어치 순매수했다. 매수 평균가 대비 21% 손실이 추정되는 상황이다. 단순 계산하면 740억 원가량 손해를 본 것이다.  
이는 전문가들의 견해를 무시하고 개미들이 '배짱'을 부린 결과다. 증권가에서는 카카오게임즈의 적정 주가를 3만~4만 원

### 기자수첩



이신철 자본시장부/camus16@

### 개미의 '배짱'

대로 제시해왔다. 현재 주가가 8만 원대 고점에서 6만 원대로 내려앉았지만 여전히 전문가들이 추정했던 적정 주가보다 높은 상태다. 이 상황에서도 주가가 다시 올라설 것으로 기대한 개인 투자자들은 연일 '사자' 행진이다.

코로나19로 인한 3월 대폭락 이후에도

지수가 연고점을 경신하는 급등세를 보이자 개인들의 눈높이가 높아졌다. 초저금리 시대 3~5% 수익률에도 감지덕지하던 개인들이 웬만한 수익률에는 눈길도 주지 않게 된 것이다. 최근 증권사들로부터 연 7~9%대 금리로 빚내서 투자에 열 올리는 이유도 이보다 더 큰 수익률을 단기간에 뽑아낼 수

있다는 자신감 때문이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17일 신용거래용자 잔고는 17조 9023억 원으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개미의 관심사가 변동성이 큰 종목들에 쏠려 있다 보니 안정적 배당주는 그 어느 때보다 찬밥 신세가 되고 있다. 일례로 배당주인 제일알루미늄글로벌리스의 경우 공모가를 하회하는 주가로 인해 목표 배당수익률이 9%에 육박하고 있다. 증권가는 성장주의 가격 부담과 11월 미국 대선 불확실성 등으로 시장의 변동성이 커질 것을 우려한다.

'개미와 배짱'의 우화 속 개미처럼 겨울을 나기 위해 내실 있는 곳간을 채울 때다. 변동성 장세에선 '배짱'을 부리기보다는 다양한 포트폴리오로 위험관리에 나설 필요가 있다.

# 복비가 기가 막혀

복비(福費). 부동산을 소개하고 거래를 성사토록 한 대가로 소비자가 중개사에게 주는 돈이다. 이사하는 새 집과 더불어 집 안에 복을 불러온다고 해서 복비로 불렸다. 그래서 되도록 후하게 쳐주려고 했다.

그랬던 복비가 요즘 부동산 거래 당사자들에게 지탄과 원망의 대상이 되고 있다. 너무 비싸졌기 때문이다. 부동산 정보를 공유하는 온라인 카페에선 “복비 무서워 집 거래 못하겠다”, “중개업소가 별다른 노력 없이 비싼 복비를 챙겨간다”는 등의 글들을 심심찮게 볼 수 있다. 얼마 전에는 복비로 불리는 중개수수료(법정 용어는 ‘중개보수’) 인하를 요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까지 올라왔다.

이 모든 게 중개수수료를 결정하는 요율(料率)이 집값에 연동하도록 설계돼 있다 보니 생긴 일이다. 우리나라 중개수수료는 거래 가격에 상한요율을 곱해 산정한다. 상한요율은 거래 금액에 따라 달리 적용된다. 한마디로 중개수수료 산정 체계가 집값이 오르면 수수료도 덩달아 뛰는 구조로 짜여졌다는 얘기다.

문제는 집값이 비쌀수록 중개보수 요율도 높아져서 수수료 상한액이 경종 뚝다는 것이다. 지역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서울의 경우 집값이 9억 원 미만일 땐 중개수수료 상한요율은 0.5%이지만, 9억 원 이상일 땐 0.9% 이내로 크게 높아진다. 가령 8억9000만 원짜리 집을 살 때는 수수료가 최대 445만 원(0.5% 적용)이지만 9억 원일 경우 최대 810만 원(0.9% 적용)을 복비로 내야 한다. 집값이 1000만

## 데스크칼럼

조철현

부국장 겸 부동산부장



원만 비싸져도 수수료가 두 배 가까이 불어나는 것이다. 더욱이 기존 집을 팔고 다른 집으로 옮길 경우 복비 부담은 2배로 늘어난다. 집을 사고팔 때 모두 중개수수료를 내야 하기 때문이다. 그야말로 ‘복비 폭탄’이다.

현행 중개수수료 체계로 개정된 2015년만 해도 9억 원이 넘는 집을 고가주택으로 분류해 최고 요율(0.9%)을 적용하는 것은 수긍할 만했다. 당시엔 9억 원이 넘는 집이 그리 많지 않아서다.

하지만 지금은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다. 서울에서 웬만한 집은 매매가가 10억 원이 넘어 ‘9억 원 = 고가’라는 공식이 무너져 버린 것이다. 서울 아파트 중위가격(모든 아파트를 가격순으로 줄 세웠을 때 한가운데 있는 값)은 지난달 기준 9억 2152만 원(KB국민은행 통계)으로 2015년 1월(4억8038만 원)과 비교해 두 배가량 치솟았다. 이로써 서울 전체 아파트(약 170만 채)의 절반 이상이 수수료 최고 요율(0.9%)을 적용받는 고가주택이 돼 버렸다.

부동산 중개 서비스가 나아진 것도 없는데 집값이 올랐다고 비싼 수수료를 내야 한다니 소비자로선 울화통이 터질 노

릇이다. 중개사들도 할 말이 없는 것은 아니다. 집값을 떠운 주체도 아니고 현실적으로 법정 수수료를 다 받기도 어렵다는 입장이다. 중개사 간 경쟁이 워낙 심해 오히려 정해진 요율보다 훨씬 낮은 수수료를 받는 경우가 더 많다는 것이다. 게다가 거래마저 줄어들어 준폐 위기에 몰린 중개업소도 수도북하다고 되레 하소연까지 한다. 그렇더라도 다수의 소비자들이 복비가 비싸다고 생각하면 비싼 것이다.

정부도 제도 개선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아직까지 구체적 방안을 내놓지 않고 있다. 이를 두고 뒷말도 많다. 중개수수료 체계상 고가주택을 상향 조정하면 부동산 정책 실패를 자인하는 꼴이어서 부담을 느낀다는 분석과 함께 내년 서울 시장 보궐선거 앞두고 막강한 정치적 영향력을 지닌 중개업계의 눈치를 보는 것이 아니냐는 시각도 있다. 비싼 주택 거래이니 징벌적 수수료 폭탄을 묵인하고 있다는 얘기도 들린다.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중개수수료 개편은 결코 손쉬운 정책 과제가 아니다. 하지만 이대로 가면 ‘복비 1000만 원 시대’가 고착화할 수 있다. 이를 막기 위해서라도 중개수수료 산정 체계를 현실에 맞게 뜯어고칠 필요가 있다. 집값이 많이 오른 만큼 고가주택에 적용하는 최고구간을 9억 원보다 상향 조정하고 거래 구간별 상한 요율도 낮추는 것을 검토할 만하다.

이래저래 요즘 복비의 현실은 복(福)과는 멀어 보인다. 집을 사고파는 사람들이 중개사에게 복비를 기꺼이 건낼 수 있는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다. choch21@

## 시설

### 아파트 거래절벽에 가격 급등, 시장왜곡 심각

서울 아파트 거래가 얼어붙고 있는 데도 매매·전세가는 계속 치솟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 부동산정보광장에 이달 들어 20일까지 신고된 아파트 매매 건수는 620건(계약일 기준)으로 급감했다. 이번 달에는 아예 ‘거래절벽’이다. 서울시가 2006년 월간 매매동향 집계를 시작한 이래 거래 건수 1000건 이하였던 적은 한 번도 없었다. 부동산 매매시장이 마비된 상태임을 뜻한다.

그럼에도 간간히 성사되는 매매가격은 급등세가 이어지고 있다. 강남권뿐만 아니라 비강남권에서도 신고가 거래가 속출하고 있다. 동작구 흑석동, 광진구 광장동, 마포구 아현동 등에서 전용 59㎡ 아파트가 14억~15억 원대로 거래된 사례가 신고됐다. 전셋값도 따라 오르고 있다. 이들 지역 같은 면적대 전세 시세는 8억 원을 훌쩍 넘고 있다.

거래가 두절되면서 드물게 매매되는 아파트가 비싼 값에 거래되고, 이것이 전세가격을 밀어올려 다시 매매값 상승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이다. 부동산 시장의 정상적인 모습이 아니다. 부동산플랫폼인 KB부동산 리브온의 주간 아파트 가격동향에 따르면, 서울의 매수우위지수가 9월 첫주

96.2로 기준선(100) 아래로 떨어진 이후 지난주 92.1로 더 하락했다. 매수세보다 매도세가 강해 가격이 떨어져야 하지만, 매매가격 지수는 오히려 0.37% 상승했다. 상대적으로 가격이 낮은 노원·강북·은평·도봉·중랑구 등 비강남권 상승률이 0.5% 이상이었다. 정부가 수요를 계속 억누르고 있지만 실수요 거래에 따른 가격 상승을 막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전세거래 비율이 낮아지고 월세를 낀 전세가 늘면서 세입자 부담도가 중하고 있다. 서울 아파트 전세거래 비율은 6월 75.1%에서 7월 72.6%, 8월 71.7%, 9월 70.8%로 하락하고 있다. 반면 전세세비중은 6월 24.1%에서 이달 28.4%로 상승 추세다.

정부가 수도 없이 쏟아낸 전방위의 고강도 부동산 규제 대책이 여전히 먹히지 않고 역효과만 키우고 있음을 드러낸다. 매물을 잠기게 해 거래가 얼어붙었는데, 전셋값이 천정부지로 치솟으면서 매매값을 끌어올리는 양상이다. 시장만 왜곡되고 무주택자의 절망감만 커지고 있다. 다주택자의 취득세·종합부동산세·양도소득세 세율을 대폭 올리는 ‘부동산세금 3법’의 국회 통과,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를 골자로 하는 새 임대차법 시행이 오히려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협하는 결과를 가져오고 있다. 전문가들은 거래절벽과 매매·전세가 상승 현상이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고 있다.

## 김면수의 이슈 만화경



탐사보도팀장

정부는 최근 수도권외의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준3단계(2.5단계)를 14일부터 2단계로 낮췄다. 일각에서는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고 있는 상황을 감안할 때 이번 조치는 선부른 결정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의 이 같은 조치는 2.5단계를 지속적으로 시행할 경우 자영업자들의 피해는 견잡을 수 없이 커지고, 우리 경제 또한 심각한 타격을 입을 수 있다는 것을 간과할 수 없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가 2단계로 하향 조정된 후 수도권 시내는 모처럼 생기가 돌았다. 실제로 낮에는 수많은 인파가 거리를 활보했고, 밤에는 직장인들이 동료들과 술 한잔을 기울이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아이들의 표정도 확연히 달라졌다. 2.5단계를 유지할 때에는 밖에 나가는 것이 쉽지 않았는데 2단계로 하향 조정되자, 놀이터는 하루가 멀다하고 환하게 웃는 아이들로 가득했다.

## 작은 방심과 관심의 차이

이런 모습이 일상이었는데 코로나19로 인해 이제는 이런 일상조차 귀한 시간이 되어 버렸다. 이제는 우리 모두가 잃어버린 일상을 찾는 데 온 힘을 모아야 할 때다. 나 하나쯤이야 하는 생각은 결국 나뿐 아니라 사회 전체에 악영향을 줄 것이고, 어쩌면 이로 인해 일상의 자유를 포기해야 할지도 모른다.

현재로서는 최선의 방역은 마스크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로 하향되자, 일부에서는 코로나19가 종식된 것처럼 마스크 착용을 등한시하고 있는 사례가 적지 않다. 오죽하면 광명시는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 택시를 승차하려는 일부 승객과 운전자 사이에 다툼이 발생하자, ‘마스크 미착용 시 탑승 금지’ 스티커를 모든 택시에 부착하기로 결정했을까.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로 완화된 이후 신규 확진자 수는 전반적으로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지만 아직도 100명 이상을 웃돌고 있는 심각한 상황이다. 이 때문일까. 자영업자들은 아직도 코로나19 재확산의 불안감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다. 코로나19를 종식하려면 이제 우리 모두의 일상이 바뀌어야만 한다. 우리의 일

상이 변하지 않는다면 코로나19 종식 또한 오지 않을 수 있다.

이제 얼마 있으면 추석이다. 많은 사람들이 고향을 향해 달려가겠지만, 올해 추석 연휴는 그 어느 때보다 위기감이 고조될 것으로 보인다. 물론, 정부가 28일부터 2주간을 특별방역기간으로 정해 전국적으로 방역 강화 조치를 준비하겠다고 강조하고 있지만, 정부의 노력만으로는 코로나19 확산세를 누그러뜨릴 수는 없을 것이다.

위기가 곧 기회라는 말이 있다. 제아무리 힘든 상황에 놓여 있어도 그 위기에 슬기롭게 대처한다면 위기는 분명 또 다른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과거와는 다른 국민 대이동이 임박하고 있다. 코로나19 확산이 될까 두려워하기 보다는 마스크 착용과 거리두기, 손씻기 등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함으로써 코로나19 종식에 한발 더 다가갈 수 있는 추석 연휴가 되길 바란다.

방역에 지름길은 없다. 작은 방심이 자칫 코로나19 확산을 불러일으킬 수 있고, 작은 관심과 방역수칙이 코로나19 종식을 앞당길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tearand76@

## 미리 보는 한 주 추석 전 지원 기준선...추경 내일 통과될까

이번 주에는 정부가 코로나19 재확산에 대응해 편성한 4차 추가경정예산안이 언제 국회를 통과할지가 가장 관심이다. 여야가 합의한 22일(화) 국회 본회의 처리가 지켜지는가에 따라 추석 전에 각종 지원금 지급 여부가 결정되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지난주 원내대표 회동을 갖고 21일 예산소위원회를 거쳐 22일 본회의에서 추경안을 통과시킨다는 일정에 합의한 상태다. 본회의 처리 시점인 22일은 추석 이전에 소상공인과 특수고용직·프리랜서 등 고용 취약 계층에 대한 각종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는 기준선이다. 22일을 넘겨 추경안이 통과되면 지원 대상에 대한 공지, 지원금 신청 등 행정절차를 감안할 때 추석 전 지급이 어려워질 수 있다. 여야는 현재 통신비, 독감예방접종, 아동특별돌봄비 지급 대상 등 구체적 추경 항목을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주요형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국가에 도움이 된다는 확신이 없으면 날짜에 끌려서 쉽게 동의할 일은 절대 없다”고 말한 바 있어 양당의 입장이 추경 통과에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합

의대로 22일 추경안이 처리될 경우 정부는 신속지급 대상자를 중심으로 안내 문자를 전송할 예정이다. 대상자들은 안내 문자에 따라 온라인으로 지원금을 신청하면 된다.

주목되는 경제지표 발표는 많지 않다. 통계청은 23일(수) 7월 인구동향 및 8월 국내인구이동 통계를 내놓는다. 6월 출생아는 2만2193명으로 같은 달 기준 1981년 통계 집계 이후 최소였다. 2016년 4월부터 51개월 연속으로 같은 달 대비 최저 기록을 경신 중이다. 한국은행은 25일(금) 9월 소비자동향 조사 결과를 공개한다. 8월 소비자심리지수(CCSI)는 88.2로 7월보다 4포인트 올랐다. CCSI가 기준선 100보다 낮기 때문에 여전히 소비심리가 코로나19 이전보다 위축됐다는 뜻이지만, 지수 수준은 5월 이후 8월까지 4개월 연속 회복세를 유지했다. 다만 8월 소비심리 조사 시점이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확정 실행(8월 16일) 전이라, 코로나19 재확산이 소비심리에 얼마나 타격을 줬는지는 9월 지수에서 확인될 전망이다. 정리=홍석동 여론독자부장 hong@

'이투데이

뉴스를 풀어줍니다,  
경제가 쉬워집니다.

24시간 온라인 뉴스 서비스는 [www.etoday.co.kr](http://www.etoday.co.kr)



세상을 바꾸는 금융



기다림도 안심되도록  
긴급출동 기사님의 위치를 실시간으로 확인해요

보험이 더 쉬워지도록  
보험금을 간편하게 청구해요

마음껏 도전하도록  
공유 주방에서의 새로운 출발도 든든해요

우리 가족 평생 든든하도록  
작은 질병부터 큰 사고까지 보장받아요

꿈이 현실로 이뤄지도록  
은퇴 후 버킷리스트 실행 차금을 마련해요

# 든든하기

오늘의 소소한 걱정이 안심이 되도록  
내일의 막막한 불안이 희망이 되도록  
항상 꽃길만 걸을 수 없는 게 인생이지만  
당신의 모든 길을 함께 가는  
KB금융의 손해보험과 생명보험이 있어  
어떤 길을 걷든 든든합니다

오늘의 안심부터  
내일의 희망까지

**보험도 역시 KB**



KB 손해보험 | 푸르덴셜생명 | KB 생명보험 | KB 국민은행  
KB 증권 | KB 국민카드 | KB 자산운용 | KB 캐피탈 | KB 부동산신탁 | KB 저축은행 | KB 인베스트먼트 | KB 데이터시스템 | KB 신용정보

